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416-9202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1월 16일(음력 12월 9일) 수요일 (주간) 제662 호

"대운하 건설 문화유산 파괴"

사찰 · 유적지 등 피해 우려 반대 여론 고조

불교계단체 국민검증기구 구성 촉구 시위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가 불교문화와 생태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불교환경연대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 등 불교 단체를 비롯한 18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월 10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TF) 사무실 앞에서 '대운하 TF 해체 및 국민검증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지난해부터 경부운하 '조령대수로터널'의 생태 · 불교문화 파괴 문제점을 제기해 온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보림회(회장 지준)와 금강회(회장 보선)도 10일 간담회를 열고 경부운하 저지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보림 · 금강회 소속 스님들은 "조령대수로터널은 생태환경 및 역사유적지를 파괴하는 대재앙"이라고 경고하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앞서 7일에는 화계사 주지 수경스님이 조선일보에 '대운하는 청계천과 다르다'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국토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며, 역천(逆天)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운하 지역 생태 및 불교문화재 파괴=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운하 건설 지역의 생태 및 문화재가 파괴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재청이 1월 3일 한반도대운하 TF에 보고한 자료에서도 드러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운하 예정지에는 국보 · 보물급 문화재 6점을 비롯한 72건의 지정문화재와 한강 · 낙동강 유역의 매장문화재 177곳 등 총 299건의 문화유산이 존재한다.

국민행동은 7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수치는 대운하 전체 구간이 아닌 한강 · 낙동강 · 경부운하 주변의 문화재 분포만을 다룬 것이며, 전체 구간을 따져보면 수천 수만 점의 문화유적이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8일 대운하 TF에 "대운하 건설 등에 따른 문화재 발굴 수요를 감당하려면 국책사업 발굴단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보림 · 금강회가 작성한 '경부운하 조령대수로터널의 생태 · 역사유적지 파괴' 보고서에서는 더 구체적인 환경 · 불교문화 파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조령대수로터널은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월악산 국립공원과 문경도립공원 일대를 관통한다"며 "이 지역의 석회암 지대 역시 운하 입지상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주변 지하수위 하강 ▲자연생태계 변위에 따른 안개 발생 급증 ▲역사문화유적지 파괴 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조령대수로터널 구간과 약 1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문경 봉암사와 덕주사 마애불, 여주 신륵사 등에 직접적인 피해가 미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공사 전제 않는 공동조사단 구성해야=각계의 반대 여론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대운하 TF는 대운하 건설 강행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10일 "한반도 대운하는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 취임 후 1년 쯤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대운하 TF 역시 "2월 중 한국개발연구원과 국토연구원 주최 찬반토론회를 개최하고 4~5월 경 영향평가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9월 중으로 사업자를 공모해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착공하고 2012년 완공하겠다는 마스터플랜도 제시했다.

이 같은 일정에 대해 국민행동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여론 수렴과 환경단체와 공동탐사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운하 추진을 전제로 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고 한반도운하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운하 TF를 해체하고 국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회 원로로 하여금 중재와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로서 100인의 시민 검증단을 구성해 운영하자는 것이다.

보림 · 금강회 역시 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 측 인사와 환경 · 시민단체 · 종교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경제 · 생태환경 · 역사문화 · 인문사회 등 분야별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 법응 스님은 "대운하는 한반도의 생태와 문화를 뒤흔드는 행위"라며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전문적인 사전 진단이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불교계 내의 단일한 목소리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수령 기자



"이천 참사 희생자들 극락왕생 하소서"

1월 7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추모의 마음이 모아지는 가운데, 9일 조계종 사회부장 세영 스님(맨 왼쪽)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가운데), 이천 영월암 주지 홍법 스님이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이천시민회관을 찾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스님들은 합동 분향 후 유가족을 위로하고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8일에는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애도문을 발표한데 이어 불교인권위원회도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천/글 · 사진=박재완 기자

'종교간 화합' 범망경에 답 있다

<문학/사학/철학>게재 東大 박사과정 김경래씨 논문 눈길

개신교 장로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민이 함께 만든 대통령이지만 벌써부터 불교계 일각에선 개신교의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 정서가 불교계를 자극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이런 가운데 '불교포괄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해 '종교간의 공존을 위한 이론적 모색'을 꾀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계간 <문학/사학/철학> 제11호(2007년 겨울호)에 게재된 김경래씨(동국대 박사과정)의 논문은 초기 빠알리 경전 중 <범망경>을 인용 · 연구한 것을 정리한 것.

"다종교 사회에서 다양한 종교들이 만나는 상황을 평화적 공존으로 이끄는 것이 종교학의 사명"이라 전제한 김씨는 붓다가 활동하던 고대 인도사회가 전통 바라문 사상과 혁신적 자유사상이 난립하던 시기였다는데 착안해 논지를 전개했다.

김씨에 따르면 붓다는 당시 유행하던 사상을 62가지 견해로 분석하고 이들의 그릇됨을 밝혔다. 하지만 붓다는 이 견해들을 전적으로 배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마타(止, samatha)에 수용해 모두 열반에 포괄시켰다. 김씨는 이것을 '불교 포괄주의'라 표현했다.

김씨의 '불교 포괄주의'는 다른 종교를 배격하지 않고 이성을 바탕으로 타종교 이해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김용표 교수(동국대)가 <불교와 종교철학>에서 제안했던 '연기적 다원주의'와 흡사하다. 김씨는 김용표 교수 글을 인용해 <범망경>이 명백한 전거와 철학적 논리를 통해 완벽에 가까운 '불교 포괄주의'를 보인다는 자신의 논지를 굳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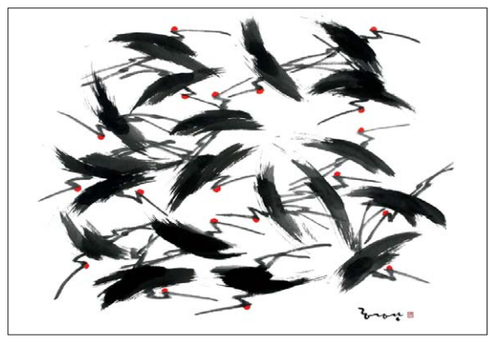
김씨가 정리한 붓다의 관용적 외도관은 다른 종교들로부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하는 화두에 답을 준다. ▲외도사상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을 삼간다 ▲외도사상을 이성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명백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끊임없이 수행해야 한다. 김씨는 이것을 <범망경>에서 붓다가 자신의 경험에 갇힌 중생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단지 느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과 연결해 "자신의 한계를 통찰해야 배타성이 극복되고 진정한 화합에 이르게 된다"고 정리했다.

조동섭 기자

새연재 나의 삶 나의 불교학 ▶12면
새연재 함께 가요 강의실로 ▶18면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 · 형사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 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허허당의 세상 만사



■ 선유(禪游)

인생은 노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슴 뛰게 노는 것이다
이 세상은 내가 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노는 사람 앞에서
이 세상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열심히 놀라는 것,
다른 의미가 아니다

"부처님 등불" 수공예전기촛불
불자님들의 가정과 스님께 선물 및 보시용으로 최고인 기원전기 촛불 수공예 양초가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안정성과 그을음이 없고 불자님 가정과 법당에 늘 환히 밝힐수 있으며, 30초 간격마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이다. 색상도 흰색, 꽃분홍, 노랑, 청색, 옥색 외 다수가 출시 되었다. 이제품은 전국 불교용품점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 제품문의 02)996-8830

소원성취(노랑) 소원성취(꽃분홍) 소원성취(원통)

달마 선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스승을 찾으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강의 형식으로 풀어놓았다.

진리는 보편 타당성에 바탕하므로 간명하다
불법 역시 대신 삶을 살아 줄 수 없다는
진리에 바탕하여 주체성을 세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행이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고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찾아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으므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개정판
달마선법으로 본
금강경



신국판 / 509페이지 / 12,000원

일신을 위하는 유위법은 100년을 닦아도 죽으면 함께 없어지지만 마음을 구하는 무위법은 아침에 듣고 저녁에 죽어도 세세생생 없어지지 않는 천하보물이 되므로 마음 닦는 길을 「금강경」이라 한다. 불교의 주체는 육신이 아닌 마음이고, 마음은 생사도, 남녀도, 더럽다, 좋다도 없이 온갖 모습으로 윤회할 뿐 불생불멸이므로 영원을 살기 위해 마음을 구함에 있다.
그러나 범부는 나무의 뿌리는 인정하면서도 육신의 뿌리인 마음은 없다 하고 보이는 일신만 유일한 자신으로 알고 부처를 구하느라 절하고 진언, 기도, 염불과 경전을 읽는다.
이 같은 다문(多聞)을 깨는 것이 「금강경」의 핵심이다.

도서출판 여시아문
서울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 6층 주문전화 02)2004-8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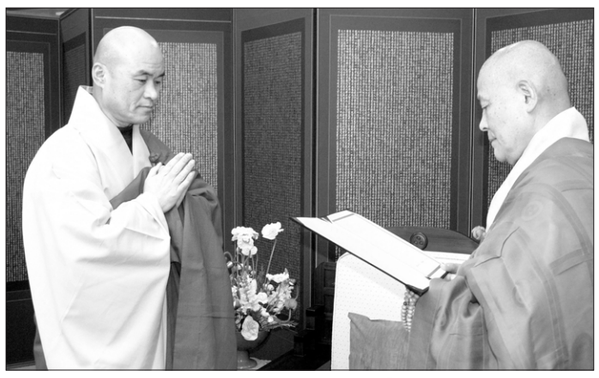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재임명

"대중 외호하며 포교도량 면모 일신시킬 것"

조계종 제21교구본사 송광사 주지에 영조 스님이 재임돼 1월 8일 임명장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하며 "4년간의 주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송광사를 잘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관 스님은 광주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무각사에 대해서도 "시와 잘 협의해 잘 풀어 달라"고 말했다.

영조 스님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역량도 부족하고 교구본사 주지를 한 사람이 오래 맡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방장 스님을 비롯한 어른스님들이 소임을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처음 주지소임을 맡고는 어떻게 4년이 지났는지 모르게 빠르게 시간이 흘렀다"며 "앞으로 대중을 외호하고 섬기며 편히 공부할 수 있는 도량으로 이끌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사진 왼쪽)이 1월 8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서 임명장을 받고 있다.

또한 스님은 순천과 광주 신도시의 종교시설 부지를 불하받아 뜻 있는 스님들이 포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시설을 현대화해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장기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영조 스님은 1968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73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71년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후 송광사에서 수선안거한 이래 8하안거를 성만했다. 광주 증심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11대 중앙종회의원, (재)중앙교원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2004년 송광사 주지로 취임했다.

여수령 기자

"대조사 탄신기념사업에 역점"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신년 기자회견

총본산 구인사 성역화 불사 등 5대 사업 밝혀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올해 ▲총본산 구인사 성역화 불사 ▲상월 원각 대조사 탄신 100주년(2011년) 기념사업 본격화 ▲통일사업 지속 전개 ▲국제 교류 및 해외포교 활성화 ▲시대상에 부합되는 사회복지사업 전개 등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사진)은 1월 8일 서울 관문사에서 신년 교계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8년 주요 종무계획을 이 같이 발표했다.

정산 스님은 "5가지 사업 중 새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이 바로 상월원각 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이라며 "대조사님의 탄생과 전법, 수행처에 대한 성역화 사업의 토대를 임기 내인 올해 마련해 2011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산 스님은 "대조사님의 행장과 어록, 유품, 사상 등을 망라한 일대기도 출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산 스님은 또 "2011년까지 유훈 계승을 위한 100만독 관음 독송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관음신앙 종단으로서 한국 불교내에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해 나가겠다"며 "신도 보살수계 산림 법회도 열어 출재가가 함께 수행하는 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개성 성지순례 사업 중단에 대해 정산 스님은 "개성 영통사 성지 순례는 천태종이 먼저 시작한 사업이지만 지난해 말부터 현대아산과 북측이 함께 진행하고 있어 천태종이 단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인원과 제반 부대비용 문제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현대아산을 통해 영통사 성지순례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무부장 무원 스님도 "영통사 성지순례는 북측과의 종교화합 차원에서 방법은 어떻든 간에 지속적으로 전개돼야 하는 사업"이라며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 종합한 <영통사 복원 종합 보고서>를 상반기중에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임 이후 가장 큰 성과로 꼽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산 스님은 "천태종이 중국으로 불교를 역수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이 이어졌다. "지난해 장관급인 중국 종교국장과 만났는데 천태종이 '애국불교, 대중불교, 생활불교' 라는 3대 지표를 갖고 있다고 말하자 특히 '애국불교' 에 큰 관심을 나타냈었다"며 "이후 중국 정부가 한국 천태종에 3대 지표가 사상으로 정리돼 있는 책이 있느냐고 물어 지난해 10월 종지종풍과 3대 지표를 담은 <천태종 성전> 5000권을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에 전달했다"고 과정을 이야기했다.

정산 스님은 "이를 계기로 천태종은 한·중 불교 교류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며 "올 6월 '화해로 사회를 건설하자' 라는 주제로 양국간 학술 교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산 스님은 "몽골에 조성 중인 만복사도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는 등 적극적인 국제 교류를 펼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지난해부터 천태종이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천태종 군종장교 파송문제에 대해서도 정산 스님은 언급했다. 스님은 "조계종과도 지난 1년 동안 여러 차례 논의 했고 군종특별교구와도 회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현재 파견 군승의 추천권이 조계종 총무원장에게만 있는 것은 한국불교의 전체적인 발전을 생각했을 때 대단히 잘못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는 각 종단 총무원장들에게도 파송 군승의 추천권한을 부여한 뒤 여기서 추천된 예비군승들이 공정한 시험과정을 통해 선발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천태종 내 비구니스님들의 활동 영역 확대에 대한 정산 스님의 의지도 언급됐다. 정산 스님은 "현재 비구니스님들은 천태종 사찰 산하에 유치원 교사와 학생회 법회 법사로 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1급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두 비구니스님부터 복지관 관장직을 맡기는 등 복지관 운영에도 활발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구니스님들의 역할이 여전히 미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산 스님은 "개인적으로는 비구니스님을 사찰 주지에 임명하고 싶지만 종단 내부의 상황이나 비구니스님들의 의지가 함께 맞아 떨어졌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외에도 잔여임기 1년여를 앞두고 그간의 소회를 묻자 정산 스님은 "취임 후 21개월 동안 머릿속에서 구상했던 것을 현실화시키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이 자리에서 공약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승려법개정안 재상정

사패산 관련자 징계 요청도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도완)는 1월 9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승려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종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승려법개정안'은 지난 11월 열린 제175회 중앙종회에 제안됐으나, 법제분과위원회가 환부조치 시킨 바 있다.

호법분과위원회는 이날 승려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기존 개정안에 대한 일부 법안을 조정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단, 정당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신설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이 종헌에 명시된 종정예하의 사면권과 총무원장의 사면 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차기 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호법분과위원회 산하 '사패산 보상금 및 봉선사 주지 직무 관련 의혹 조사소위원회'(위원장 도완, 이하 사패산소위)는 9일 제9차 회의를 열고 "봉선사 前 주지에 대해 호계원에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패산소위는 이날 배석한 호법부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그간 제기되었던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이거나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따라, 호법부에 중징계 회부를 촉구하겠다"고 결정했다. 사패산소위는 또 "초심호계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소위를 존속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울산지사 : (052)272-09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지사 : (062)268-150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조계종 34기 행자교육원 개설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은 제34기 행자교육원을 2월 26일부터 3월 19일까지 김천 직지사에서 개설한다. 입교는 2007년 9월 20일 이전에 입산해 9월 30일까지 교육원에 행자 등록한 후 교구본사 행자교육을 마쳐야 가능하다.

입교지원서는 1월 14~25일 해당 교구본사에서 접수한다.(02)2011-1800

종단협 올 예산 6억7천만원 확정

전년대비 6천여만원 증액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이하 종단협)는 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2008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올해 예산을 6억7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6억1000만원보다 6000여 만원이 늘어난 액수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을 2억5000만원으로 결의했다.

이외에도 종단협은 ▲1월 16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초청 신년하례법회 봉행 ▲한국수행체험단 중국불교 체험 ▲4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준비회의 ▲10월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개최 등 주요 사업안을 결정했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올해 봉축표어 공모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5월 12일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봉축표어를 공모한다. 10자 내외의 글에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이나 어린이 청소년 불자 독려 내용이 담기면 된다. 접수는 이메일(nhk@buddhism. or.kr)이나 팩스(02-725-6643)로 가능하며 마감은 1월 25일. 당선작에는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02)2011-1745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08학년도 신·편(학점은행제)입학 모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임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범패"로 지정이 되어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로 지정 되었습니다. 금번 2007년 9월 1일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여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영산재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록을 향한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및 정원(신입학,수료과정)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 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상주권공	상주권공과정	월,화	오후4~7	조인각	30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1~7	이기봉	30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1~7	마일운	30
불교무용(작법)	바라/나비/법고춤	수	오후1~7	한해사	30
불교의식(실기)	시련/대령/관욕 등	목	오후1~7	마일운	30
불교의식(이론)	불교의식	화	오후1~4	활안(한정섭)	재학생
불교의식(연구)	짓소리 전문반	수	오후1~3	김구해	졸업생
불교음악&무용(이론)	불교음악/불교무용이론	월	오후1~4	김법현	재학생

모집학과 및 정원(학점은행제)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교수진	모집인원
범패실습 I	영산과정	금	오후1~7	마일운	30
영산재의불교예술적특징	불교음악/불교무용이론	월	오후1~4	김법현	30
영산재의원리와방법	불교의식	화	오후1~4	활안(한정섭)	30
영산재의례절차 I	상주권공과정	월,수	오후4~7	조인각	30

모집학과 및 정원(편입학)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 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1~7	이기봉	약간 명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 시 자 격

수료과정 : 승려 및 일반인,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과, 무용과 등) 교역자 및 일반인

학점은행제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 기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편 입 학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제 출 서 류

▶수료과정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원서대 및 전형료 : 50,000원

▶학점은행제과정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 반명함판 사진3매,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편 입 학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반명함판 사진3매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동일 계열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 면접 후 입학. 면접 일정 개별 통보

전 형 일 정 2008년 1월 2일 ~ 2008년 2월 15일 까지

원서교부 및 인터넷 접수처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접수

합격자발표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특 전

1. 재학생 중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 시 종단이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합동 득도 수계산림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2. 태고종 승려에 한하여 2급 정포교사 자격증을 수여
3.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 시 태고종 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를 품수
4.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5. 신입생, 재학생 성적 우수자 장학금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을 부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TEL 02)392-3234, FAX 02)392-3239, 홈페이지: http://www.okchunbud.kr/

조계종, 포살법회 정례화한다

조계사 올해부터 月 2회 시범 봉행…결계록 발간 추진도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종단 4대 비전 중 하나인 포살법회 정례화 및 결계록 발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계종은 올해 종단 슬로건을 '포살의 생활화, 수행하는 종단'으로 삼았을 만큼 포살법회 정례화를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다. 포살은 대중들이 보름과 그믐마다 한 자리에 모여 자신이 계율을 범한 것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의식을 말한다. 이러한 포살법회를 종단 차원에서 정례화 하겠다는 것은, 계율에 대한 인식과 종단의 청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 첫 발걸음으로 서울 조계사(주지 원학)는 새해부터 매달 음력 초삼일과 보름에 포살법회를 열기로 하고, 1월 8일 첫 법회를 봉행했다. 원학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조계종은 포살과 자자를 통해 수행풍토를 정착하고자 하는 원력을 세우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계사가 시범적으로 포살법회를 월 2회씩 봉행하며 참회를 생활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포살법회 의의를 설명했다.



조계종이 올해부터 포살법회 정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 조계사(주지 원학)가 1월 8일 새해 첫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현재 조계종 총무원은 실무위원회를 구성, 포살법회 정례화 방안과 관련 법령 보완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3월부터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월 2회 포살법회를 실시하고 이를 점차적 사찰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직접 완역한 <범망경 포살본>도 함께 보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조계종은 수행가풍 점검을 위한 <결계록> 발간도 추진 중이다. 결계(結界)란, 결제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을 정하고 그곳을 수행 도량으로 삼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조계종이 추진하는 결계록은 종단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이 안거기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한 결계를 묶은 자료집을 말한다. 종단은 이를 토대로 구성원들의 수행이력과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관 스님은 1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수행종풍 진작을 위한 대중결계와 포살' 특강을 열고 종무원들에게 포살법회와 결계록 발간 의의를 설명했다.

스님은 "현재 조계종단의 총림 · 선원 · 강원 등에서는 결계전통이 존속되고 있지만, 사찰이나 포교당 등 개별 수행처에 있는 구성원들은 여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결계록 발간은 종단 구성원들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중들 스스로 긴장감을 갖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각심을 갖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님은 "앞으로 각 교구본사들이 소속 대중의 결계를 작성하고, 종단은 이를 1년에 한 번 묶어 책으로 펴내게 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이어 스님은 "포살은 승가구성원에게 있어 소중한 의무이며, 승가는 결계 내에서만 구성원으로서의 실질적 위상을 얻을 수 있다"며 "포살법회 정례화와 결계록 발간은 승가대중의 의무와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수령 기자

"사찰 수목장림 면적제한 문제 있다"

조계종, '장사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 검토회의 마련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07년 12월 24일)에 대해 조계종은 어떤 의견을 피력할까? 복지부 의견제출 마감 시한 1주일을 앞둔 1월 7일,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종단 관계자와 사찰 수목장 실무자, 학자들을 초청해 의견 개진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수일 불교정책기획단 집행위원은 "수목장림 허용 면적이 법인과 종교단체가 10:1 비율인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기남 사무국장(영천 은해사)도 "기존 산림을 이용한 수목장에 면적제한을 두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등 참석자 대다수 사찰 수목장림 면적 제한을 중점으로 입법예고안에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목장림은 해당 종교단체의 신도와 그 가족에 한해 1만㎡(약 3000평)로 규제된다. 또한 전통사찰법의 규제를 받는 해인사, 범어사, 은해사 등 820여개 전통사찰들은 5000㎡로 제한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석암 실장(강화 전등사)은 "면적이 아닌 그루(本) 개념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명근씨(동국대 강사)도 "단순히 면적만 늘려 달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찰 수목장만의 차별화를 부각시켜야 관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이덕진 교수(창원대학 장례지도과)의 "이웃종교의 견제는 물론 이권 · 금전이익이 있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개정요구안이 통과될 수 없다"는 지적처럼 개정 수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등 스님(조계종 기획국장)은 "불교계가 초기부터 허용면적 확대안을 강력하게 한 목소리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치밀한 준비로 그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종단 요구사항이 반영될 것"이라며 끝을 맺었다. 결국 교계가 내놓을 수목장림 허용 면적 확대안이 수용되려면 사찰 수목장이 사찰문화재 보호는 물론 산림 보전에 보탬이 된다는 공감이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 대부분의 시각이다.

한편 회의가 끝난 뒤 한 참석자는 불교계가 장례문화 중 최종 과정인 봉안에만 집중하는 것은 지나치게 상업적 · 편의적이라는 의견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한 장례문화 전문가는 "교계가 납골 봉안기수에 집착하듯 수목장림 면적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10여전 납골당(봉안당) 사례에서 보여준 문제점이 현재에도 답습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수목장림 허용 면적 몇 만 제곱미터보다 화장장 예외 조항이었던 사찰 다비가 개정안에서 삭제된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며 의견제출시 해당 조항 삽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체험형 템플스테이 문화상품 선봬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개발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이 한해 7만여 명에 이르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위한 문화상품을 개발해 보급에 나섰다.

이번에 개발된 상품은 발우공양 목수저세트와 108염주 만들기 체험세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대부분이 실시하고 있는 발우공양과 염주만들기 체험 후 목수저와 염주를 참가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품 중 일부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자활센터에서 생산하도록 해, 교계 복지단체 및 장애우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발우공양 목수저세트는 목수저와 오관게가 새겨진 수저집으로, 염주만들기 체험세트는 염주알과 염주줄, 발원문을 적을 수 있는 원력카드, 보관 주머니로 구성되어 있다. 가격은 미정이다.

여수령 기자

봉은사서 설우 스님 '선요' 강의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는 1월 16일부터 3개월간 '수요야간법회 설우 스님의 선요(禪要)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봉은사 법왕루에서 진행된다.

<선요>는 중국 고봉 대사가 '선의 요체'에 대해 설법한 책으로, 전국 강원에서 기본교육 교재로 삼고 있다.

설우 스님(청주 법인정사 선원장)은 현재 조계종 교육원 교육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등을 맡고 있다. (02)3218-4812

"처음 타보는 스키 신기해요"

승가원장애아동시설, 장애아 20명 대상 스키캠프

"난생처음 스키를 배우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승가원장애아동시설(원장 동옥)은 1월 9~10일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펀펀(Fun · Fun)스키캠프'를 마련, 장애아동 20명이 눈밭에서 스키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펀펀 스키캠프는 미래에셋 박현주재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아동 · 청소년 테마캠프신청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장애아동들의 스키캠프는 위험부담이 크다. 장애아동에게는 일반 아동들보다 몇 배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승가원장애아동시설에서는 시설장애아동들도 겨울철 여가활동을 충분히 즐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스키캠프를 감행했다. 여기에는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자 10명의 힘이 컸다.

이 중 자원봉사자 이광근(22)씨는 "아이들이 행여나 다치지 않을까 신경을 많이 썼다"며 "아이들이 눈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함께 기분이 좋아져 참가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펀펀 스키캠프에서는 스키강습 외에도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한 치료레크레이션도 진행됐다.

김강진 기자

군장병 수행 지도 지침서 발간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군장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첫 손가락에 꼽힐 것이다. 군장병들이 수행의 기초를 닦고 참선의 가치와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줄 불교수행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담은 지침서(사진)가 발간됐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도신)이 개발한 불교수행 프로그램은 군장병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춰 참선과 수행의 기초를 닦고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행복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참선의 가치와 목적을 군생활에 적용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끌어주는 한편, 집중표를 통해 집중력을 강화하도록 도와준다.

총 8회에 걸쳐 '집중표에 집중하기' '망상의 개수 세기' '음악소리에 집중하기' '호흡 지켜보기' 등의 수행과제를 실천하고 좌선을 익히게 된다. 또한 15분간의 잔상훈련을 통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수행일지 쓰기와 수행담 나누기 등을 통해 수행을 점검하도록 했다. 자료집 <군장병 불교수행 프로그램>에는 각 회차별 지도방안과 진행순서, 준비사항 등을 세세하게 소개해 체계적인 지도가 가능하게 했다.



고명석 포교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군종교구와 협력해 군법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행 프로그램 지도자를 양성할 것"이라며 "일선에서 군장병들에게 불법과 불교수행의 가치를 일깨워줌으로써 군포교의 지평을 넓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진공청소 · 물걸레청소 · 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창에 마미로봇
Mamirobot Intelligent Home Robotics KM MEDIATRONICS (주)경민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275,000(소비자가격) 입금계좌:기업은행 018-072448-01-015 [예금주:장승락]

謹賀新年 2008년 戊子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佛紀 2552年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학인일동

한국불교태고종
삼 봉 사
도 봉 합장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용암1리 168
TEL 033)762-8958
H · P 011-368-8957

한국불교태고종
달 마 사
주 지 혜 담 합장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35-7 홍와빌딩5층
TEL 043)253-2990
H · P 011-9423-4337

장 엄 사
주 지 혜 선 합장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891-1
TEL 032)937-9582
H · P 017-259-6902

한국불교대승법사종
불 음 정 사
주 지 세 정 합장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1동 276-16
TEL 032)503-4883
H · P 011-2237-2470

(사)대한불교선각종
천 불 암
주 지 선 주 합장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2동 247-25
TEL 032)504-5344
H · P 011-277-5344

불 정 사
주 지 묘 정 합장
■ 경기도 군포시 당동899 명진빌라 201호
TEL 031)454-2805
H · P 010-2776-8052

불 정 사
주 지 지 혜 합장
■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무릉1리
TEL 033)372-8116
H · P 011-9440-8116

중요무형문화재제50호영산재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각배반 무 상 합장

중요무형문화재제50호영산재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각배반 진 관 합장

대한불교천태종
관 수 사
주 지 대 석 합장
■ 전북 남원시 노암동 278-4
TEL 063)633-3439
H · P 010-7153-2697

대한불교본원종
약 사 암
청 산 합장
■ 전북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102
TEL 063)563-9791
H · P 010-9563-3390

“사회공헌으로 보답할 것”

관음사 현진 스님 봉사활동 공로 대통령상 수상

“저에게 너무 과분한 상을 주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좀 더 많은 사회공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찰 업무협력과 봉사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상을 수상한 청주 관음사 현진 스님(사진).



끊임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힘써온 구슬땀의 값진 결실로 한해를 뜻 깊게 마무리했다.

현진 스님은 지난 2004년부터 충북경찰청 경승으로 활동하면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앙 활동을 돕고 치안업무에 협조한 일이 알려져 조계종의 추천을 받아 종교계에서는 드물게 대통령상을 받았다.

“사찰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복지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계층을 만나 종교 활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의 소명이 희생과 봉사인 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저의 작은 뜻이 사회공헌에도 이바지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현진 스님은 사회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관음사에서 부처님오신날 열리는 ‘산사음악회’, 방학기간에 열리는 ‘어린이 캠프’, 불교문화를 가르치는 ‘불교대학’ 등의 문화행사 뿐만 아니라 평통 자문위원 등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현진 스님은 ‘오늘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욕심을 버리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해야 큰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고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재에 충실히 해야 값진 하루를 보낼 수 있고 뜻 깊은 한해를 보내다 보면 반드시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린 만큼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혜철 충청지사장



군산 관음사 제곤 스님(가운데)을 초청법사로 호국 군성사가 1월 5일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올 겨울방학엔 山寺체험 어때요

어학·심성 수련 등 이색 템플스테이 다채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어학 및 수련형 템플스테이, 명상캠프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최근 청소년들을 위한 어학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찰에서도 영어 수련회와 어린이 한문학당 등의 어학 템플스테이를 마련하고 있다. 서산 부석사와 연등국제선원은 청소년 영어교실을 진행한다. 남양주 봉인사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사마타 위빠사나 집중수련을, 공주 마곡사와 서울 구룡사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중심형 템플스테이를 준비하고 있다. 인제 백담사는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을 위한 템플스테이와 ‘어린이 몸짱 마음짱 만들기 단기출가’ 등 이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색있는 템플스테이도 좋지만 수행을 맛보고 싶다면 위빠사나 명상캠프에 참가해 보자. 위빠사나 수행도량 경주 마하보디 선원(주지 혜조)이 ‘제3회 청소년 위빠사나 명상캠프’를 1월 19~23일 진행한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위빠사나 수행을 기본으로 영화 감상 및 영화 속에서 메시지 토론, 108배 정진, 요가, 탈춤, 상담프로그램, 1년 후 자신에게 편지쓰기, 남산 유적·유물 살피기 등반, 논술·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청소년들의 심성 수련에 도움을 준다. 경성대 박기철·정일형 교수 등 전문가들도 초빙한다.

주지 혜조 스님은 “아이들이 외국의 문화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정서를 전달해주는 것에 주목하려 한다”며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마음 변화를 뚜렷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위빠사나 캠프 동참금은 15만원이며, 인원은 선착순 15명이다. (054)746-9750

여수령·김강진 기자

◆수련형(불교학교 포함) 진행사찰

사찰명	연락처	프로그램명	일정	프로그램 내용
신흥사	061-554-2634	어린이 겨울 불교학교	1월 17~19일	대상: 초등학생
삼화사	033-534-7676	어린이 겨울불교학교	1월 24~27일	인원: 20명
봉인사	031-574-5585	사마타 위빠사나 10일 집중수련	1월 18~27일	대상: 일반

◆영어프로그램 진행사찰

사찰명	연락처	프로그램명	일정	프로그램 내용
연등국제선원	032-937-7033	청소년 영어 템플스테이	2기:14~17일-초등부 3기:21~24일-중·고등부 4기:28~31일-초등부	모든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영어수준과 학년에 따른 편성 및 외국인 스님과 내·외 불자들에 의해 영어, 한국어 동시 진행.

◆가족중심형 진행사찰

사찰명	연락처	프로그램명	일정	프로그램 내용
마곡사	041-841-6226	가족 템플스테이	1월 26~27일	대상: 10가족 프로그램: 친분쌓기(가족소개), 다도, 올력, 징검다리 건너며 대화하기 등
구룡사	033-732-4800	가족 템플스테이	1월 26~27일	프로그램: 산행, 염주 만들기, 참선 등

◆특별프로그램 진행사찰

사찰명	연락처	프로그램명	일정	프로그램 내용
백담사	033-462-6969	어린이몸짱! 마음짱! 만들기 단기출가	1차: 1월 21~25일 2차: 2월 11~15일	어린이들이 마음과 몸 모두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명상, 다도, 미술, 독서로 마음을 열어 건강한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공군 불자 장병들 “창공을 법당처럼…”

전북 호국 군성사 신년법회

전북 지역의 유일한 공군 법당인 38전투 비행대 호국 군성사에서 1월 5일 신년법회가 봉행됐다. 군산 관음사 재곤 스님을 초청법사로 하성룡 전대장 등 불자 장병과 공군 가족 4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재곤 스님은 “ 우주 삼라만상이 부처 아닌 것이 없으니 창공을 법당삼아 군복무에 충실해 달라”고 법문했다.

새로 부임한 하성룡 전대장은 장병을 아들같이 때론 동생같이 보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법회 후에는 준비해간 떡볶이, 통닭 등의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스님과 전대장, 일반사병 간의 가족적인 분위기를 이어갔다.

군산 미 공군 기지내에 있는 군성사는 미군 당국의 까다로운 출입통제와 검문검색으로 인해 지역 불자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군인 가족을 중심으로 법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타 부대로 전출되는 김남정 회장 후임에 박원철 포교사가 회장에 선출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석문 판독·연구방법론 발표회

남도불교문화연구회 개최

광주전남지역에서 불교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집단인 남도불교문화연구회(회장 황호균, 전남대박물관 학예실장)에서 정기연구발표회를 열었다.

1월 5일 오후 3시 보성제다 다(茶)실에서 연구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호균 회장이 ‘금석문 판독(교감·해제)과 연구 방법론’에 대한 발표를 했다.

이날 발표회는 흥국사 동종에 대한 명문 분석과 금석문의 판독표 세로 작성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었다.

남도불교문화연구회는 1998년 창립하여 지역의 사(寺)지의 복원과 불교문화에 대한 연구발표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최근에는 금석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구성원은 지역 박물관, 역사학자, 고건축가, 지역사학자 등 전문적인 연구자과 후원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구 능인선원 자선음악회

대구 능인선원(선원장 혜장)이 1월 5일 동구문화체육회관에서 ‘난치병 어린이 돕기 음성 포교 스님과 함께 하는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심진, 도신, 법능, 혜장, 도안, 시명, 지연 스님 등 불교계 내로라하는 스님들이 음성공양에 나섰다.

이날 모금액은 난치병 어린이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청수사 신축도량 낙성식 봉행

청주 청수사(주지 정염)가 청주 지역의 도심 포교 전법도량 아름다운 사찰 낙성식을 1월 10일 봉행했다.

상당구 내덕동에 신축공사를 통해 총면적 490.75㎡(연건평 150평)에 지상 3층 규모의 청수사 낙성식에는 청주지역 신도와 수원사 주지 성관 스님(청수사 회주)을 비롯한 수원사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청수사 1층에는 사찰 로비와 어린이·청소년 공부방 및 불교 용품점, 2층과 3층에는 법당이 자리했다. 청수사는 2003년 6월 25일 수원사 주지 성관 스님이 충북지역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세상 ‘선재원’의 제2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연이어 2005년 창건한 사찰이다. (043)218-9995

혜철 충청지사장

일본 불교 수행자 모집

일본 오사카 보현사와 고려사가 한국의 비구 비구니스님, 남녀 법사, 포교사 등에서 일본 불교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한다.

입방자의 조건은 학력 연령 제한이 없고, 3년 수행 후 입방을 원하면 영구 상주할 수 있다. 입방 상주자에게는 일본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생활보장 및 영주권 취득시까지 행정지원한다.

일본에 포교당 개설을 원하면 그에 따른 행정지원 및 영구 비자 보증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043)732-5520

혜철 충청지사장



스님들 위한 '문수경전연구회' 탄생

정법을 향한 스님들의 구도 행진



문수경전연구회의 첫강의는 무비 스님의 <법화경> 강좌로 시작됐다.

많은 불자들이 불교의 현실을 돌아보고 '위상이 무너졌다' '인재가 부족하다'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 등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현실 속에 한파의 어려움을 이기고 피어난 붉은 동백꽃처럼 아름다운 수행현장이 탄생했다.

오직 스님들을 위한 공부모임 '문수경전연구회'가 1월 7일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본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모임의 목적이다. 부산 범어사 입구 문수선원에서 첫 강의를 개최한 문수경전연구회에 참석한 스님들의 수는 100명이 넘는다. 송광사 율원장 지현 스님, 불교경전연구회 회장 지장 스님,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영축선원 선원장 반산 스님 등 대부분 부산 경남지역에서 주지를 맡아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스님들이다.

"불교의 위상이 하락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스님들이 본분을 지키지 못해서입니다. 스님들의 본분은 공부이며 정진입니다. 문수경전연구회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본분을 되새기고 자성하기 위해 구성된 순수한 공부 모임입니다."

문수경전연구회의 선두에서 강주를 맡은 범어사 강백 무비 스님이 모임의 목적을 설명했다. 무비 스님은 <법화경>부터 시작해 <선문염송> <전등록> 등 3년의 기본 과정이 끝나면 1년간의 심화 학습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4년간 과정을 마친 스님들은 철저한 검증 후 무비 스님이 전강해줄 계획이다.

문수경전연구회의 전신은 스님 10여명이 모여 무비 스님에게 강의를 요청한 것에서 비롯됐다. 무비 스님이 강의한다는 소문에 비구니스님들이 모인 '화엄회'가 합류해 수강인원이 늘었다. 입소문이 퍼져 결국 지역 포교일선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이 100명 넘게 한 자리에 모여 문수경전연구회가 발족하게 됐다.

모든 에너지를 현장에 쏟아 부은 스님들이 느낀 목마름은 공부에 대한 갈증으로 나타났다. 무비 스님은 "오직 수행과 전법에 집중해 공부로 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문수경전연구회의 강주 무비 스님이 선택한 첫 교과목은 <법화경>이다.

"<법화경>은 경전 중의 왕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편이 넘치고 그릇된 주장들이 난무합니다. '회삼귀일(會三歸一)', 하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거를 제시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에 대한 삿된 견해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이런 의견들도 바로 잡을 것입니다."

<법화경>의 핵심사상은 '회삼귀일(會三歸一)', 각각의 방편을 버리고 진실한 세계, 일승(一乘)으로 돌아오라는 의미다. 진실한 불제자로 거듭나기 위해 교육을 자청한, 문수경전연구회 스님들의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051)515-7870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 신년하례회 봉행

부산불교연합회, 부산신도회 비전 제시

부산불교신도회와 부산불교연합회가 각각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 부산불교신도회 공병수 회장은 1월 3일 신년하례회에서 "부산불교신도회관을 거점으로 청정화합시민연대, 로터스클럽 등을 통해 사회적 실천운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7일 신년하례회를 개최한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 · 사진)는 '사명대사동상 하얄리아 시민공원 이전 및 현양 사업추진' '부산시민연등축제 및 팔관회 등 지역불교문화축제활성화' '사찰관련 규제해소 위한 특별법 제정추진' 'BBS부산불교방송 창원중계소 건립'을 2008년 부산불교 4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개최 장소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부산불교신도회와 부산불교연합회가 2008년 신년하례법회를 따로 봉행해 아쉬움을 남겼다. 부산불교신도회는 1월 3일 부산불교신도회관 6층 법계정사에서, 부산불교연합회는 7일 코모도 호텔 1층에서 신년하례법회를 열었다.

하성미 기자

한국티벳센터 명상아카데미 및 티베트어 강좌 신설

부산 한국티벳센터(주지 소남)에서 '제2기 한국티벳센터 명상아카데미' 및 '기초티베트어 강좌'를 개설한다.

제2기 한국티벳센터 명상아카데미는 '고통의 뿌리인 악한 마음을 소멸시키기 위한 명상'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명상 교재는 쫑카파 대사의 <삼요도>이다. <삼요도>는 출리심, 보리심, 공성에 대한 깨달음 등 세 가지 요의법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교재 <삼요도> 내용과 명상법 설명, 명상체험 후 질의 시간 등으로 강의는 진행되며 법사는 구룽 왕겔 스님이다. 스님은 1956년 네팔과 티베트의 국경 사이에서 출생, 10세 때 네팔 삼델링 사원으로 출가했다. 2년 간 미국 로셀링 센터에서 불교학을 강의하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다람살라 체촐링 사원에서 방장을 역임했다. 기간은 1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6시이다.

기초 티베트어 강좌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과정이며 매주 화, 목 오후 7시 한국티벳센터 1층 공부방에서 진행된다. 강사는 게시 뗀진 남카 스님이다. 게시 뗀진 남카 스님은 티베트어뿐 아니라 한국어 실력도 출중하다.

한국티벳센터는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어는 범어에 비유할 수 있는 언어로 현교 밀교 등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모두 들어 있는 언어다'고 말씀하셨다"며 "티베트어 속에는 티베트의 문화 속에 남아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벽하게 들어 있으므로 불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051)243-2468 하성미 기자

"성도재일을 축제의 날로"

거제도 금강사 봉축법회 봉행

거제도 금강사(주지 성원)가 성도재일을 이틀 앞둔 1월 13일 성도재일 축하 봉축법회를 지역민들을 초청해 금강사 법당에서 봉행했다.

주지 성원 스님은 "부처님의 진정한 탄생일은 깨달음을 성취한 성도재일이다"며 "6년 고행 끝에 대도를 성취한 거룩한 부처님의 뜻을 기리고 일일 개인 연등불을 밝히는 봉축법회를 봉행하게 됐다"며 축하했다. 금강사는 이웃 지역민들과 가족들을 위한 특별봉축공연을 마련하고 영상물 상영, 찬불가 합주 공연, 음식체험나누기 행사 등을 진행했다. 하성미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 존자

'도심' 장점 최대한 활용

미타선원 하림 스님

각종 법회와 기도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제 계획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 · 사진)은 남포동과 국제시장, 자갈치 시장을 지척에 두고 있는 대표적인 도심 사찰이다. 도심 사찰의 강점은 불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접근성이 좋은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불자들과 사찰이 만나게 된다. 미타선원 역시 매일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각종 법회와 기도, 특강 등이 이어진다.



미타선원이 도심에서 불자들과 함께 호흡하게 된 것은 2006년 하림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면서부터다. 하림 스님은 무엇보다 먼저 가족법회의 활성화를 이끌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된 것은 아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뒤 매월 1회 108사찰 성지순례를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가족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요즘은 150명 이상이 동참한다.

하림 스님은 또 사찰 회보 '마음편한 절 미타'를 정기적으로 발행해 지역민과 사찰을 공동체로 만들었다. 회보는 매월 2000부 이상 인근의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등에 배포되어 말없는 포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스님은 무엇보다 사찰의 운영이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유지되길 바라고 있다. 하림 스님은 "사찰운영 및 자금관리를 신도회가 주도할 것이며 신행과 수행, 봉사가 함께하는 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에는 신도들이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공부와 기도 그리고 수행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타선원 신도회원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월 2만원의 회비로 회원으로 등록되면 불교기본교육, 각 기도법회 동참 및 축원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신도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이용할 때는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심사찰의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는 새싹포교. 미타선원은 초등학생을 위해 희상 스님(동국대 강사)과 함께 하는 '놀토문화강좌'를 열고 있다. 또 매주 사찰음식 전문가인 홍승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배우기'로 인스턴트에 물든 먹거리 문화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의 <금강경> 강의, '자비수관' 강좌는 수강생의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누구나 편안히 참선 수행을 할 수 있는 선열당과 안심당 두 선방을 개원해 도심 수행도량으로 자리매김하여 이번 동안거에 50여명의 재가불자들이 쉼 없는 정진을 하고 있다.

하림 스님은 새해를 맞아 "지혜와 복덕을 함께 쌓아가는 것이 수행인만큼, 수행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세룡 부산지사장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www.njutcm.edu.cn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조기유학생 모집
초 6 · 중 · 고 1, 2, 3학년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20명 (내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평점3.50이상)	
박사과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8년 1월 29일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 스 :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학림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006년 본과 합격자 명단

- 본과 합격자 -

▲강민정(경희대학원) ▲이거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이정화(건국대) ▲서연호(한국항공대) ▲ 박병수(명지대)
▲박영문(명지대) ▲강성우(호남대) ▲이경환(배제대)
▲이종환(우석대) ▲김재문(경남대) ▲최종건(UCLA)
▲황진영(유성여고) ▲이창영(마산고) ▲ 황성환(대건고)
▲정재형(성문고) ▲박상준(구정고) ▲이상훈(성신고)
▲박민수(화수고) ▲이원영(동지고) ▲김인환(인항고)
▲박선규(반포고) ▲송미나(광주여고) ▲김민성(휘문고)
▲김준호(배문고) ▲김정우(현대고) ▲박은수(대덕고)

- 석사과정 합격자 -

▲신병룡(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호(경희대 한의학과)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종(북경중의대 한의학과)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광대 한의대학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 대학림

한국 총장 손혜인

일 주 문



포교신도단체임원대회 개최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1월 19~20일 양양 낙산사에서 산하 단체들의 포교 종책 이해를 돕기 위한 포교신도단체임원대회를 개최한다.(02)2011-1894



탄허대종사기념박물관 기공식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혜거 스님은 1월 25일 오전 11시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자곡동서 탄허대종사기념박물관 건립을 위한 개산 기공식을 봉행한다.



불교TV 초청 법회
강릉 성원사 주지 주경 스님은 1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관악구 무상사 대법당에서 열리는 불교TV 초청 법회에서 법문한다.(02)3270-3492



북한연구소 이사장에 선임
조계종 중앙신도회 민병천 고문(前 동국대 총장)이 1월 9일 사단법인 북한연구소 제12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민 이사장은 1970년대부터 북한연구소 이사를 맡아왔다.



간화선 입문 수강생 모집
불교인재개발원 허경만 이사장은 1월 24일 개강하는 '간화선 입문 7기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선착순 40명 모집. (02)735-2428



남대문세무서장 부임
조계종 중앙신도회 날마다좋은날 한명로 이사는 1월 2일 국세청인사를 통해 동작세무서장에서 남대문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았다.

(사)남북누리나눔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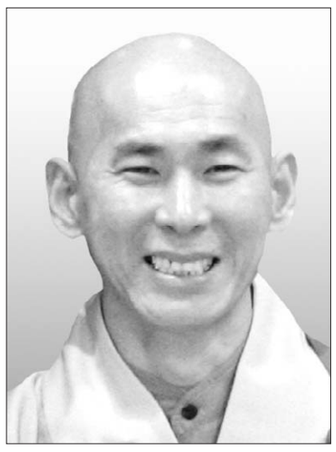
(사)남북누리나눔 창립대회가 1월 8일 청주 매직플라자 화이트홀에서 열렸다. (사)남북누리나눔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민족통일을 목표로 결정된 단체.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지역민의 대북지원협력사업 참여가 남북 평화를 위한 나눔 사업이며 민족번영과 통일을 위한 초석 놓기"라는 창립 선언문을 채택하고 ▲정관안 심의 의결 ▲임원 구성안 심의 의결 및 신임 임원인사 ▲사업안 및 예산안 심의 의결 등을 진행했다.

정세현 前 통일부장관이 평화 번영시대와 남북교류 협력이라는 주제로 기념 강연을 했다. 국회의원 홍제형, 오제세, 노영민, 청주시장 남상우, 오재헌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장, 청주 보현사 주지 원봉 스님, 노영우 민주평통 부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인사 불교TV ▲총무국 부국장 노원래 ▲사업국 부국장 성윤숙 ▲제작2부 부장 강영호 ▲광고사업부 부장대우 심재원 ▲제작3부 부장대우 류건욱

"어린이법회 활성화 위해 노력할 것"

대불어 부산지구 신임 회장 효선 스님



"어린이 법회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교사를 격려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단법인 동련 대불어 부산지구(이하 대불어 부산지구) 회장으로 취임한 효선 스님(공덕원 주지 · 사진)의 야심찬 다짐이다.

1982년 창립된 대불어 부산지구는 활발한 활동을 통해 어린이 법회 활성화를 주도해 왔다. 지난 80년대 어린이 법회를 봉행한 사찰은 60~70 곳으로, 한 사찰 당 평균 150여명의 어린이가 법당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어린이 법회는 전반적으로 2000년대 들어 시대적 변화에 적응을 못한 채 어린이 불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 가운데서도 명맥을 이어가며 열심히 활동한 대불어 부산지구는 사단법인 동련에 통합 운영되고 있었다. 효선 스님은 그동안 대불어 부산지구의 재건을 위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시대적 변화에 맞춘 불교 교육과 포교의 방법을 연구하고 발전 시켜오면서 부산지구의 독립을 준비해 온 것이다.

"현재 대불어 교사대학에 신청한 선생님들의 수만 해도 정원 80명이 넘었습니다. 그 교사들은 현재 어디서 활동하고 있을까요? 사찰은 교사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교사들은 마땅히 봉사 할 곳을 못 찾아 고심 중입니다. 앞으로 대불어 부산지구가 구심점이 되어 이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어린이 포교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의미로 들린다. 침체됐던 어린이 포교 현장에서 쏟아 붓듯 인재를 동원하여 부처님의 어린이들을 일궈내겠다는 힘찬 발걸음이다.

"부산지구 인적 인프라 조직도 새롭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산지구 사무직 간사와 사무국장님, 어린이 법회를 지도하는 선생님들 위주로 사무원들을 구성할 것입니다. 활발했던 부산지구의 자원봉사자들을 더욱 늘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포교에 관련된 주요 행사에서 몸으로 함께 뛰는 인적 자원들을 통해 포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효선 스님은 직접 사찰을 방문하여 돕는 '찾아가는 법당' 봉사팀 및 교사, 그리고 임원단들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 보다 인재의 소중함을 알고 사람을 통해 사람을 키우는 주춧돌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효선 스님. 젊은 패기만큼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의 중요성을 익히겠다는 의지를 스님은 재차 강조했다. 대불어 부산지구 사무실은 부산불교회관 5층에 준비 중이며 1월 말에는 활동을 재기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조계종 법률전문위원 임명



정석원 변호사

"불교와 조계종단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월 3일 조계종(총무원장 지관) 법률전문위원으로 임명된 정석원(36, 법명 수월 · 사진) 변호사가 9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정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해 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정 변호사는 군대에 입대하기 전 <오래전 미래>와 불서 등을 읽으며 불교와 인연을 맺었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서울 신림동 연화정사 법회에 참석하며 불심을 키워왔다. 또한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다르마법우회 예불총무를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여러 철학서적을 읽으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었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이러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조계종 법률전문위원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준비해왔다는 정 변호사는 "막상 와서 보니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 막막하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업무파악을 마치고,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여수령 기자**

맹란자씨 남촌문학상 수상자에 선정



불자 수필가 맹란자씨(사진)가 <계간문예>에서 주관하는 제3회 남촌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맹씨에게 수상의 영예를 안겨준 작품은 수필집 <라데팡스의 불빛>이며 상금은 500만원이다. 시상식은 1월 24일 오후 5시 서울 연건동 함춘회관에서 열린다.

맹씨는 1996년 수필전문지 <에세이문학>으로 등단, 제19회 현대수필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저서로는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기억하라>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 <사유의 뜰> <탱고, 그 관능의 쓸쓸함에 대하여> 등이 있다.

한편 남촌문학상은 前 GS건설 회장 남촌 허준구씨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매년 소설과 수필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의 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강진 기자**

"조계종 중신회 발전금 1억 쾌척"



백창기 명예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백창기 명예회장(사진)이 1월 3일 신도회 발전기금으로 1억을 쾌척했다. 백 명예회장은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신도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기쁜 마음이다"면서 "중앙신도회 발전을 위해서 언제라도 마음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 명예회장이 전달한 발전기금은 서울 수송동에 건립하고 있는 전법회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전법회관은 현재 기초 공사를 끝낸 상태로 올 6월말 경 완공될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백양사 자비의 성금 전달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성오)가 1월 7일 장성 북하면사무소(면장 이용원)에 자비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성금은 백양사 사부대중이 농촌의 고령화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자 법회를 통해 모금한 것이다. 성오 스님은 "백양사는 장성지역민과 함께 공존하므로, 백양사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민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백양사는 향후 별도의 자원봉사모임을 결성, 반찬나누기, 자비의 도시락 나누기 등 지역 내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펼칠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96주년 법요식 성료



천태종은 1월 6일 총본산 구인사 설법보전 4층에서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96주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도용 종정 스님을 비롯해 운덕 대종사, 정산 스님, 종의회 의장 도정 스님 등 2만여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대조사님의 애국불교 · 생활불교 · 대중불교의 가르침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수행하자"고 당부했다.

조동종 신년하례법회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1월 7일 서울 상계동 도선사에서 종회의원을 비롯한 스님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덕우 스님은 "올 한해 종단의 숙원인 원사 건립의 대작불사를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종도스님들이 다시 한 번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붕선교종 신년하례 및 시무식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지공)은 1월 10일 인천 호불사에서 신년하례 및 시무식을 봉행했다. 법회에는 종정 붕해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지공 스님, 종회의장 화엄 스님 등 종단 임원 및 종도 200여 명이 참석했다. 붕해 스님은 신년교시를 통해 "종단에 대한 주인의식을 기본으로 확고한 종도교육을 통해 수행자의 굳건한 자세를 견지하라"고 당부했다.

흑표부대 흑표사 새해 첫 법회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1월 6일 13공수여단 흑표부대(여단장 준장 이정하) 흑표사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불자의 마음가짐'을 주제로 법문했다. 대성사 신도회는 장병들에게 피자를 보시하고 위문했다. 흑표사는 매주 법회를 봉행하고 성묵 스님과 문영기 참모장, 김남학 신도회장 등이 장병들의 점심을 손수 준비하여 제공하며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다.

아주 특별한 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의과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제32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개강안내 1월 18일 10:00~17:00까지

교육과정 매주 금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농협408-01-086128
(예금주 : 임병국)

▶특전 : 전생상담사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수료후 미국최면의과대학 편입학 가능

미국 최면의과대학 객원교수 임재형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치유상담학 박사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국제 공인 최면치료의사(IM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 각종 통증해소,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우울증상,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알레르지,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빙의장애 무료상담

한국최면과학원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301
(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
전화 : 042)255-0734~5

항도반의 기

“부처님의 가르침 지도자 생활 의지”

[동국대 농구부 감독 **이호근**]



지난해 농구대잔치 준우승 신화
모교서 지도자 생활 마치고 싶어

지난해 12월 7일 열린 농구대잔치 결승전. 동국대가 일으킨 ‘돌풍’은 중앙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호근(44) 동국대 감독은 코트에서 내내 소리 지르다 결국 목이 쉬었다. 경기 종료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는 선수들을 독려하며 힘이 돼주기 위해서다. 결과는 26점차 패배로 끝이 났다. 이 감독은 코트에서 나오는 선수들을 얼싸 안으며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 한마디를 짧게 던졌다. “고생들 했어, 잉~”.

그래도 동국대 농구부는 이 대회에서 큰 성적을 거뒀다. 1983년 농구대잔치가 시작된 이래 25년간 단 한차례도 4강에 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대회의 준우승은 동국대에게 큰 괘거였다. 당시 이호근 동국대 감독은 “여름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등 힘든 훈련을 견뎌내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준우승 소감을 피력했다.

2006년 중반부터 모교인 동국대 코치를 맡고 있다가 지난해 6월부터 사령탑이 된 이호근 감독. 취임이후 조직력이 좋아지면서 팀 성적도 덩달아 올랐다. 지난해 종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뒤 전국체전과 2차 대학연맹전에서 각각 3위에 올랐다. 2005-2006 시즌 전자랜드 감독 대행시절 팀이 12연패의 늪에 빠지는 바닥을 경험한 터라 이 감독이 모교에서 펼치는 ‘제2의 성공’은 더욱 값지고 빛이 났다.

이 감독은 “여자와 남자 프로감독을 다 해봤던 경험이 현재 대학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전술적인 부분이나 수비를 지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동국대에서 나가라고 하지만 않는다면 모교에서 지도자 생활을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낙안중학교 3학년때 키가 크다는 이유(당시 187㎝)로 농구공을 처음 잡기 시작한 이 감독은 1980년대 중반 잘나가던 실업팀 현대에서 센터로서 명성을 날렸다. 1990년부터 3년동안은 국가대표로 뛰기도 했다. 이후 95년 유니폼을 벗은 뒤 현대전자 영업과장으로 잠시 넥타이를 매기도 했다. 일 잘한다는 명성도 자자했지만 결국 마음속의 고향인 농구 코트가 그리워 다시 돌아와 용인대에서 지도자의 길을 시작했다. 이후 신세계 여자 농구단 코치로 옮겨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이문규 감독과 호흡을 마치며 4회 우승 신화를 일궈내기도 했다. 하지만 남자 프로농구 전자랜드 코치로 둥지를 옮긴 뒤 쓰라림을 맛봤다.

“농구 인생의 최대 위기였지요. 항상 이기는 것만 경험하고 살아 왔는데 연패를 당하니 눈 앞이 깜깜하더라구요. 회복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당시 실패에서 배운 경험들은 저에게 큰 자산이 됐습니다. 이제는 져도 왠만해서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는 오뚜기 정신이 몸에 배었거든요.”

이 감독은 이 모두가 항상 자신을 위해 고향인 순천 송광사에 다니며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의 불심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낙안읍성 근처가 고향인 이 감독은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 때문에 절에 자주 다녔다. 선수 시절에도 항상 염주를 차고 다녔으며, 흑석동 도림사를 오랫동안 다니며 신행 생활을 했다.

“운동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저에게 큰 의지가 됐습니다. 선수시절 제가 코트에서 어떤 위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정 변화가 없이 의연했던 것이 성격 탓도 있겠지만 불교의 중도적 가르침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지요.”

이 감독은 이런 불교의 힘을 알기에 선수들과 함께 시간 날 때마다 학교 내에 있는 정각원을 자주 찾아 법문도 듣고 명상도 한다. 특히 시합이 있기 전에는 꼭 찾아가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선수들의 마음을 다 잡는다.

모교에서 승승장구하는 이 감독에겐 또 하나의 배부른 즐거움이 있다. 자녀 모두가 농구 유망주로 활약하고 있다. 아들 이동엽(용산중3)군은 농구 명문 용산고 주장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팀을 소년체전 정상에 올려놓고 최우수 선수로 뽑히기도 했다. 농구공을 잡은 지 1년도 채 안된 딸 민지(선일여중1)양은 지난 8월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총재배에서 선일초등학교를 1위로 이끌며 역시 최우수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아들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딸아이는 반대를 했는데, 자기가 좋다니 못 말리겠더라구요. 우리 집은 아이들이 합숙 훈련을 해서 저까지 시합이 있으면 거의 네 집 살림을 합니다(웃음).” 그래서 최근에 이 감독은 거의 혼자 있는 아내를 위해 동국대 근처인 장충동으로 집을 옮겼다.

“1985년 당시 제가 2학년이었을 때 동국대가 우승을 한 번 해보고는 아직 정상을 밟은 적이 없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해서 올해는 꼭 후배들과 함께 대학농구의 정상에 서보고 싶습니다.”

글=김주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노년층 경제적 부담 줄이고 양육지원 늘려



올해 바뀌는 복지제도

해가 넘어가면 바뀌는 제도가 많다. 복지제도도 마찬가지다. 복지제도의 목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복지계의 화두는 단연 저출산고령화다. 지난해부터 공청회를 여는 등 보건복지부에서도 상황을 개선해 나가고자 제도들을 준비하고 있다. '젊고 활력있는 미래사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응전략도 여러 가지 내놓고 있다. 새해 바뀌거나 확대되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복지제도를 소개한다.



재산·소득 하위 60% 노인 대상 노령연금 시행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전국 65개 지역으로 확대

■기초노령연금 시행=기초노령연금제도란 전체 노인의 60%, 즉 300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대우하겠다는 제도다. 매월 2만~8만4000원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에 해당된다.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재산이나 소득을 가지고 판단한다. 65세 이상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60%를 선정하는데, 이 기준은 월소득인정액이 독거노인의 경우 월 40만원 이하, 노인부부의 경우 월 64만원이하일 경우다.

올해 2월부터는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올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2009년에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전체 노인의 70%로 확대되고 그에 따라 약 62만명이 추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들고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원에서 하면 된다. 위임장이 있다면 가족의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올해 7월부터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의 경제적·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을 위한 제도지만 전체 국민 삶에 영향을 주는 제도다.

한성대 사회복지학과 황진수 교수는 "노인인구의 8.3%인 40만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나 현재 시설은 미인가시설까지 포함해 약 3만3000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어 빨리 시행돼야 할 제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된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월 2500원 내외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수혜자의 경우 시설서비스는 20%, 재가서비스는 15%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확대=보건복지부 사업이 아닌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야근·질병·출장 등으로 각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의 안전한 양육은 물론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됐다. 이 제도는 전국 38개 지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이돌보미 사업 대상은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이며 ▲보육시설·학교 등 등하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러나 가사활동까지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인근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해 일정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 가족은 시간당 1000원, 일반 가족은 5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을 원한다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02-3141-5477)에 문의, 가장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김강진 기자

tip 복지부 콜센터 번호는 '129'

더 많은 저출산고령화 정책·정보를 원하거나 이밖의 다른 복지 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를 해보자. 어떤 보건복지 관련 정책도 설명을 해준다. 국번없이 129만 누르면 된다. 홈페이지(www.129.go.kr)에서도 자세한 정보는 물론,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월요일 보훈병원, 화요일 승가원장애아동시설, 목요일 묘희원, 수·금·토요일 동대문시립노인복지관. 봉사자 장숙자(64)씨의 봉사 시간표다. 약제실 봉사부터 목욕·청소 등 전천후다. 무려 주 6일. 시간표를 보는 순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가시질 않는다. 듣는 사람마다 깜짝 놀란다. 그런 사람도 있냐며. 놀라는 사람들에게 장씨는 말한다. 봉사는 삶을 지켜주는 원동력이라고.

"봉사는 내 삶의 원동력"

⑨ 봉사자 장숙자씨



남편 뇌경색 투병중에도 봉사 활동
"週 6일 봉사,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

봉사활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도 찾기 어렵다. 굳이 따져보니 약 30년간 살았던 충남 논산에서 30대 중반부터 마을 부녀회장을 맡은 것이 시초다.

독거어르신들에게 김치를 담가드리고 빨래 등 집안일을 해드리는 것이 그저 기뻤다는 장씨. 그것이 봉사의 시작인지도 모르고 그냥 '돕고 싶다'는 마음 뿐이었단다.

그러다 46세에 장애인시설 성모마을에 우연히 다니기 시작했다. 5년 이상 가족들도 모르게 혼자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그런 그의 마음 속에 드는 생각 하나.

"수녀님들과 함께 일을 하며 '아, 우리 불교에는 왜 이런 시설이 없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아쉬웠죠."

그래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생기고, 봉사교육 과정이 개설됐을 때 그렇게 반가웠는지도 모르겠다. 당장 봉사자로 등록하고 자제정사(현 묘희원)로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다 2005년부터 승가원장애아동시설에도 나가게 됐다. 그렇게 하나하나 늘어난 봉사처를 모두 끌어안다 보니 '6일 봉사자'가 된 것이다.

장씨의 법명은 '월명정(月明淨)'이다. 달처럼 밝게, 맑게 살라는 의미다. 의미대로 살아가려하지만 가끔은 현실적 어려움에 부닥친다. 바로 남편 때문이다. 장씨의 남편은 2000년 말, 후두암 판정을 받고 이듬해 수술을 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지만 합병증이 뒤따랐다. 걷지도 못할 정도로 상황은 악화됐다. 특히 2005년 5월을, 장씨는 잊지 못한다. 뇌경색으로 혼수상태까지 올 정도로 남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씨는 흔들렸다. 그래도 봉사를 놓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처럼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을 더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시설 할머니들이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요. 그 덕을 많이 봤죠."

덕을 봤다는 말은 남편의 건강을 뜻한다. 운신도 못하던 남편이 얼마 전부터는 조금씩 걸어다닐 수 있게 됐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기적이 아니면 무얼까.

장씨 자신도 몸이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양쪽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 봉사를 마치면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는다. 인연있는 스님들은 그에게 관절에 좋다는 약을 손수 해서 보내기도 한다. 제발 몸을 아끼라는 말도 함께. 장씨는 "날마다 일어나면 '누구 얼굴 봐야지'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고 그저 웃을 뿐이다.

앞으로도 장씨는 6일 봉사를 놓지 않을 생각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느끼는 감동과 기쁨을 함께하기를 서원하면서.

"젊었을 때 봉사할 걸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해요. 참 행복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봉사현장에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글·사진=김강진 기자

불교여성개발원 교화팀과 인연 맺은
최고수 3명 무기징역 감형

"무기수로 감형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시 사는 마음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으로 선정된 가운데 지난해 말, 노무현 대통령은 마지막 특별사면을 통해 형 확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사형수를 대상으로 죄질·범정·수형태도 등을 검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그러던 중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에도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 교화팀이 활동하는 서울구치소에서 3명의 최고수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는데 이 중 2명이 이들과 인연맺은 불자들이어서다.

불교여성개발원 교도소교화팀은 2000년 개원 직후부터 독서·명상·음악·미술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 재소자 교화활동에 앞장서 왔다. 특히 2001년부터는 사형을 앞둔 최고수들을 대상으로 '최고수를 위한 1000일 기도'를 시작했다. 이번 특별 사면은 2000일 기도 회향일인 1월 27일을 앞에 두고 일어난 일이라 더욱 뜻 깊다.

교도소교화팀은 "2004년 1000일 기도 회향 때도 1명의 최고수가 무기수로 감형받았는데 다시 기쁜 소식을 듣게 돼 감사할 뿐"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불교여성개발원 교도소교화팀은 1월 28일 서울구치소에서 '최고수를 위한 2000일 기도 회향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02)722-2101

김강진 기자

탄허기념 박물관 기공식

탄허대종사의 유지를 받든 탄허기념박물관 기공식에 모십니다.
나라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고자 발원하셨던 탄허대종사의 유지를 계승하여
"탄허기념 박물관 기공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08년 1월 25일(금) 11:00~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85번지
주 최 : 탄허불교문화재단, 오대산 월정사, 금강선원
후 원 : 불교 TV, 불교방송,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문 의 : 02)445-8484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입 종 안 내

◇입종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지방종무원 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 증빙서류(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외부)

문의 및 접수처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소: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총무원 (051)527-5431~2 팩스 (051)527-7733
· 경남종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 중부종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 제주종무원 (064)724-0318~9 휴대폰 019-522-0318

시공을 초월해 전해지는 고요한 설법회

국립중앙박물관 '부석사 괘불' 특별전

젊은 스님이 당나라 등주의 부잣집 앞을 지날 때다. 뜰 앞에 기괴하게 생긴 커다란 태호석이 놓여 있고 학들이 노닐며 강아지와 아이가 뛰노는 다복한 그 집에서 갑자기 한 여인이 나오더니 스님에게 말을 건넨다. "대사를 만난 후 제게 집착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타국에서 난데없이 고백을 받은 젊은 스님은 의상(義湘: 625~702)이었고, 수줍게 말을 건넨 여인은 선묘(善妙)였다.

의상이 선묘를 만난 것은 원효와 헤어진 다음이다. 원래 의상은 당나라로 불교를 배우기 위해 원효와 함께 가던 길이었지만 토굴에서 보낸 하룻밤으로 서로의 길은 달라졌다. 원효는 큰 깨달음을 얻어 유학을 포기했고 의상은 홀로 당나라로 갔다.

의상은 지엄에게 <화엄경>을 배우고 '삼장의 바다에 노닌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학문을 이뤘다. 선묘의 집에 들러 그간 뒷바라지를 해줬던 것에 감사를 표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뒤늦게 의상의 귀국사실을 알게 된 선묘는 공양할 옷가지를 챙겨 항구로 갔지만 이미 의상을 태운 배는 떠나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내 본래의 참 뜻은 법사를 공양함에 있습니다. 원컨대 이 옷을 담은 함이 저 배에 날아 들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선묘는 파도 위로 자신이 갖고 있던 함을 던졌다. 때마침 불어온 거센 질풍에 함은 새털 같이 날라 배 위에 떨어졌다. 선묘는 다시 맹세했다. "이 몸이 큰 용으로 변해 저 배의 선체와 노를 지키는 날개가 되어 대사님이 무사히 본국에 돌아가 법을 전할 수 있게 하리라." 맹세를 하자마자 그녀는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녀의 원력처럼 그녀는 용이 돼 배를 안전하게 신라까지 인도했다.

의상이 산천을 두루 돌며 법을 펼칠 기운 좋은 곳을 찾았지만 이미 삿된 무리들이 차지해 포기하려던 찰나, 의상을 맴돌며 보호하던 선묘룡이 허공에서 대변신을 일으켜 사방 1리쯤 되는 큰 바위로 변해 공중을 맴돌며 떨어질 듯 말 듯 사찰을 덮치려 했다. 공중에 뜬 커다란 바위에 놀란 삿된 무리들은 혼비백산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이것이 의상과 선묘의 전설을 담은 부석사 창건설화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중인 부석사 괘불(1684년 작)

"현존하는 괘불 중 가장 복잡한 구성
'부석사 괘불'로 국립중앙박물관서 전시"

1684년 조성된 높이 9.2m 너비 5.7m의 부석사 괘불은 펼쳐 세우면 부석사 안뜰을 가릴 만큼 크다. 또 현존하는 괘불 중에 가장 복잡한 구성을 보여준다. 17세기 조성된 대부분 괘불의 테마처럼 부석사 괘불도 '영산회상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영산회상도'는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불과 설법회에 참석한 군중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그런데 부석사 괘불은 '영산회상도' 위쪽에 다시 세부처의 설법회 장면을 추가했다. 각 부처를 따라 설법을 듣는 보살과 천인, 팔부중, 역사, 신들을 합하면 대략 70여명이 등장한다. 이렇게 많은 인물이 그려진 복잡한 괘불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을까?

전문가들은 이것을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의 삼세불과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불이 융합된 구조라고 설명한다. 하단 '영산회상도'는 사바세계의 석가모니부처(현재)를 주인공으로 상단의 약사불(과거), 아미타불(미래)과 함께 삼세불회도를 이룬다. 또 석가모니불(화신) 바로 위편에 그려진 비로자나불(법신)은 삼신불회도를 뜻한다. 실제로 1745년에 새로 조성된 부석사 괘불에는 석가모니불 대좌 앞에 노사나불 입상(보신)을 추가했다.

부석사 괘불에는 모든 시공간에 가득하다고 신앙됐던 부처가 상징적으로 도해됐다. 괘불에 그려진 많은 부처를 포개고 포개어 하나의 부처 안에 담는 불교의 진리에 대한 깊은 사고가 담겨 있다. 겉에 보이는 가장 바깥 인형이 석가모니불이라면 석가모니불 위에 위치한 비로자나불은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가장 중심부의 인형이다. 각각의 부처가 실상은 하나인 것은 의상이 체득한 <화엄경> 가르침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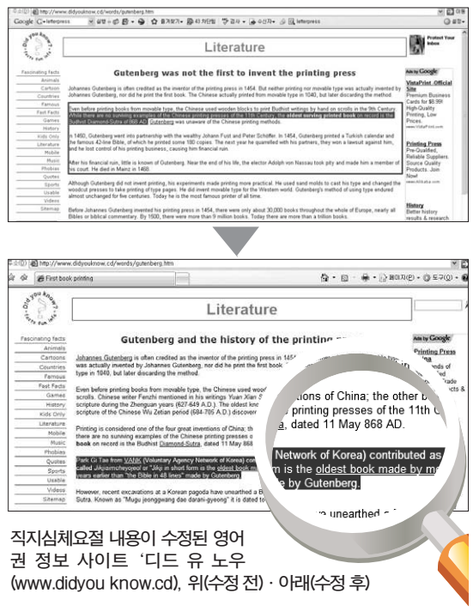
괘불은 부석사를 떠났지만 부처는 움직이지 않았다. 괘불에 빼곡히 그려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모임은 오늘도 고요한 설법회를 이어가며,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않고 본래 고요하다(諸法不動本來寂)'는 가르침을 전한다. <참고: 부석사 괘불>

한편 '부석사 괘불'을 테마로 한 이번 전시회는 국립중앙박물관 미술관 2층 불교회화실에서 4월 27일까지 열린다. (02)2077-9000 / 매주 월요일 휴관

조동섭 기자

인터넷으로 지킨 最古 금속활자본 자존심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직지심체요절 세계에 바로 알려



직지심체요절 내용이 수정된 영어권 정보 사이트 '디드 유 노우'(www.didyou know.cd), 위(수정 전) · 아래(수정 후)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는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에 따라붙는 수식어다. 하지만 그동안 세계인들은 독일 구텐베르크가 만든 <42행 성서>만 알뿐 직지는 알지 못했다. 미국, 유럽 등 각나라에서는 교과서에서조차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간 정부도 어쩌지 못했던 직지를 바로 알리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데 젊은이들이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동해 표기, 동북아 공정 등 다른 국가와 민감했던 사안에 한민족 자존심을 지켜온 반크는 직지 홍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청주고인쇄박물관과 협력하기 시작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는 1999년 개인 펜팔 사이트에서 출발해 범네티즌 단체로 성장했다. 현재 영어 · 일어는 물론 러시아어 ·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로 동해 및 독도 표기, 고구려 역사 알리기를 통해 한국의 자존심을 살리고 있다.

직지 홍보를 위해 반크 회원들은 우선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홍보사이트를 구축했다. 영어판 홍보책자와 엽서를 만들어 세계 각국 도서관, 출판사, 학교, 교육기관에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정보가 잘못 기재된 사이트에 일일이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결국 반크의 끈질긴 홍보에 사이트 담당자들은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현재 수정된 내용이 실린 사이트는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en.wikipedia.org)'와 '히스토리 포 키드(www.historyforkids.org)', '디드 유 노우(www.didyouknow.cd)' 등이다. 현재 위키피디아에는 "유네스코가 직지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내용이 삽입됐고, '히스토리 포 키드'에는 "한국 목판 인쇄물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나와 있다. '디드 유 노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랜된 책인 직지는 금속활자로 만들어져 있고, 독일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섰다"고 수정됐다.

반크 박기태 단장은 "작년은 직지 세계화 운동에 기본을 마련한 해였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직지 세계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www.prkorea.com)

조동섭 기자

우리 학회는 | 〈2〉인도철학회 www.ksip.org

인도 사상의 대중화를 이끄는 학회

인도철학회(학회장 법산)는 인도학, 인도철학, 불교학을 중심으로 인도 사상과 문화 전반을 연구한다. 1988년 인도학인도철학회가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 24회에 걸쳐 학술발표대회를 열었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인도철학>지는 23권을 앞두고 있는 중견 학회다. 1992년 인도철학회로 학회명 개명과 더불어 학회지도 <인도철학>으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렀다.

학회 회원수는 300여명이다. 이 중 교수는 50명, 박사급 이상 연구원 10여명 박사과정 100여명, 석사과정 전공자는 50여명에 이른다.

회원은 인도철학, 불교학, 인도학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한 학사 이상 및 동등한 자격자면 가능하다. 정회원은 연회비 3만원, 영구회원은 50만원 회비를 부담한다.



지난 2003년 열린 제16회 인도철학회 학술발표회 모습 좌로부터 이거룡 교수(동국대),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인경 스님(명상치료학회).

학진등재후보지로 매년 2월과 8월 총 2회 발간되는 <인도철학>지는 학술연구 발전에 기여할 논문 외에 서평, 기타 학계 연구작업 기획물에도 문호를 개방한다.

매년 5월과 12월 첫째 금요일 개최되는 학술대회는 인도철학의 대중화를 위한 창구다. 2004년 곰브리치 교수(영국 옥스퍼드대) 초청 강연은 일반인들의 불교학 관심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추계 학술대회에서 인도철학과 대중문화를 주제로 영화, 만화 속에 담긴 인도철학 사상을 찾아 학계의 주목을 받은데 이어, 올해 5월에는 학술진흥재단 지원으로 부산 동아대에서 '인도철학과 정치이념'(가제)을 갖고 인문학의 유행을 시도하게 된다.

조동섭 기자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형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8년 1월 2일 ~
□ 입 학 식 : 2008년 3월 3일(월) 오후 2시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外

불교예술대학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혜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불교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배움에 힘쓰고자 하는 불자들의 좋은 교육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범패 및 작법무,
사물다루는 법 등 전반교육
□ 원서교부 : 2008년 1월 2일 ~
□ 입 학 식 : 2008년 3월 3일(월) 오후 2시
(정규수업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6시)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불교 용어' 서구적 재해석 움직임

최근 수많은 서구인들은 참선과 가까워지면서 그 의미와 목적을 재설정하는바, 다른 한편에선 참선의 방편과 다양한 응용방식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참선에서 비롯된 미묘한 체험들을 더 이상 전통적인 제한된 용어 속에 틀어넣지 않으려 한다.

즉, 참선에 관한 동양적인 고정관념과 속성을 털어내고 서구적으로 재해석을 하겠다는 당찬 자기주장이다. 그들은 참선의 수행과정에 생겨나는 정신적, 육체적인 변화들을 적절히 설명할 새로운 단어들을 모색한다. 따라서 이는 공(空)을 '비었음(vacancy)'으로 하느냐, 아니면 '비워(emptiness)'로 하느냐 하는 등의 난해한 낱말풀이를 뛰어넘어 불교철학 전체에 대한 재해석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영국 웨일즈에서 22년 간 선원을 운영해온 배즈러대커 선사의 경우, 참선을 '한 점으로 모아짐을 향하는 길(a path toward one-pointedness)'이란 해석을 내놨다. "내 참선체험을 돌아보건대, 예를 들어 영어로 '집중(concentration)'과 '한 점으로 모아짐'은 적어도 불교참선 용어 상 서로 뜻이 전혀 다르거나 상당히 어긋나곤 한다. 오래 동안 내가 선배선사들에게서 듣고 배워온 '폭(breadth)'이라는 영어식 표현은 '한 점으로 모아짐'이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초점(focus)'은 오히려 '집중된 상태(concentrated status)'로 묘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선수행에 몰입할수록 자아라는 폭, 그리고 참선의 오브제라 할 초점, 이 두 가지가 일체감을 이루어 '하나의 전체(one wholeness)'를 이룬다. 수행자는 부지불식간에 몽환에 빠져들거나 또는 지나치게 경직되어 자아, 즉 폭의 감각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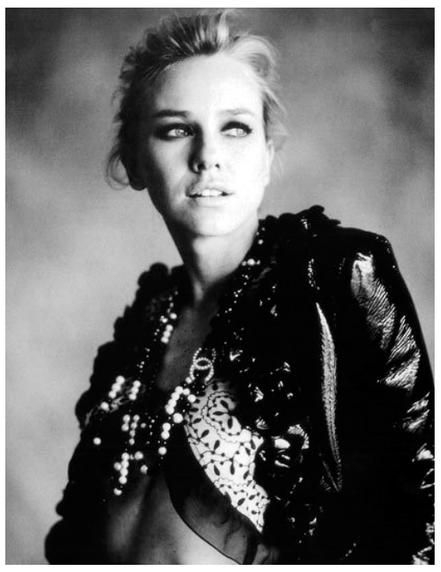
만일 그리 된 경우에는 서서히 자신의 육신으로 돌아와 폭을 되찾은 후, 다시금 초점을 되찾아가야 한다. 이렇듯 폭과 초점이 서로 가까워지면, 수행자는 점차 받아들임과 깨달음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더욱 심오한 집중을 하면 이윽고 뭔가 떠오름(arising)과 트임(openness)을 체험한다. 마침내 찰나의 소중한 깊이가 살아나 수행자는 흩어짐이 없는 명철한 지각과 직관을 체득하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이란 가없이 드넓기도 하고 한없이 한 점으로 모아지기도 한다."

편역:성휴 스님

좌절 겪는 여인 役 열연 후 불제자 길로

원드스★타 불심도스★타

영화배우 나오미 왓츠❷



기독교적 성장교육배경의 서구인들이 불교와 만나는 계기는 동양인과 퍽 다른바, 특히 영상매체의 기여도가 크다. 얼마 전 숭산 스님의 열반 3주기행사에 참석하러 라스베가스에서 서울까지 찾아온 캐런 레닉이란 미국 보살님을 우연히 만나 불문에 들어선 연유를 묻자 영화 '스타워즈'를 보고서 초발심이 일었다고 했다. 전에 우리 불경스터디그룹의 외국학생들의 대답도 비슷했다.

이는 불교관련영화의 배우나 스태프들도 마찬가지다. 키아누 리브스는 '리틀 붓다', 브래드 피트는 '티베트에서 칠년'에서 열연하다 불교에 심취했으며, 스콜세지와 베르톨루치감독 등도 불교작품에 몰두하다 불심에 젖어들었다. 특출한 감수성과 예술 인자를 지닌 그들은 작품의 철학적 요소에 몰입하여 일종의 삼매경에 이르는 터라, 본인 자신을 작품 안의 정황이나 인물 속으로 옮겨 담는 감정이입이 쉬워진다.

즉, 실제 구도행각에 가까운 유사체험을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나오미는 중국 서남부 오지에서 영화 '허울 좋은 너울'을 찍던 중 불제자가 됐다. 그 사연을 알자면 약간의 줄거리가 필요하다.

1925년 런던, 화려한 사교계를 누비던 키티(나오미 왓츠)는 냉철한 성격의 세균학자 월터를 만나 어머니의 답답한 그늘에서 탈출하고자 그의 청혼을 수락한다. 연구 때문에 중국 상해로 간 그들은 성격, 취향의 심한 차이로 서로 겉돈다.

그녀는 월터와 멀어지던 중 한 외교관과 애욕에 빠진다. 아내의 불륜을 눈치 챈 월터는 콜레라가 퍼진 오지산골로 자원, 그녀의 배신에 보복하듯 함께 데려간다. 월터는 전염병으로 마구 쓰러지는 산골사람들의 치료에 매달리는 한편, 키티는 귀양살이 같은 나날을 보낸다.

배타적인 현지인들은 월터의 진심에 차츰 마음을 열고 그녀도 수녀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난생 처음 남을 위해 일한다. 이윽고 둘 사이에 참사랑이 피어나지만 또 다른 슬픔이 기다린다. 대개 이런 얘기다. 내일 모레 불혹의 나이를 앞둔 나오미는 키티를 통해 자신의 반생을 돌아봤으리라.

그녀는 철들 무렵 영국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 백화점 점원생활, 친구 니콜 키드먼의 출세에 따른 패배감, 일자리를 구하러 일본까지 가는 등 혼돈과 좌절 속을 헤맸다. 이래저래 우여곡절을 겪은 나오미와 극중의 키티 사이에는 쉽사리 감정전이가 이뤄졌을 것이다. 그게 구도행각의 유사체험인지, 어디선가 본 듯한 전생의 데자뷰인지 알 순 없지만.

성휴 스님

베를린 불교단체 이색 송년행사

지난 12월 20일 독일 베를린의 불교단체 중 하나인 부디스티쉐스 토르는 최초로 동지와 송년을 함께 기념하는 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2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이 행사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불교적 포용성의 측면에서 풀이한 것으로 남에게서 얻고 받은 바에 감사하고 서로 새해를 축하하며 선물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생강 빵과 과일음료가 마련된 조촐한 기념파티에서 동 협회 아모가라타 회장은 이번 이벤트가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례 동지 행사의 시발점이 되리라 말했다. 출처: TBMSG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12

아르헨티나, 군부독재시절 인권유린사범에 중형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1976년부터 8년간 군부독재 체제 하에서 반체제인사들에게 자행된 납치, 고문, 실종 등 이른바 '더러운 전쟁' 당시 인권유린사범에 대한 1980년 특별사면법을 무효화하고, 홀리오 시몬 등 전직 군과 경찰간부 전원에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지난 12월 19일 최종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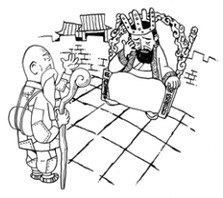
또한 지난해 10월 라 라플라타 소재 연방법원은 당시 군종신부인 독일계 크리스티안 폰 뵈르니히에 대한 살해 7건, 고문 31건, 유괴납치 34건의 중범죄혐의를 재심했다. 수많은 증인들은 그가 성직자 신분을 활용, 강제수용소 구금자들로부터 각종 정보를 실토하도록 강요했음을 반복 증언했다. 그에게 종신형이 선고되자 법원 밖에서는 '국가실종자위원회' 및 일반군중들의 일대 환호성이 터졌다.

1만에서 3만 명 사이로 추산되는 실종자들의 가족연대인 '5월의 광장 어머니회'의 사라레이는 "아직도 당시 극악범죄의 협력자들이 교단의 보호 하에 다수 숨어있으며, 이번 판결은 과거사 정리를 향한 첫걸음"이라 말했다.

과거 악몽에 따른 집단히스테리로 국제적 연구대상이 되기도 한 아르헨티나국민들은 지금도 상호불신 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는바, 2001년에 이어 2006년 두 차례 현지를 방문한 달라이 라마는 특정종교에 대한 환멸과 증오감을 지니지 않도록 당부한 한편, 인간사회는 정부나 종교계 등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민초에 의해 변화한다는 평소 소신을 밝히며 그들을 위로했다.

출처 : AP, BBC, 쥬어리스트, 트루스, 에스빠시오 종합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This place is where people stay for a short time and then go on

—이 곳은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곳입니다

A well-known guru came to the King's palace. The gate guards tried but failed to stop him as he made his way to the King sitting on the throne. "What do you want?" asked the King, soon recognizing the uninvited guest. "I need a place to sleep in this inn." replied the guru . "But this is not an inn," chuckled the King, "It is my palace." "Oh, really? May I ask who owned this palace before you?" "My father. He's gone." "And who owned it before him?" "My great grandfathers. They're gone, too." "And this place is where people stay for a short time and then go on—, did I hear you say that it is NOT an inn?"

어느 이름난 도사가 왕궁으로 갔다. 그는 정문 수비병들을 재끼고 무턱대고 옥좌에 앉은 왕에게 다가갔다. 그 불청객을 이내 알아본 왕이 물었다. "어인 일이시오?" 도사가 대답했다. "이 주막에서 하루 묵어갈까 하옵니다." 왕이 껄껄댔다. "현데 여긴 주막이 아니라내 궁전이요." "아, 그래요? 그럼 이 궁전은 폐하에 앞서 누구 것이었나 여쭤 봐도 되겠나이까?" "그야 물론 짐의 부왕이시지요. 이젠 떠나셨지만." "하면 그분보다 앞서서는 어느 분들의 것이었나이까?" "짐의 태상왕들이시오. 그분들 또한 떠나셨소만." "그렇다면 여기는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곳이옵니다. 그런대도 여기가 주막이 아니라 하시나이까?"

번안 : 성휴 스님 / 그림 : 이태수

세계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도통사 神 치유의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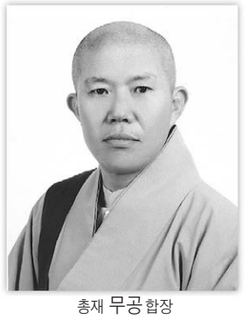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속전속결 고급해결반 모집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도통사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지도자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고 내공 외공을 소유하며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다.

● 神치유의통사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총재 무공 합장

지도자고급과정
● 입제일 :
2008년 1월 19일 (토요반)
▷14:00 - 18:00 (10회 과정)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전 수 비 200만원

조상 천도 해탈 비법	빙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조상영가 보는법	위빠사나 수행법
오-라(氣)감지 비법	숫자수리 비법
풍수 · 지리 비법	육효 신 비법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 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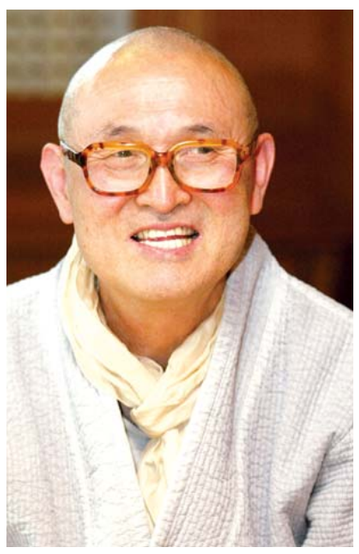
세계최고정신지도자협회 국제참선공지도자협회

● 전화 : 02)383-7057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4번)

선지식을 찾아서

정락

베푸는 마음에 '행복' 있지요



정락 스님 (용인 만의사 율주)

1월 6일 새해 첫 정기법회를 봉행하는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을 찾았다. 매달 첫 주 법회에서 법문하는 정락 스님을 뵙기 위해서다. 인터뷰를 극구 사양하던 스님은 법문을 듣고자 하는 기자의 청은 들어주셨다.

스님이 한마음선원에서 법문하기 시작한 것이 올해로 벌써 28년째다. 1981년 첫 법문을 시작했다. 올해 칠순을 맞은 스님의 한 달은 법문 일정으로 빼곡하다. 5일에도 동국대 정각원 토요법회에서 법문했다. 매달 음력 초하루 화성 용주사, 초삼일 천안 용화사와 안산 화림선원, 8일 반야사, 18일 청원사 등이 기본 일정이다. 법문 요청이 들어오면 어디든 간다. 건강할 때 힘닿는 데까지 좀 더 많은 이들에게 불법을 들려주는 것이 스님의 원이다.

새해 첫 법회에서 한 해를 살아가는 마음가짐과 어떻게 불자답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말씀한 정락 스님의 법문을 옮긴다.

글=강지연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 평소 살아나가면서 생각했던 것,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성취하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바른 생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도 고정관념에 얽매여 어렵게 생각합니다.

첫째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밖으로 행복을 찾아다니는게 잘못입니다. 원래 인간은 참 행복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행복을 질투한 악마가 행복을 훔쳐서 감췄어요. 한평생 사는 것이 행복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행복인가 해서 찾으면 불행을 가져와요. 행복을 밖에서 찾으면 못 찾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하거든요.

처음엔 사람이 극성스러워서 온 세상을 다 뒤져 행복을 찾아가더랍니다. 그래서 찾고 뺏고 숨기고 수십 번 했는데 매번 행복을 찾더란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악마가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뒤지면서 한 곳은 꼭 지나쳐가는 것을 발견한 것이지요. 거기가 바로 각자의 마음속입니다. 밖에서, 없는데서 찾으면 없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행복은 내 마음 속에 있으니 찾기 쉬워 보이지만 이 세상보다 내 마음 속이 더 복잡해서 헤매게 됩니다. 마음속에도 감추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마음에 감췄나 생각해보세요. 마음속도 지뢰밭 같아서 잘못 짚으면 불행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복'에 대한 생각을 살피세요. 맛있는 음식을 다 먹기 전에 누가 오면 '먹을 복'이 있다고 합니다. 살펴보면 먹을 사람, 음식은 정해져 있는데, 주면 얻어먹고, 안 주면 뺏어 먹어야 합니다. 많이 얻어먹으면 거지복이 많은 것이고, 많이 뺏어 먹으면 강도복이 많다고 저는 말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행복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주는 사람보고 '복 많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해요.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니 베풀면서 살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야 베풀면서 살 가능성이 생깁니다. 베풀어주는 마음이 복이에요. 이 베풀어주는 마음에 행복을 감춘 것입니다. 얻어먹는 게 복이라 생각하는 마음에서 찾으면 불행만 생겨요. 베풀어주는 마음에서 찾아야합니다.

베푼다는 것도 <금강경>에서 말하듯 베풀고도 교만하지 않으며 배려해서 줬다는 생각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받는 사람도 빚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베풀어도 상대방을 빚쟁이로 만들어서는 안돼요. 내생에 갚느라 고통 받게 하면 나쁜 일이지요. 그래서 무주상보시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순간 마음 자체를 바꿔야합니다. 무주상보시를 해야 더 큰 복이 온다는 걸 알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런다더라' 하면 소용없어요. '베푼다'를 금년 한 해 마음에 두고 실천하세요. '베푸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찾아야 행복합니다.

생일이 뭔지 아세요? '태어난 날'이라고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낳아주신 날'이라고 대답해야죠. 같은 말이지만 어머니가 죽음을 무릅쓰고 고통 속에서 나를 낳아주신 날 아닙니까. 되레 어머니께 생일날 선물 사드려야 해요. 그런데 도리어 불효를 하지요. 생일선물 사내라, 생일상 차려라,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 내 생일이라고 부모한테 받을 생각만 하지 어머니께 해드릴 생각은 안 해요.

자기 생일날 어머니에게 미역국만 끓여드려도 큰 일 한 겁니다. 원래 자기 생일날 낳아주신 어머니 은혜를 갚기 위해 미역국을 끓여 드리는 것이에요. 날 낳아주실 때는 아기라서 못 끓여드렸으니까 말입니다. 생일날 미역국은 어머니가 드시는 것이 옳습니다. 생일이 될 때까지 생일선물 사드릴 돈을 매일 매일 저금하세요. 새벽에 일어나 저금통에 돈을 한 푼 넣으면서 "낳아주신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보살행을 하겠습니다"하고 감사와 자기각오를 빌면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매일 매일 효도하는 겁니다. 매일 100원씩 모으면 3만6500원, 500원씩 모으면 18만2500원, 1000원씩 모으면 36만5000원이 모입니다. 이렇게 모아서 선물 사드리고 남으면 부처님오신날에 부모님을 위해 등 하나 달아드리세요. 평생 가족들 등만 달았지 당신 위해서 등 하나 달아보셨겠어요? 돌아가시면 축원문에서도 빼버리는데…. 자기 생일날 효도하기 위해, 매일 효도하는 마음으로 실천하세요. 매일 그 정도 정진력 가지고 실천하면 생활에서도 성공합니다. 실천력과 지속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마음의 깊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성공해요, 그런 정진력이면.

어떻게 무슨 생각하며 살아야할지 불자라면 세속과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중국 초나라의 한 임금이 사냥을 가면 호화스럽게 금화살을 쏘는 거예요. 사냥이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빗나가서 땅이나 나무에 박힌 화살을 찾아 가졌습니다. 하루는 신하들이 어두워지도록 화살을 회수하는데 임금이 내일 와서 찾으라고 하니 그럼 늦는다고 신하들은 굳이 화살을 찾았습니다. 그 임금이 말하길 "초나라 임금이 잃어버린 것을 초나라 백성이 주워 가는데 뭐가 아깝냐"고 했어요. 이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공자의 제자가 그 소문을 공자에게 전하니 공자가 말하길 그 왕은 천하통일 할 그릇이 아니라 그냥 초나라 왕 정도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잃어버린 것, 사람이 주웠으면 되지"하고 말해야 천하통일할 인물이라는 것이죠.

노자가 그 얘기를 다시 듣고, 공자가 사람들 다 망친다면서 "꼭 사람이 주워가야 할 필요가 있나 동물이 주워도 될 것을, 그저 사람 욕심 많은 것만 말한 것"이라 비판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반야심경>에 '색불이공'이 나옵니다. 그러면 금화살이 공입니다. 주울 것도, 욕심낼 것도 없어요. 금에 대한 집착 욕심이 다 깔려 있는 말입니다. 노자도 다 금으로 보고 한 말이에요. '금즉시공'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화살 하나도 부처님 경지에 오르니까 다르잖아요. 그런 경지로 자기의 마음을 바꿔가야 합니다.

'천지현격(天地懸隔)'이라 그 마음의 차이가 시작될 때는 별 차이 없지만 나중엔 하늘땅만큼 차이가 벌어집니다.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문제없을 일들이 괘씸하고 미운 생각을 가지니까 힘들게 살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으로 행과 불행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새해 내 삶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 당장 마음을 내세요. 얻어먹지 말고 베푸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생생활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그 반대를 들여다보면 다른 세상이 있어요. 중생심 속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 반대편에서 찾아야 행복이 있는 겁니다.



'받는 것' 보다 '주는 것'이 더 큰 행복
'무주상보시' 참 의미 깨닫고 실천해야
'중생심' 반대편에서 행복 찾는 한해되길…



한마음선원 신도회 임원들이 법회 전 정락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덕담을 들었다.

쌍 화 차

피로회복 감기예방에 좋은 쌍화차를 엄선된 약초로 정성들여 끓여 여러 불자님 앞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일물산에서는 일산 수연제, 인사동 모란, 여의나루 하나찻집 등 전통찻집과 각지에 계신 일반 고객들께도 좋은 반응을 얻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저 알리오니 많이 애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팩 ➡ 35,000원 60팩 ➡ 60,000원 [배송료 포함]

❖ 氣를 바로 알면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십수년전 부터 인체 · 나무 · 동물에 어떤 에너지를 접촉했을때 그 변화하는 기운을 시각 촉각 등을 통해서 느끼고 알게 되는 능력을 얻어 그동안 저에게 인연이 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번 지면을 통해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서 건강에 도움이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체질개선이 아닌 현재 상태의 기운을 통해 어떤 에너지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 내므로 즉시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illegible]

내가 먹고 싶은 식품(곡식, 야채, 과일, 고기류, 생선류, 약, 약초, 건강식품)이 내몸에 맞는지 즉석에서 판별해 드립니다. O-Ring테스트나 L로드, 팬드릭 같은 인위적인 매개체 없이 세포가 반응하는 것을 즉시 읽어내므로 틀림없습니다.

❖ 어떻게 하면 통증과 피로감 불편함에서 벗어날까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를 찾아내어 거기에 맞는 식품, 약초, 건강식품 등을 맞춰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으며 특히 내몸에 맞는 기능성 맞춤 한방차를 이용하시면 탁월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적용가능 예

- 어린이 : 분유, 이유식 제품선택
- 아토피 허약체질 : 기피음식 분류
- 청소년 :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식품 분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한방차 선별
- 직장인 : 스트레스, 피로회복, 숙취해소에 필요한 식품 한방차 선택
- 원인을 알수 없는 질병 : 어느 경락의 부조화인지 상담

건강식품, 약초 약재, 신약등을 연구하시는 분께는 인체 적용 반응을 이용하시면 높은 효능과 시간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공동연구도 가능합니다.

세일물산 02)965-4413

“불교는 행학…아는 것에 그친 배움 아무 소용없어”



나의 삶 나의 불교학

부처님 정법 목말라하는 이들 볼때 꾸준히 해야겠다고 다짐
더 큰 불교 위해 삼귀의 대상을 불·법·행으로 바꾸고 싶어

나는 지금도 매주 강의를 한다. 일·화·목 일주일에 세 번씩 (사)대한불교법사회(서울 신당동)에서 법회와 논강을 진행한다. <반야심경> <선가귀감> <원각경> <기신론> 등 부처님 경·율과 논사의 논을 대조하는 방식이다. 요즘 일요법회는 <입보리행정>을, 화요강좌는 <선종영가집>을, 목요강좌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고 있다. 강의를 주로 하다 보니 법사회 법당은 신도가 얼마 없다. 목요강좌가 50여명, 화요강좌가 20여명, 다섯명(나는 이들을 5비구라 부른다)으로 시작했던 일요법회는 현재 30여명이 됐다. 부처님 정법에 목말라하는 하는 이들을 볼 때 마다 나는 쉬지 않고 꾸준히 해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런 다짐이 가피를 입은 것일까? 2006년 10월 11일 강의를 마치고 찾았던 고려대 병원에서 ‘만성격막하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몇 곳에서 검사를 더 받은 후 녹색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집도한 의사가 “이정도면 쓰러졌어야 하는데 이것은 기적이다. 이럴 수 없다”며 놀랐다. 10월 13일 수술 후 24일 퇴원해 어느 정도 회복되자마자 바로 인도성지 순례길에 올랐다. 수술 보름 후 10박 11일간 찾은 인도에서 부처님 기운을 직접 받았는지 예전보다 더 건강해졌다. 그래서 다시 2007년 2월부터 강의를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종심(從心:일흔 살)을 넘은 지금도 내 강의는 양적으로도 젊었을 때와 변함이 없다.

나는 불교학을 하기 위해 교계 기자, 전국신도회, 동국대 조교, 강사를 두루 거쳐 교수가 됐다. 2002년 교수직을 정년퇴직하고 2004년까지는 서울 불교대학원 총장을 역임했다. 올해 20주년이 되는 (사)대한불교법사회를 기념해서는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07년 8월에는 소일거리 삼던 글과 그림을 갖고 윤범모 교수(경원대) 등 주변 사람들이 성화해서 결국 10월에 전시회도 열었다. 제자 박범훈 중앙대 총장이 내 글에 곡을 붙인 ‘연꽃누리 가득히’, ‘천둥소리’ 등 찬불가는 지금도 불교TV에서 심심치 않게 들린다.

경남 사천에서 태어난 나는 6살 때 밀양에 잠시 머물다 초등학교 졸업 무렵 6.25전쟁으로 부산으로 갔다. 부산에서 해동중과 해동고를 다녔는데 고2 때 통도사 극락암에서 경봉 스님을 만났다. 2~3개월 머물다보니 스님이 출가하라 했고, 출가 후 2월 보름 계를 받기로 예정됐었다. 그때 어린 마음에 고민하기를 ‘출가를 했으니 불살생·불투도·불사음·불망어·불음주 계를 지켜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심심하면 거짓말을 하는데 망어계를 어찌 지킬 것인가?’ 했다. 평소 스님들로부터 ‘거짓말하면 사천왕이 뒷통수를 때린다’는 말을 들은 기억에 안되겠다 싶어 도망쳤다. 절을 나왔으니 다시 학교를 다녀야 했다. 다니던 해동고 3학년으로 복학하려 하니 출가기간 동안 결석이 많아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다행히 이사장이던 박대관 스님(당시 통도사 주지)이 “이 학생은 다른 곳도 아니고 절에서 공부하다 왔다”고 말해 복학이 허용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했다.

사실 처음부터 동국대에 진학할 생각은 없었다. 수학과 물리, 철학을 잘했던 나는 물리공부를 위해 서울대와 전액장학 혜택을 주는 조선대를 사이에 두고 고민했었다. 그때 “마음을 연구하는 심성학이 물리학을 초월한다”는 조언이 있었다. 학비가 문제라면 종립고등학교를 마쳤으니 동국대에서 종비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결국 조선대의 전액장학과 서울대의 물리학을 초월한 학문을 겸할 수 있는 두 곳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택했다.

입학해서는 종비장학과 학과우수장학 수혜를 같이 받았다. 학비가 면제됐을 뿐더러 현금까지 생기니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했던 나는 그 돈을 술 마시는데 썼다. 쌍용빌딩 뒤 ‘양지집’에 매학기 장학금 8만4천원을 그곳에 맡겨뒀다. 누구든지 ‘목정배’ 이름을 대고 먹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보니 나중에는 거꾸로 외상이 8만4천원을 넘기도 했고, ‘날아가는 까마귀도 목정배 술 안 먹었으면 병신’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었다. ‘남들 시험 못 보게 술 먹이고 혼자 공부한다’는 엉뚱한 소리도 들어야 했다. 그때는 불교대 교재로 김동화 박사의 <불교학개론> 외 모두 강의노트 판서뿐이었다. 고등학교부터 일본책을 읽었던 나는 별다른 공부 없이 술 마시고 놀면서도 항상 시험을 잘 쳤으니 그런 말이 들릴 법도 했다.

당시 동국대 총장이던 故 백성욱 박사는 월요문화강좌를 진행했는데 이것이 내게는 큰 도움이 됐다. 지도교수 故 김잉석 박사는 화엄·구사·유식·삼론 대학자였다. 친구 김인덕은 중관 연구를, 나는 유식을 전공해 1964년에 <근본 식 연구>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유식 전공자였던 내가 계율을 공부한 것은 운명적이다.

박사과정 중 강사활동을 하면서 교과개편에 참여했을 때다. 커리큘럼을 살펴보니 예전에는 박한영 스님이 강의하던 ‘계율약전’ 과목이 있었는데 해방이후부터는 과목이 없었다. 그래서 일단 ‘계율학’이란 명칭으로 과목을 개설했고 마땅히 강의할 사람이 없어 내가 맡게 됐다. 갑자기 강의를 맡으니 막막했다. 하지만 당시 유식과 중론은 모두 도반들에게 강의가 배정됐지만 계율 전공자는 없었다. 지관 스님, 인환 스님은 <사분율>을 중심으로 공부하니 나는 <범망경>을 갖고 보살계를 연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승장·의적등이 찬술한 <범망경> 주석서를 모두 섭렵하고 번역을 마쳤다. 그 결과 <의적의 보살계본소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나는 동기 중 제일 먼저 전임이 될 수 있었다.

전임이 되기까지 공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2년 후배까지 모두 강의 배정을 받았지만 나만 못 받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그 덕에 교계 기자도 하며 안목을 넓히고 더 성장할 수 있었다. 1965년 석사를 마쳤을 때 청담 스님을 도선사에서 만났다. 청담 스님은 당신 명함에 ‘이 명함을 가져간 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써주며 이한상 사장(대한불교신문)을 찾으라 했다. 그 후로 나는 3년간 기자생활을 했다.

1966년 10월 15일 밀양 표충사에서 효봉 스님이 열반하셨을 때 일이다. 당시 대한불교신문 기자였던 나는 좌탈입망한 효봉 스님을 취재하고, 스님의 법구를 서울로 모시는 영광도 누렸다.

불교는 ‘행학(行學)’이다. 행하는 만큼 배워야 하고 배우는 만큼 행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면 ‘술·담배를 끊겠다’ 다짐하는데 나는 ‘돈연돈주(頓煙頓酒)’ 한지 오래다. 남들은 담배를 끊을 때 담배를 멀리하지만 나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안했다. 요즘도 친구들이 앞에서 술을 마셔도 나는 안한다. 이미 안 좋다 생각했는데 무엇 때문에 집착하는가. 일단 자기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끊기로 마음 먹었다면 실천해야 한다.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과 있는데도 안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그래서 신도는 행(行). 법보는 학(學). 부처는 증(證)이다. 내게 남은 숙제가 있다. 더 큰 불교를 위해 삼귀의 대상을 불·법·행(마음자리)으로 바꾸고 싶다.

일부러 내게 강의배정을 않던 분은 물론 나는 모두 인연을 선하게 회향하고자 실천했다. 남이 내게 어떤 음해를 해도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담아두면 잘못 아닌가? 그것에 나를 구속하지 않아야 괴롭지 않다. 느낌 자체가 무상함을 알고 흘려야 한다. 무상, 무아하면 고는 있을 수 없다. 바로 열반적정이다. 내 강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나는 행복하다.

정리=조동섭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목정배 교수는 1937년 경남 사천 출생.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철학박사. 동국대 불교대학장, 불교대학원장과 불교문화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대한불교법사회 이사장이다. 논문은 <의적의 보살계본소 연구> 등이 있고, 저서로는 <삼국시대의 불교> <대승보살계 사상> <한국문화와 불교> 등이 있다. 암도 스님, 재선 스님, 태진 스님(갑사 주지), 박범훈(중앙대 총장), 차차석(금강대 교수), 신성현(동국대 교수), 선주선(원광대 교수) 외 논문 지도를 받은 다수가 교계 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합장

“신 수 비 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이 름 대 사 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법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10년간 300만배 회향…죽는날까지 계속할 것”

데스크 초대석

동국역경원 박종린 위원

10년 동안 300만 번의 절을 했다. 동국역경원 박종린 역경위원이 주인공이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1년에 30만 번이다. 한 달에는 2만5000배, 하루에는 840배다. 매일 108배를 하는 불자들은 많지만 매일 108배를 8회 하는 불자는 과연 몇이나 될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절을 하다보니 처음 계획보다 더 빨리 목표에 이르렀지만 이제 그만한다는 종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생활이 수행이고 수행이 ‘나무아미타불’을 큰 소리로 부르며 절을 하는 ‘염불절’이었다. 염불절 수행을 함께 하는 도반들과 자연스럽게 형성된 ‘불력회’를 이끌고 있는 박종린 위원. 1월 9일 서울 종로3가에 위치한 아미타사에서 열린 ‘108참회 기도법회’에서 박종린 위원은 절수행을 해 온 10년을 회고하며 ‘죽는 날’까지 절을 하겠다고 새롭게 서원했다.





박종린 위원은 1월 9일 아미타사에서 불력회 회원들과 108참회기도를 하고(아래 사진) 300만배 성취 소감을 밝혔다.

-그간 어떤 수행을 해 오셨나요?

저는 일찍이 간화선을 접했습니다. 30여 년 전 대구구도회에서 송광사 여름 수련대회를 갔을 때 구산 큰스님의 고구정녕한 선법문을 듣고 크게 발심했습니다. 그때 법사로 법문을 해주신 분이 구산 큰스님을 비롯해, 법정 스님, 휴암 스님, 혜국 스님 등이셨는데, 그 스님들의 법문이 어찌나 간절하든지 이것저것 돌아볼 여지도 없이 간화선을 주수행법으로 삼아 나름대로는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마음은 비관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며, 현실 적응력이 떨어지는 등 무진 애를 먹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것만이 다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하는 생각에 간화선수행을 과감히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것이 염불이고 절수행이었습니다.

-염불절 수행은 어떤 수행법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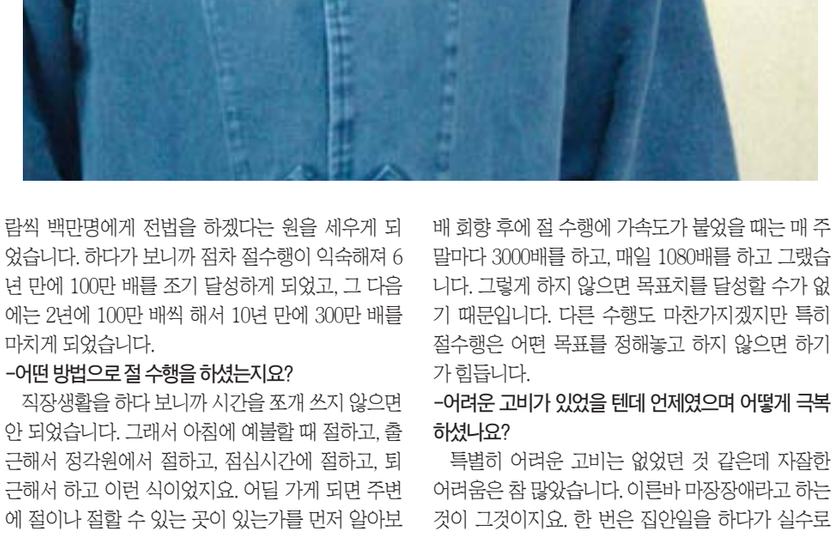
염불절 수행은 한마디로 본래 나로 돌아가는 수행입니다. 나아닌 가짜와 이별하는 것이지요. 이 몸뚱이를 나로 알고 살아온 오랜 세월 동안 익힌 습을 뿌리 뽑는 수행입니다. 가짜 나를 진짜 나인 부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 절입니다. 그래서 절을 할 때 반

> “염불절은 참나로 돌아가는 수행법”

드시 염불과 함께 합니다. 염불은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고, 부처님이 바로 참된 나이기에 내(가짜)가 부처님(진짜)을 염하면 가짜가 그대로 진짜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용광로와 같아서 나라는 불순물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잡된 것이 다 녹아버리고 순수한 부처님 성분만 남게 되지요. 그러니 부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잡된 나는 없어지고 온전한 지혜광명의 존재인 부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잡된 가짜 나를 없애고 참다운 부처님 기운을 드러내는데는 염불만한 것이 없고, 절만큼 분명하고도 확실한 수행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만큼 그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는 수행도 달리 없을 겁니다.

-300만 배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불자로서 자기 밥값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전법(傳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었지요. 그런데 전법을 하려고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 형편없는 겁니다. 40여년 살아온 제 자신 삶의 모습이 하도 한심스러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머리를 스쳤고, 10년 후를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정초부터 1년에 10만 배 씩 10년 동안 100만 배를 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절 한배 한배를 통해 부처님께로 한걸음씩 다가가기를 서원했고, 한배마다 한 사람씩 백만명에게 전법을 하겠다는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점차 절수행이 익숙해져 6년 만에 100만 배를 조기 달성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2년에 100만 배씩 해서 10년 만에 300만 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절 수행을 하셨는지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조개 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불할 때 절하고, 출근해서 정각원에서 절하고, 점심시간에 절하고, 퇴근해서 하고 이런 식이었지요. 어딜 가게 되면 주변에 절이나 절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를 먼저 알아보고 찾아가서 절하고, 절에 가면 무조건 108배하는 것을 기본으로 정해놓고 절하고 그랬습니다. 100만 배 회향 후에 절 수행에 가속도가 붙었을 때는 매 주말마다 3000배를 하고, 매일 1080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표치를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수행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절수행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하기가 힘듭니다.

-어려운 고비가 있었을 텐데 언제였으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특별히 어려운 고비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자잘한 어려움은 참 많았습니다. 이른바 마장장애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지요. 한 번은 집안일을 하다가 실수로 발을 다치게 되었는데, 이것을 핑계로 절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해서 한쪽 발로만 절을 하는데 무척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발목이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손목이 아파 손을 짚기 힘든 적도 있었으며, 또 어떤 때는 무릎이 쑤시고 아파 절을 포기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몸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기로 해놓고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하지’하는 마음으로 채찍질을 했습니다.

-지금도 매주말 3000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4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첫째 토요일은 동국대 정각원에서, 둘째 토요일은 성북동 길상사에서, 셋째 토요일은 잠실 불광사에서, 넷째 토요일은 수유리 화계사에서 대중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염불하고 절하는 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수행이고, 이 염불절수행을 열심히 하면 개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무엇보다 불자로서의 신심이 돈독해지게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불교가 새롭게 활짝 꽃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자에게 있어 수행은 필수 의무 사항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수행은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억지로

> “불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수행해야”

해야 합니다. 흔히 수행은 마음이 우러나서 저절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행은 무조건 해야 하고, 억지로 해야 하고, 강제로 해야 하고, 마지못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수행을 예로 들면 하루 몇 배를 하겠다고 정해 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빼먹지 않고 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그만 못하게 됩니다.

-다시 장기 절 수행을 시작하실 것인지,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요?

죽는 날까지 염불절수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제 소원은 죽기 열흘 전에 3000배를 하고, 죽기 전날 108예참을 하고 염불하며 죽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참나인 부처님을 찾아야겠지요. 입으로 하는 염불이 칭명염불이라면 몸으로 하는 염불이 절이니까 염불행자가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염불하지 않으면 뭘 하겠습니까? 지금 전법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내 중심지에 마음 놓고 누구나 염불하고 절할 수 있고 부처님 법을 펼칠 수 있는 여법한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글 사진=임연태 부국장

천하대도 무자년 동방의 빛으로 후천이 시작되는 유불선 경신도통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운수 대통 및 천안통 용맹정진대법회

생명의 근본은 태식에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노병사 해탈법은 경신 도통에 있느니라.

● 경신수행으로 심신의 번뇌를 벗고 새로운 정신세계를 창조하여 막힌 운명을 찾아 도통하여 미래를 창출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다스리는 수행정진으로 초능력자 일류 스승으로 살아가는 장수 비법과 건강의 주인공 되소서.

진인도통군자 제위 귀하를 용맹정진 대법회에 초대합니다. 과거 칠불과 팔만사천 모든 경의 근본이 반야심경이고 반야심경의 핵심이 안이비설신의 이며 삼라만상 생명의 근본은 마음자리이고, 마음자리의 근본은 心의 근본인 자시와 오시에 생명의 점안을 하는 날이 경신일인 것이고, 부처님을 모셔도 점안을 하여야 사불이 안되듯이 우리 수행자들도 경신일날 천안통과 마음의 점안을 안하면 견성성불이나 견성득도가 되지 않고 허성세월을 하다가 사람 몸받은 도리를 못한채 한생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경신도통법은 지구탄생과 더불어 사람에게만 하늘에서 내려주신 도법으로 만세에도 가벼히 전하지 않고 천고에도 전하지 않았던 하늘과 땅에 감춰진 것을 금년 무자년부터 천년이 시작되므로 천용진인태일대사는 만천하에 전하는 바 이오며 경신도법에 전하는 것은 후천대도는 인간의 득도에 따라 **천도는 드러나지 않게 전하며 지도는 움직이나 멸하지 않게 전하는 것이며 인도는 그 사람 그 자리가 아니고는 기국이나 인품이 아닌 자에게는 전하지 말것이니라.** 특히 욕심이나 빨리 배우고 사용하여 이득이나 취하고 영리를 취하는 자에게는 삼가할 지어다.

● 경신도통이란?? 자신의 주인공을 찾는 참선인 것이고 생노병사를 초월하는 법이며 운을 받아도 안되고 치료해도 안되는 관절과 수족, 중풍,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을 제도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재하는 수행법인것이다.

경신도통을 하여야만이 무불도통으로 초능력자가 되는 것이다.

전생빙의와 해리로 고통받고 중음신과 삼시구충으로 육신의병, 정신의 병, 잡신과 귀신에 빙의제도법 특별 태일대사 직강

◆신장과 귀속들을 부려 말문과 글문과 도통군자들과 영통능력자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 태을경과 옥주경을 강의하여 신장귀속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다룰 수 있는 특별비법 전수

육경신 기도 중 이번 천안통 법회에는 고시에 자신이 없거나 사대가 불편하고 심신으로 고생하며 수족이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즉시 혜원상생 시키어 건강,특별시험에 성취하는 천안통 기도이 것이다.

心 부처님 열반 7일전에 보현보살에게 부처님께서 비전으로 이어진 부자되고 견성하여 불법을 지키는 비밀의 주문송의 비밀장을 그대는 아시는가. 돈부주문송을 ….



삼재팔난 일체고액을 소멸하고 운수대통 하는 달마 구입처 : 02)821-6622/016-239-3119

천안통 법회에 혜명을 득도하는 비법인 진법을 도통군자들에게 참된여래의 종자와 주인공인 나를 감추고 있는 으뜸가는 관문인 혜명과 성품이 갈라져있는 참법을 즉시 도통견성하여 영통능력과 말문을 열어 혜명과 성품이 둘로 갈라져 혜명은 성품 즉 마음자리를 볼 수 없이 육신만 자라면서 성장하자마자 늙고 병들어 제육신하나 관리못하는 모든수행자들에게 특별 경신수행으로 신선이나 도인이되어 만천하를 제도하며 천하제일의 견성도통 심령도통 광명도통, 말문도통으로 하늘의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만법을 얻어 만중생을 제도하는 경신도통군자 되소서.

◆본종단 불사금 부적으로 소장했던 탄허대선사 큰스님친필 평풍, 일붕 서경보 큰스님 반야심경 평풍 친필과 강석주 대선사 큰스님 현판 및 오유지족 친필, 수덕사 방장 원담 큰스님 반야심경 친필 평풍.

◆제2도장 태양의 집 - 도인과 진인을 창출하는 천하 도통 명당 수행지 계룡명당, 봉황산, 계두봉, 서출동유, 지장수 명지, 비산비야, 비승비속 진인 출현지에 동방의 찬란한 빛이 비춰는 곳 - 정신, 심신, 육신의 수행도량 이곳의 지장수인 생명수를 마시면 고혈압, 당뇨, 살이 빠지고 오장육보가 편해진다.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 2리259번지 ☎ 041)867-7763 명제스님

세계불교달마종 육경신 도통회 제2도장 태양의집

● 입제 : 양력 2008년 1월 20일(음, 12월 13일 일)(해시)
● 해제 : 양력 2008년 1월 21일(음, 12월 14일 월)(해시)
02-821-6622 , 821-7767, 016-239-3110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 출구 → 버스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하차. (버스 6513, 6514, 5711, 461,153 이용)

웅조달마 경신도통회
세계불교 달마종 총본산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SMD,LED전구 (국산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영가위패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 읽기 캠페인

93 선지식 열반송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이 한데 묶어

선사들이 지상에서 던지는 마지막 법문

"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죄업은 하늘에 넘치고 수미산을 지나쳤다/ 산 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은 만 갈래나 되고/ 둥근 한 수레바퀴 붉음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네."(퇴옹 성철)

"저 하늘에 뜬 밝은 해가 진심을 드러내니/만 리에서 불어오는 푸른 바람 오랜 거문고를 타네/생사열반이 원래부터 꿈이려니/산은 높고 바다는 넓어 서로 침범하지 않네."(동곡 일타)

한국 현대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두 스님의 열반송이다. 큰스님들의 열반송은 속박과 번뇌, 미망과 아집 속에서 살아온 일생을 더듬고 마지막 입멸 순간에 던지는 '깨달음의 노래'이다. 그래서 열반송에는 손닿을 수 없는 무한(無限)의 세계와 함께 생사의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와 결코 이름 지을 수 없는 선(禪)의 세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큰스님들이 가시는 길에 대중을 위해 남겨놓은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법문이다. 이 속에는 속세와 인연에 대해 엄격한 절제와 부드러운 화법이 시구(詩句) 속에 녹아 있고 장대한 우주적 법이 서려 있어 그 감동은 매우 크다.

성철 기홍 원명 일타 월산 춘성 성우 등 법명만 들어도 저절로 합장이 되는 한국 현대불교사의 큰 발자취를 남긴 93선지식들의 열반송을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이 한데 묶어 책으로 펴냈다. 제목은 <꽃은 피고 물은 흐르네>이다.

이 책속에서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각 열반송마다에 짧은 해설과 감상을 덧붙여 놓았다. 또한 각 장마다 스님들이 걸어온 행적과 일화들을 함께 소개해 놓아 큰스님들의 삶의 흔적들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모든 스님들이 다 열반송을 남긴 것은 아니다. 서암 스님이나 석주 스님은 생전에 열반송을 남기지 않았다. 서암 스님은 시자가 열반송을 남길 것을 권하자 "나는 그런 거 없다. 누가 정 물으면 그 노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해라. 그게 내 열반송이다." 또한 석주 스님은 "부처님이 열반송을 남겼는데 내가 남길 말은 없다"고 하기도 했다.



꽃은 피고 물은 흐르네
성철 스님 외 92인 지음 · 성타 스님 엮음
휴먼앤 북스 펴냄|1만3500원



살을 깎는 치열한 두타 수행 끝에 큰스님들이 마지막 남긴 주옥같은 열반송에는 물 흐르듯이 꽃이 피듯이 그냥 그렇게 욕심 없이 세상을 살다간 큰스님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래서 제목도 아마 '꽃은 피고 물은 흐르네'로 붙인 것 같다.

큰스님들이 열반송을 남겼던 유래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말씀에서 연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자신을 등불삼고 자기를 의지하라(自歸依 法歸依), 진리를 등불삼고 진리를 의지하라(自燈明 法燈明)'이다.

부처님 열반송에서의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신을 등불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이 이상의 진리는 없다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가꾸는 일이다. 한마디로 열반송은 하나의 깨침이다.

부처님 열반송은 모든 고승들의 열반송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선사들이 세상을 뜰 때 열반송을 남기는 것은 부처님 열반송에서 유래됐는데 이것이 모든 스님들에게 '깨침'의 화신이 되었다.

저자인 성타 스님은 "열반송은 큰스님들이 우리 중생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법문이라는 생각에 20년 전부터 열반송을 모으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어떤 때에는 하나의 열반송을 얻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30년 이상 수행승으로 살아온 경험 고백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서 이론물리학을 전공한 후, 스스로 삭발한 뒤 밀림으로 가서 위대한 스승 아잔 차의 제자가 된 아잔 브라흐마는 특유의 유머와 통찰력 넘치는 법문으로 유명하다. 그는 또한 존경받는 명상 스승 중 하나이다. 30년 넘게 수행승으로 살아온 그는 뛰어난 영혼 치료사이기도 하다.

그가 스승 아잔 차와 함께 지낸 일화를 비롯해 지난 30년 이상 수행승으로 지낸 경험들 그리고 절에서 한 법문 등을 모아 한 권의 책을 냈다.



술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아잔 브라흐마 지음 · 류시화 옮김
이레 펴냄|1만1000원

저자가 소개하는 108가지 일화들은 거미줄을 걷어내는 빗자루처럼 마음속에 걸린 108개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걷어내 준다. 완전한 삶, 사랑, 두려움, 고통, 분노, 용서, 행복, 자유 등이 바로 그 주제다. 저자 특유의 재치 있는 스토리텔러(이야기꾼) 기질이 책 속에 잘 반영돼 책장을 넘기다 보면 입가에 미소 짓게 만든다.

일화 하나 소개한다.

"한 여행자가 갠지스 강가에 앉아 주위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는 몸집이 큰 코끼리 한 마리가 강에서 목욕을 마치고 강둑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때 갈고리가 달린 막대기를 든 남자가 코끼리에게 다가와 다리를 앞으로 내밀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코끼리는 온순하게 다리를 앞으로 내밀었고, 남자는 그 무릎을 밟고 코끼리의 등으로 올라가 앉았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여행자는 야생 코끼리가 인간에 의해 그토록 온순하게 길들여질 수 있음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길로 그는 숲으로 들어가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마음속 이 코끼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명상과 깨어 있음의 밧줄로 마음속 코끼리를 붙들어 매는 순간, 문제는 사라진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3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4	행복한 미소	성전	개미
5	별처럼 사는 법	이시우	우리출판사
6	염불선	덕산	클리어마인드
7	화, 욱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툽텐 초드론	미디어 윌
8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9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10	나마스테, 여기는 붓다의 나라	향덕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불교용어 일목요연하게 정리 불교입문서 안성맞춤



지식여행-불교
프랑크 라이너 세크 · 만프레드 괴르겐스 지음
황선상 옮김|예경 펴냄|1만2800원

2500여 년에 걸친 불교 역사를 체계적으로 조명해 불교의 종교적 요소는 물론 철학, 문학 등 불교의 모든 것을 한 눈에 알기 쉽게 정리한 <지식여행-불교>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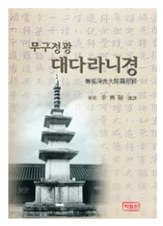
이 책은 불교가 발생한 인도를 비롯해 스리랑카, 미얀마, 타이 등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티베트불교, 한중일 불교 등의 역사를 집대성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이 책은 불교 건축, 미술, 문학 등의 불교문화와 현대인들의 관심을 끄는 참선 수행 같은 주제들까지 폭 넓게 다룬다.

불교를 접하고 싶었지만 어려운 불교 용어에 부딪혀 망설이거나 책장을 몇 장 넘기고 포기해야만 했던 이들에게 유용할 책이다. 풍부한 사진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용어들, 교리의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져 불교입문서로도 안성마춤이다.

물론 방대한 역사와 교리를 이 책 한 권으로 다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책은 300여 컷에 이르는 사진과 지도 등을 실어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본문 사이에 배치된 별면은 붓다의 제자들, 깨어있는 의식과 선(禪), 만다라, 선불교의 일화, 불상의 형태와 수인 등의 주제들을 뽑아내 흥미롭다.

김주일 기자

음과 훈 읽고 뜻 음미하며 한글로 쉽게 번역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신흥식 번역
화림원 펴냄|5000원

'무구정광 대다리니경'.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다. 1966년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 봉안됐던 목판본이 발견되면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졌다. 역자는 1993년 한 사찰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선물 받은 이 경에 흠뻑 빠져 옥편을 찾아가며 음과 훈을 읽고 그 뜻을 음미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한글로 쉽게 번역된 것이 없다는 데 발심해 기도를 하며 뜻을 번역했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고, 마침내 그 결실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졌다. 책에는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을 비롯해 '최승무구청정광명 대다라니' '근본 다라니' '상륜다라니' '자심인다라니' 등이 들어있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세계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돌침대, 흙침대 전문기업
(주)장수구들 이 만든
www.geubooki.co.kr
한글도메인 | 거북이표건강침대,장수구들
장수하는 거북이
옥돌침대
흙 침 대
'불기 2551년,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 불자기업이 만듭니다.

인기상품 422 로채Q(황토흙)
인기상품 304 목련Q(음수옥)
특별가 235만원 424 비토Q(황토흙)
특별가 199만원 303 피아노Q(홍맥반석)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나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시는 스님이나 부모님께 건강침대를 선물하세요
흙침대 거북이표

160 엔틱침상(홍맥반석)
163 카우치(거실용쇼파/황토흙)
188 플로어 침상(홍맥)
168 신카우치(황토흙)
161 신침상(황토흙)

서울본사전시장
412-2574~5(代)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97-2 (구송파사거리)
가락시장 가락APT 엄마손 백화점 생남-가락시장사거리 구송파사거리 잠실 송파역 1번출구 잠실여고 일신여상 전시장 백제고분
지하철 8호선 송파역1번출구 잠실방향100M 우측
하남물류전시장
(02) 3402-2520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하훼단지맞은편
올림픽선수촌 APT 둔촌사거리 둔촌주공 화훼단지 동북고교 거여동 서하남입구사거리 보훈병원 양반촌 전시장 타이어 서하남 I.C
서하남입구사거리 오금동 화훼단지맞은편
전국무료배송
(도서지역제외/배송비별도)
본사에서 직접 소비자님께 배송해 드립니다.
강릉점 (033) 651-5223
대구점 (053) 586-0202
제주점 (064) 743-2366
취급점 및 대리점모집 02)487-1097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 읽기 캠페인

"부끄럽지 않는 책 만들 터"

불교계의 '브리태니커 사전' 만드는 것이 꿈
불교를 제대로 아는 전문인력 없어 아쉬워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

우리는 서점에서 '만들어진' 책만 접한다. 책에 대한 관심은 제목, 저자나 혹은 역자까지다. 탄생하기까지 겪은 모든 과정을 책은 속삭이고 있지만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여기, 책 중에서도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불교관련 서적을 '불서(佛書)'라고 한다. 불자들이 불서를 많이 읽지 않아 탄식하면서도 이들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한 권의 불서가 어디서,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작용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 독자 층도 형성되지 않은 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이 밝히고 있는 등불은 지금도 빛나고 있다.


김시영 사장(왼쪽)과 디자이너 박혜정씨가 새로나올 책의 표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6가 청송빌딩 3층. 도서출판 운주사가 위치한 곳이다. 1월 8일, '운주사' 이름이 걸린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시열 사장이 반긴다. 그리 크지 않은 공간, 벽 가득히 꽂혀 있는 불서들. 들어서는 순간, '아 이곳이 출판사구나' 싶다.

운주사는 총판과 출판사로 나눠져 있다. 원래 함께 있었지만 2001년부터 분리, 출판쪽은 김 사장이 전담하고 있다.

김 사장이 처음으로 운주사에서 책을 만든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와 갓 사회에 뛰어든 1991년 이었다.

"가장 처음 만든 책은 <능엄경 연구 입문>이었어요. 만들면서 비로소 부처님 말씀에 완전히 빠져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책 만드는 것이 재밌었고, 공부도 체계적으로 하게 됐지요."

김 사장의 책상에는 항상 가편집 상태인 원고가 놓여 있다. 원고가 제대로 나왔는지, 독자들에게 접근성은 갖췄는지, 틀린 글자는 없는지 살피기 위해 최소 두 번은 정독한다. 불법(佛法)을 전하려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행여나 왜곡시키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서다.

현재 운주사에는 김 사장과 북디자이너 박혜정씨가 함께 일하고 있다. 책이 출판되기 위해서는 기획자, 편집자 등이 필요한데 김 사장이 출판사의 대표면서 기획, 편집은 물론 교정 · 교열까지 맡고 있다. 그야말로 멀티 플레이어.

"안정된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 규모를 키울 수는 없어요. 불교출판에서는 '기획'이 관건이라 보고 있습니다."

단 두 명이 일하는 직장이지만 운주사는 만만치 않은 저력을 지녔다. 지금 '어렵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불교계 출판 시장에서 1년에 15종 이상 불서를 만들어내는 출판사를 꾸려가기가 어디 쉬운 일일까. 그렇게 꾸준히 만들어 낸 책 250여권이 바로 운주사의 자산이 다. IMF 한파가 불어닥쳤을 때도 운주사는 기죽지 않았다. 그것이 도서출판 운주사의 신뢰도로 이어졌을 터다.

운주사의 책들을 쭉 살펴보니 실용과 학술, 이론을 넘나든다. 김 사장은 "큰 범주에서 '선(禪)'을 다루는 책을 만들고 있고 사회에서도 실용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굳이 어떤 것만 하겠다고 구분짓지는 않는다"며 "뭐든 균형이 맞아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한다.

출판사에서 낸 책들은 모두 자식과 같다. 그래도 출판인 입장에서 기억에 남는 책은 있기 마련. 김 사장은 탱화를 다룬 <고려불화, 실크로드를 풀다>(김영래 저), <그림으로 만나는 부처의 세계, 탱화>(김의식 저) 두 권을 서가에서 꺼내 보여준다. 이 책들은 일반 인문도서 코너에서도 꽤 유명했고 학교 교재로도 쓰일 정도였다. 김 사장의 입가에 흐뭇한 웃음이 흐른다. 이것이 출판인의 자부심일 것이다.

운주사에서는 현재 법현 스님의 <부루나의 노래>를 끝냈고 <교과서 속 불교이야기>를 추스르고 있다. 올해 김 사장이 의욕을 가지고 만드는 도서 목록 중 유독 <대지도론>이 눈에 띈다. 현재 작업 중이지만 워낙 방대한 양이라 올해 안에 마무리 될지는 자신할 수 없는 상태. 다소 힘든 작업이 예상되지만 <대지도론>의 완역본을 세상에 제대로 펴낸다는 것이 김 사장의 계획이다.

운주사에서 김 사장이 진짜 만들고 싶은 책은 어떤 것일까. 김 사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문서'라 답한다. 소책자처럼 여러 권의 입문서를 만들어 사찰을 찾을 때 궁금한 부분을 찾아 읽고 갈 수 있는, 불교계의 '브리태니커 사전'을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다. 불교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질 갖고 있을만한, 소장 가치가 있는 입문서.

요즘 김 사장의 고민을 묻자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꼽는다. 글쓰는 필진도, 교정교열자도 불교에 대해 알아야 제대로 된 불서를 만들지 않겠냐는 것이다.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운주사의 행보는 멈추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였다. 일당 백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인문학적 불교 서적을 만들고 싶습니다. 불교도 결국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독자들이 책 산 돈이 아깝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책을 만들겠습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운주사 대표 불서 BEST 2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연도
1	산사에서 띄우는 풍경소리	정관	2007
2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	지현	2007
3	중국의 불교문화	차차석	2007
4	붓다로부터 배우는 다이어트의 지혜	박용길역	2007
5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	민병직	2006
6	조선불교유신론	한용운	2007
7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2007
8	한국불교사상	서윤길	2007
9	길, 누군가와 함께라면	혜철	2007
10	황필호, 달라이라마를 만나다	황필호	2007
11	선요	전재강	2006
12	고려불화, 실크로드를 품다	김영재	2004
13	왕생론주 강설	태원	2004
14	금강경 이야기	무비	2003
15	마음부자	자원	2003
16	에세이 불교철학	이병욱	2003
17	불자가 꼭 읽어야 할 기본경전	법성 역	1999
18	(만화)부처님 전생이야기	정수일	2004
19	(만화)성철 큰 스님	임기준	1994
20	선학총서	김진무 역	2002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불자들의 삶에 불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 한 권의 불서가 삶을 바꿀 수도 있다. 그 영향이 크던 작던 불서는 불자들의 생활을 돌아보게 만든다. '내 인생의 불서 한 권'에서는 불서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거나 불서에서 큰 가르침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나'라는 아상 벗어나면 괴로움 없어

누구에게나 자기가 좋아하는 경전이 있다. 나에게 있어서는 <금강경>이 신앙의 전부고 스승이며 부처다. '내 인생의 불서'라는 제목으로 글을 청탁받았을 때 <금강경>보다 더 내 인생을 향기롭게 만드는 책이 있는가 반문해 봤다. <금강경>을 독송해 온지도 40여년, 결국 내 인생의 불서는 <금강경>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확인했다.

이참에 고백할 것은 처음 <금강경>을 염송할 때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덕높은 분으로부터 <금강경> 강설을 들었고 확실한 뜻을 이해하면서부터는 내 나름대로 뜻을 새기게 됐다.



처음 염불땐 내용 전혀 이해 못해
아상 집착하지 않으면 공부 쉬워

<금강경>은 불교의 근본 경전이어서 그런지 수많은 판본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꼽아 보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있는 <금강경>은 아마도 무비 스님의 <금강경 강의>(불광, 1994)가 아닐까 한다.

나의 경우, 무비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읽으면서 특히 아상(我相) · 인상(人相) · 중생상(衆生相) · 수자상(壽者相)의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 이 네 가지 상은 서로 뿌리를 의지하고 있으면서 번뇌의 파장을 이어 나간다고 한다.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도 쉽지 않은 것이 '나'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아상에 끊임없이 천착해 있는 스스로를 보기도 한다. 이렇게 현실은 그야말로 힘든 공부처다. 그 때마다 동요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 깨치지 못했기 때문일 것 같아 다시 <금강경>으로 돌아간다.

다음으로 크게 교훈되는 바는 '응무소주(應無所住)'다. 마음이란 어느 때 어느 곳에든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무소주 행어보시(應無所住 行於布施)-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한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베풂을 행했더라도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한, 더 이상의 수행은 이뤄지지 않는다. 상에서 벗어나고 머무는 바 없다면 견성할 수 있다고 <금강경>은 가르친다.

또 <금강경> 4구게 중 처음으로 시작되는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즉 '무릇 모든 상은 다 허망하나니,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여래를 보리라'는 이 게송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니라는 것을 본다면 부처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내가 공부한 바로는 이런 내용들이 <금강경>의 핵심이 아닐까 싶다. 이런 원리들이 내 삶 전반에 스며들면서 얼마나 향기로워졌는가, 새삼 놀라곤 한다. <금강경>을 몰랐던 시절에는 쫓기듯 살았다. 쫓긴다는 것은 마음자리를 잠시나마 어딘가에 머무르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때는 몰랐다. 그러던 내가 <금강경>의 뜻을 새기고부터는 '응무소주'를 가슴에 품고 살게 됐으니 얼마나 큰 복인가. 내 삶도 여유로워지고 중앙신도회라는 조직에서 불법 홍포에 힘쓰고 있으니 더 무엇을 바랄까. 무비 스님의 <금강경 강의>로 의미를 다지고 다시 한 번 삶을 돌아보는 여유. 불자기 때문에, 불서가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닐까 싶다. 손안식 조계종 중앙신도회 상임부회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무 료 개 방
황토와 산야초(야생화)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소승은 용맹정진 기도로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본 도량에 **황토찜질방과 좌욕방**(산야초 및 야생화 30여종)을 마련하여 심신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과 함께 하고자 **무료 체험방**을 개방합니다.

또한 도량내에 지하암반층에서 솟는 **맥반석수**는 감로수로서 심신의 건강을 지켜 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홈페이지 : 검색창에 「불토사」라고 치세요!



무보시로 기도하실 비구,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약사여래 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불 토 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356-3번지
종무소 전화 : 033)343-0103

실무자 스님이 염불 한글화 하여!
"염불자가 경전의 내용을 알고 염불하는"
《의식집》을 만들어 소개합니다.

한글 한문 (겸용) 불교상용의식집

내 용 소 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우리말염불(경전 내용으로 구성)을 염불자가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할수있게 만들었습니다.

②우리말 염불화를 하기위하여 한문의 (음)만 달은 것이 아니고 경전의 내용을 염불로 구성하여 편찬함으로 염불을 하면 자동적(주입식)으로 경전공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③의식의 분야에 따라 각각 5권으로 분류하여 염불내용을 위주로 조직하여 책의 분량을 줄여서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④염불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운운)을 최소한 적게 하고 실무차원에서 염불자의 작은 애로 까지도 배려하여 초보 집전자도 편안하게 집전 할수있게 하였습니다.

⑤염불의 한글화는 우리 불교의 과제인데 염불하는 방법을 한부분 소개한다면 "삼청을 하는 청사를 "2청은=한문염불(기존염불)로 하고 "1청은=우리말염불(한글염불)로 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한글화 할수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확신 합니다.

<구 성>
• 제 1권:예경:각청편 • 제 2권:천도:시식편 • 제 3권:수계:방생편
• 제 4권:장의편 • 제 5권:점안편
◎ (이상 5권이면 기본염불 완료) 총 5권 특별보급가 67,000원(배송비 포함)

〈문 의〉 전화 031)448-5065 / 핸드폰 011-277-8024
(농협 : 211012-52-203756) 박명덕 ※각권 별도 판매 사절

절의 운동 효과 다양한 실험과 사례로 밝혀





몸을 낮추어 바닥에 엎드리는 행위인 절은 불교의 오랜 수행법으로 절을 통해 부질없는 집착을 하나하나 비워 나간다. 이러한 절이 마음을 낮추는 인격 수양과 함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법으로도 현대인들에게 각광 받고 있다.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는 현대인에게 절은 마음의 평화와 질병을 고쳐주는 웰빙 프로그램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1월 15일 오후 10시부터 45분간 KBS-1TV에서 방송될 '생로병사의 비밀-뇌를 깨우는 108배' 에서는 절이 종교를 넘어 현대사회에서 운동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와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다.

프로그램은 108배를 통해 질병을 치유한 사례를 소개하고 양의학에서 과학적인 실험을 진행한다. 절을 통한 생체적 변화와 다른 운동과의 운동효과 비교 등 절 운동의 특징과 효과, 인간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분석한다.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절의 운동적, 질병 치유적 효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한다.

#(사례1) 뇌출혈 환자 서희한

1997년, 당시 서울대 토목과 2학년이었던 서희한(34)씨. 누구보다 건강했던 그는 자원봉사를 위해 갔던 산에서 추락해 사고를 당한다. 뇌출혈로 인해 혼수상태였던 그는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고 만다. 잃어버린 희망과 절망 속에서 10년을 보냈던 그는 병원에서 몸을 많이 움직이라는 처방에 수영과 물리치료 등 갖은 방법을 다 써봤으나 별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던 중 법왕정사 주지 청견 스님의 절 수행에 관한 책을 보고 3년 동안 꾸준히 절을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고 지금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소에 당당히 취직해 제 2의 삶을 살고 있다.

(사례2) 당뇨환자

성빈센트병원 조재형 교수팀이 당뇨환자 들에게 절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해봤다. 우선 6명의 당뇨환자들에게 혈당검사와 무릎 X-ray, 자율신경계검사, 연속혈당 측정 등의 사전 검사를 실시한 뒤, 각 환자별로 운동처방 후 4주간 절 운동을 시켰다.

4주 후 다시 같은 검사를 해 본 결과 의료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환자 6명 모두 몸에 근육량이 늘어났고, 혈당수치가 낮아 졌으며, 당뇨환자들에게 좋지 않은 유리지방산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아냈다.

(사례3) 자양사회복지관 나란타 대안학교 학생들

서울 자양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나란타대안학교 학생 14명에게 '108배 절 수행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우선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동국대 일산병원 신경정신과에서 학생들의 주의력과 집중력 테스트를 시행했다. 사전 검사 결과 대다수 학생들이 주의력과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취재진은 학생들에게 하루 1시간, 규칙적인 절 운동을 5주간 시켜봤다. 물론 주의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규칙적으로 통제해 절 수행을 시키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실험에 성공한 취재진은 역시 5주 후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주의집중력 테스트를 받게 했다. 14명중 6명이 정상으로 나왔고, 그 외 학생들도 수업태도와 주의력이 많이 향상됐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취재진은 단순히 절 수행에 참여한 이들의 개선된 신체의 건강 수치에만 그치지 않았다. 전문가들에게 심도 깊게 절 수행의 운동적 기능에 대해 탐문했다.

청견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면 무릎 등의 관절에 무리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절은 자세만 올바르게 행하면 오히려 관절에 큰 도움을 주는 굴절 운동"이라고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 프로에서는 청견 스님이 올바른 절하기 방법도 제시한다.

고유선 숙명여대 대학원 체육학부 교수는 "서양의 유산소 운동은 운동 후 복식호흡의 효과를 이끌어 내지만, 절 운동은 운동시 복식호흡이 함께 이뤄져 짧은 시간 동안 심신의 안정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절을 행할 때 행해지는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심신의 안정도 준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프로그램에서는 절 운동시 뇌파 및 심전도와 적외선 체열측정 등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절의 다양한 운동적 효과에 대해 낱낱이 보여준다.

김주일 기자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㉔유점사 식해

흔히 '식해'라고 하면 가자미식해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다양한 재료로 식해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저는 불가에 입문한 후 노스님들께 도라지 뿌리나 더덕, 연근, 우엉, 버섯 등의 식물성 재료로 식해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노스님께 배운 식해 뒷맛이 개운해
맥이 끊긴 도라지 식해 너무 반가워

제가 노스님께 배운 식해는 맛이 무척 깔끔하고 향기로울 뿐만 아니라 뒷맛이 개운합니다. 게다가 발효음식에서 느끼는 중독성 또한 강한 편이라, 한 번 먹고 나면 또 먹고 싶고 입맛이 없을 때면 꼭 생각나는 음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민간의 식해는 육식보다는 생선이나 오징어, 조개류 정도가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찰음식으로 전해오는 식해는 도라지나 버섯 등이 있는데, 실제 절에서 만들어 먹는 예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사찰식해에 대해 아는 사람도 거의 만나보지 못했기에 왜 사찰식해의 맥이 끊겨 가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식해는 아무래도 북쪽 사찰에서 주로 해먹다보니 우리 사찰에서는 보기 힘들다는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450년 경 전순의라는 분이 쓴 <산가요록> 이라는 책을 궁중음식 전문가 한복려씨가 찾아내 번역한 것입니다.

이 책 164페이지에 '도라지식해' 만드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한복려씨의 번역에 따르면 당시에는 도라지식해를 해 먹었으나, 지금은 맥이 끊어져 해먹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맥이 끊어질뻔한 것을 제가 이어가고 있다는 자부심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유점사에서 전해오는 식해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점사 식해 재료 : 도라지, 우엉, 무, 무청, 메좁쌀, 고춧가루, 엿기름, 소금, 깨소금, 생강

만드는 법

1. 도라지는 껍질을 벗기고 3cm 길이로 먹기 좋게 채썬다.
2. 우엉은 3mm 두께, 1cm 넓이로 채썬다.
3. 무도 도라지와 같은 크기로 채썰고, 무청은 3cm 길이로 썬다.
4. 좁쌀은 씻어서 한시간 쯤 물에 담갔다가 시루에 찐 후 식힌다.
5. 엿기름은 체로 치고, 생강은 절구에 찧어 둔다. 깨는 볶아둔다.
6. 1~4의 재료에 고춧가루를 넣고 골고루 버무린 다음 30분 정도 둔다.
7. 좁쌀 식힌 것과 소금, 생강, 깨를 같이 넣고 버무린 후 엿기름을 넣고 다시 한 번 버무린다.
8. 항아리에 담아 실내 상온에서 5일 정도 두면 맛있게 익는다. 겨울처럼 온도가 낮을 때는 1주일 정도 둔다. 보관은 냉장고에 한다.

謹賀新年 2008년 戊子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佛紀 2552年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산 동화사
조실 진제 법원
주지 남명 허운
부주지 성수

노전 기함 금당선원 선원장 지환
총무 홍관 강원 강주 지운
교무 각만
재무 법진 신도회 회장 김석순
사회 법인
포교 승석
호법 도견 사부대중일동
도감 중현
원주 선일


통일대불

http://www.donghwasa.net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TEL 053)982-0101~2 FAX 053)985-4405

한국 대승 불교 조계종

종정 김봉진 원로원장 관능
총무원장 윤화봉 총무국장 운고

경남종무원 약산 종회의원 신재
경북종무원 지명 종회의원 서암
부산시종무원 무원 종회의원 덕산
울산시종무원 혜관 종회의원 사우
양산시종무원 학성 종회의원 만능
대구시종무원 운성 종회의원 각성
광주시종무원 법장 종회의원 명재
밀양시종무원 정암 종회의원 운암
진주시종무원 영운 종회의원 덕재
포항시종무원 성재 교육원장 금봉
강원도종무원 해운 교육부원장 혜능
경기도종무원 총해 비구니총무 용주

■ 총본산 불국사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1105번지 TEL 055)521-1236 H·P 011-9528-4026
주지실 055)521-1286 / 총무원 055)351-0562 / 휴대폰 010-8331-0320

대한불교조계종
매봉산 고성사
주지 고성
■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755 TEL 054)977-0962

대한불교전통조계종
팔공산 봉경사
주지 아산 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산183 TEL 053)857-5686

대한불교조동종주석사찰
부원장석 본사
주지 통원 행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240-1 TEL 031)573-4848

대한불교조동종주석사찰
규정국장 정 본사
주지 원광 행광
■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산 281-1번지 TEL 033)636-4627

오늘의 禪語

② 선(禪)과 알음알이

경전은 깨달음을 방해하는 적?

참선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책을 읽지 말라' '경전을 보지 말라' 또는 '아는 것이 많으면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경전이나 책, 학문, 지식 등은 모두 알음알이(분별심)와 함께 '깨달음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인지? 그 까닭은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 책이나 경전은 모두가 부처님 말씀과 사상을 전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불자로 하여금 불교와 깨달음으로 입문하게 하며, 마음의 양식과 인격을 갖추게 하는 지혜의 보고(寶庫)입니다. 만일 책과 경전이 없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론 선(禪)도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에서는 책이나 경전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좀 지나치게 표현한다면 경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 알음알이(사량심, 분별심, 분석적 사고 등)인데, 이것을 양성하고 있는 매체가 다름 아닌 책이나 경전, 학문, 지식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책이나 경전, 학문, 지식 등은 모두 깨달음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알음알이를 생산하는 지식공장이나 정신집중을 분산시키는 존재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선의 입장을 벗어나서 불교 일반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자에게 있어서 참선을 포함한 모든 수행방법은 생면부지의 낯선 땅을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으로 이정표가 필요함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책이나 경전, 학문, 지식 등은 모두 지도나 이정표 같은 존재입니다. 낯선 곳을 가는 자에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의 입장은 수행에 있어 지식·학문적 접근 경계
지식 바탕으로 실제적 탐구 통해 깨달음 체득해야

수행자로서 경전이나 책을 도외시하면 첫째는 무지(無智)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는 탐(貪), 진(瞋), 치(痴, 어리석음, 무지) 삼독 가운데 하나로 깨달음을 가로막는 존재입니다. 또 중생은 무지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괴로움을 반복하게 되는데, 책을 경시한다면 결국 무지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참선을 하다가 분별심에 빠지거나 상기병(만성 두통), 관절염 등에 걸리거나, 바깥일이 훤히 보이거나, 칼을 든 신장이 보이는 등 환영(幻影), 환청(幻聽)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가 참선수행의 정도를 따르지 않은 결과로써, 이것은 선에 대한 지식적 바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환영과 환청은 특히 주의해야 할 선병(禪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이것이 깨닫게 되는 징조인 줄 착각하여 "나에겐 왜 그런 것이 없나"하고 고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덤벼들면 현재 자기의 수행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이나 화두 참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뒤에 시작해야 합니다. 최소한 '선이란 무엇인가?' '화두란 무엇인가?' '화두의 역할' '화두 참구법' '화두를 드는 목적' 등은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금방 깨달을 것 같지만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평생을 공부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몇 년 참선했다는 관록과 커리어로 자부심을 삼고 삽니다.

앉아서 열심히 화두를 참구할 적에는 경전이나 책을 볼 필요가 없지만 기타 시간에는 선에 대한 경전이나 훌륭한 선어록을 참고하여 안목을 넓히면 더 빨리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알음알이만 주의하면 될 일이지, 구더기 무서워 장까지 담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보조 국사나 나옹, 서산, 경허, 한암 선사 같은 분들도 많은 책을(특히 경전과 선어록) 읽었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선승 조주, 마조, 황벽, 임제, 그리고 특히 간화선을 대성시킨 대혜 스님과 그의 스승 원오극근도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많은 책을 읽으신 어른이십니다. <백일법문> 등 그 분의 저서를 읽어본다면 대단히 박학다식합니다. 역사상 저명했던 선승들은 모두 교리적 학문적으로 탄탄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중국의 선원에서는 참선과 간경(看經, 경전 강의)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오후에는 항상 1~2시간 정도 <능가경>이나 <금강경> 또는 <육조단경>이나 <임제록> 등 어록을 강의했습니다. 물론 강의는 조실스님이나 방장스님이 합니다. 백양사 고불총림의 방장이셨던 서옹 스님께서도 하안거 결제 때에는 꼭 <임제록> <벽암록> 등 어록을 강의하셨습니다. 선원에서 참선과 함께 어록 강의는 필수적입니다.

선원에서 '책을 읽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책의 해석에 빠져서 실제적인 수행을 게을리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식적,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이해한 것을 가지고 다 알았다고 착각하거나, 그것을 깨달음으로 오인하여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적, 학문적인 앎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적 탐구(수행)를 통하여 체득한다면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팔정도 닦아 '윤회의 굴레' 벗다

❷ 아라한이 된 최초의 비구니 마하파자파티 고타미

"세존이시여, '여성도 거룩한 가르침을 따라 힘써 수행하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세존께서 설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난아, 여래는 그렇게 설하였느니라."

"그러시다면, 어찌하여 고타미 부인의 출가를 승낙하지 않으시나이까? 지금 부인과 많은 석가족 여인들이 강당 밖에 와 있습니다."

"여성들이 출가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석가족 부인들의 믿음이 그와 같이 굳건하다면, 어찌 출가를 승낙하지 아니하랴."

곧 고타미와 많은 석가족 여인들이 들어와 세존의 발에 예배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왔구나, 비구니들이여."

야소다라 부인도 함께 출가하였다. 마하파자파티 고타미 비구니는 머지않아 아라한이 되었다. 고타미 장로니(長老尼: 원로 비구니)는 <장로니게>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여덟가지 바른 길 실천하며 정진
괴로움의 원인인 망집 소멸 실현

"나는 모든 괴로움 널리 살펴 끊고, 괴로움의 원인인 망집(妄執)을 떨쳐내고, 여덟 가지 바른 길(八正道)을 실천하여, 망집의 소멸을 실현하였습니다.…이것은 나의 최후의 몸입니다. 나는 태어남을 되풀이하는 윤회를 다 멸해 다시 미혹의 생존을 계속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애도비구니경>과 <비구니건도> 등에 따르면,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모(養母)인 고타미 왕후는 최초의 비구니로서 아라한이 된 분이다. 고타미 장로니는 괴로움의 원인인 망령된 집착을 없애 윤회의 속박, 미혹으로 얽힌 생존의 굴레를 벗어난 것은 팔정도의 실천으로 가능했음을 밝히고 있다.

불자라면 누구나 해탈에 이르는 여덟 가지 바른 길인 팔정도 즉, ①바른 이해(正見) ②바른 생각(正思惟: 또는 의도) ③바른 말(正語) ④바른 행위(正業) ⑤바른 삶(正命) ⑥바른 노력(正精進) ⑦바른 기억(正念: 또는 마음챙김, 알아차림) ⑧바른 집중(正定)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일상 속의 수행방편으로 여겨서 그대로 정진하는 불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팔정도를 단순한 교리로만 이해하고, 거기에 숨은 귀중한 수행의 원리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고타마 장로니는 분명히 팔정도에 의해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

팔정도는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는 성스러운 진리'로서, 고집멸도(苦集滅道)의 4성제(聖諦)중 도성제(道聖諦)에 해당한다. 팔정도는 양 극단(쾌락·고행)을 버리고 여덟 가지 중도(中道)수행으로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 이 깨달음의 길은, 이미 계(戒)의 바탕위에서 정(定)이 성립되고 그 다음 혜(慧)가 완성되는 계정혜 3학의 세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즉 '계'의 항목은 정어·정업·정명이며, '정'의 항목은 정정진·정념·정정이며, '혜'의 항목은 정견·정사유이다. 팔정도에 대한 부처님의 법문 가운데, 가장 수행법과 관련이 깊은 정념, 정정에 대해 직접 들어보자.

"어떤 것이 '바른 마음챙김(正念)'인가. 진리를 수순(隨順)하는 생각이니 헛되고 망령되지 않는 것이다. 몸에서는 몸을 전심전력으로 알아차려서 분명한 앎으로 계속 관찰한다. 그리하여 마음챙김 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탐욕과 근심을 버린다. 어떤 것이 '바른 선정인가(正定)'인가. 마음을 어지럽지 않은 곳에 머물러 두고 굳게 거두어 가져, 고요히 삼매(三昧)에 든 한 마음이다."(잡아함, 사정경(邪正經))

이와 같이 불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일체를 분별심과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을 바탕으로 계율, 선정, 지혜를 닦는 중도수행이 팔정도이다. 초기불교 수행의 핵심인 팔정도는 대·소승의 모든 수행의 원리를 담고 있기에, 간화선과 염불, 위빠사나 등 그 어떤 방편으로 공부하든 잊지 말아야 할 수행원칙이 아닐 수 없다.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hanmail.net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12

신행게시판

●**조계사 일요기획법회**=서울 조계사가 1월 13일부터 시작한 일요기획법회가 호응을 얻고 있다. 3월 30일까지 진행될 일요기획법회 '아름다운 자비실천 보살행 법회'는 불교의 자비정신을 토대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아름다운 분들의 법문을 통해 탐욕심을 덜어내고 아름다운 회향을 하고자 기획됐다. 1월 20일 '지구촌을 위한 보살행'을 주제로 수원사 주지 성관 스님이 법문한다. 27일 송광사 율원장 지현 스님이 '아동을 위한 보살행'을 법문할 예정이다. (02)735-2115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제2기 불교영어 기초과정**=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제2기 불교영어 기초과정(The 2th Buddhish-English Basic Course Open)을 개설했다. 올해 1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열리는 제2기 불교영어 기초과정은 'The Life of Buddha' 'Buddhist Rerms & Doctrines' 등을 강의한다. 우리말과 영어로 동시설명하며 강의가 진행된다. (053)474-8228

●**월정사성보박물관 문화대학 4기**=평창 월정사성보박물관(관장 정념)이 2008년 문화대학 4기생을 모집한다. 불교문화에 대한 이론 강의와 현장답사를 겸한 강좌가 월2회 개최된다. 월정사성보박물관의 문화대학은 20세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교문화와 우리역사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준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이다. 모집인원은 30명, 3월에 개강해 12월까지 강의가 진행된다. 원서접수 및 등록은 3월초까지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수강신청서와 증명사진 2매이고 수강료는 30만원이다. (033)334-1817

●**육지장사 입춘 21일 기도**= 양주 육지장사가 입춘(立春)을 맞아 21일 동안 기도를 봉행한다.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입제해 2월 4일 저녁 8시에 회향한다. 입춘기도란 새해에도 모든 재앙, 재난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불보살님께 기도드리는 것이다. 설판제자는 공양미 1가마, 일반동참금은 7만원이다. (031)871-0101

사찰공양실 고급수저 공장도가 시판!
불자용 명품수저 DANI 공장도가 Set 당 1,000원씩 공급



사찰공양실 보시로 품격!! 불자가정 새해 선물로 최고!!

국내주방용품 생산메이커인 (주)신도스텐에서 사찰 공양실과 불자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큰호응을 얻고 있다.

명품브랜드인 DANI 로 국내주방용품을 석권하고 있는 신도스텐 대표 최성욱은 사찰에 갈때마다 공양실에서 나오는 수저가 일반식당에서 나오는 저품격 수저와 같아 사찰공양실이 아닌 세상식당에서 먹는것과같은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명품DANI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공장도 가격에 공급한다고 했다. 명품수저"다니"는 일반수저와 달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의료기 만드는 최고급 스텐레스로 제작되었으며 수저 손잡이 상단에는 막힘없는 불사 성공과 불자들의 건강장수를 위해 "반장"을 넣고 수저중간에는 사찰과 불자가정의 비상을 기원하는 뜻에서 "학2마리"가 비상을 하며 손잡이 하단에는 공양하는 불자님들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게 육자대명왕진언"옴"자를 넣어 고급스럽고 품격있게 제작되어 있다. 명품:다니"일반수저는 백화점에서 Set에 3,500원씩 판매되고 있으나 사찰과 불자님께는 보시하는 마음으로 1,000원씩 공급하고 있어 사찰공양실과 불자가정의 뜻깊은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있다. 명품수저DANI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20Set 선물용 20,000원과,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게 50Set 50,000원, 100Set 100,000원 등 3가지로 포장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02)741-4477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무자년 소원 성취 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가족 친지에게 새해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새해 소원성취의 선물!

2008년 쥐띠 무자년은 12지신중 첫번째로 앞으로 12년을 새로이 시작하는 첫해다. 재운이 없는 지갑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이 시작할 시점이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의 신통한 종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게 영험을 발하게 하는 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지갑이다. 또한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어려웠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부동산이 쉽게 팔리고 생각지도 않던 좋은 일들이 만들어 지는등 영험의 지갑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

신용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2008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 막아!!
닥쳐올 화를 미리 쫓는 삼고금강저


※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뜻깊은 삼재소멸 선물로 품격이 있습니다.

2007년에 드는 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9년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살아야 하므로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벌리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 세상 각종 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 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순금금니로 제작하여 가방 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가 끝나는 2009년 말일 삼고금강저를 기도한 후 땅속에 묻으면 삼재는 모두 끝난다. 삼재소멸 불공을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드린다. 가격:35,000원 (가로5cm폭2cm)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진정 행복성취를 원하면 이 순간 스스로를 경영하라”

함께가요~ 강의실로!

‘올해는 나도 잘 나가보고 싶다.’ 대박을 꿈꾸는 것은 착각이라 할지라도 새해 시작 무렵이면 저마다 가슴에 지녀봄직한 설레임의 특권이다. 언제부터인가 인간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가 되어버린 성공이나 행복이라는 추상명사들을 누군가 속 시원히 갈무리해줬으면 하는 바람 또한 없지 않다. 영혼을 담보로 ‘네가 진정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는 메피스토의 유혹마저 그리워지는 시대. 한해를 시작하며 ‘새해설계와 자기경영’ 비법을 전수받는 자리가 마련됐다. 2007년 한국출판시장에서 자기계발이란 주제로 출간된 서적이 4000여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1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나이와 직업 그리고 성별을 지닌 이들로 푸른 좌복이 깔린 강의실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자리한 김용진(45 · 한솔그룹 경영기획실 부장)씨는 “아들이 중 ·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100%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을 설계했으면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스로 시간의 가치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참가 동기를 밝혔다.

강 사	손기원 지혜경영연구소 대표
주 최	지혜경영연구소 www.onwisdom.com
일 시	2008년 1월 5일
장 소	지혜경영연구소 세미나실



2007년 새해설계와 자기경영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아닌 앞으로 살아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인식의 눈을 통해 확인하는 순간. “현재의 나를 상상하십시오. 나는 지금 잘 진행 중입니까. 서서히 남은 인생이 보일 것입니다.” 사실은 막연한 미래가 보였다. 그동안 눈앞의 일에만 얽매이며 살아온 까닭이다. “우리는 잘못된 익숙함에 습(習)이 들어버린 이후부터 미래를 위하여 현재는 당연히 희생돼야 한다고 여기게 됐습니다.”

“현재 당신은 진정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나를 되돌아 봤을 때 지나온 삶의 궤적들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스스로를 향해 마구 쏟아지는 물음은 형체 없는 엄포처럼 느껴진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손기원 대표는 <지혜인 자기경영 다이어리>를 펼쳐보라 권했다. 드디어 실패를 최대한 줄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법의 노하우가 전수되기 시작한다. 지혜인 손기원 대표가 전하는 인생설계의 마스터 플랜은 다음과 같다.



손기원 지혜경영연구소 대표의 강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뜨거운 열기속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미 ‘지혜사회(wisdom society)’는 도래했다.
인생은 성공 곡선(success curve)이 아닌 행복 곡선(happiness curve)으로 전환돼야 한다.
현재를 즐기며 현재의식을 깨우는 트레이닝을 하라.
서서히 미래가 열리니, 그 시작의 중요함은 방향성이다.
목숨을 잃는다 해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핵심 가치를 하나 세워라.
순간의 느낌을 관찰하고 명상으로 내면의 에너지를 확장하라.

하나. ‘생(生)’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굳이 밝히지 말기로 하지요. ‘살다’라고 하는 나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다’라고 하는 늘 새로워지는 의미가 있지요. ‘낳다’라고 하는 생산적 활동의 종사에 관한 의미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상 3가지 ‘生’의 의미 중 어떠한 ‘生’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生’은 최종적으로 ‘살리다’를 통해 완성되고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점입니다. 행복을 꿈꾸기만 했지 왜 행복이 실현되지 않는지 궁금했던 이들의 공통분모는 이 네 가지 모두가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돕고자 하는 의지는 더욱 취약합니다.

진정한 ‘生’이란 공존과 상생을 통한 대화입니다. 이것으로 ‘生’의 의미를 알게 되니 이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난 내가 되는 것입니다. ‘生’의 방식은 멈춤과 전진의 때를 바르게 앎입니다. 의미 있는 일에 의식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生’의 네 가지 의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일이니 즉각 중단하십시오.

둘. 월별 명상테마를 통해 나를 깨우십시오. 1월은 해오름달입니다. 내면에너지인 희망을 통해 관계에너지인 진심의 축복을 나눠봅시다. 인간은 공기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나눔으로서 주변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발산됩니다. 점차 관계에너지가 강화될 것입니다. 서로를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절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로지 호흡에 집중하되 그 흐름을 느껴보세요. 반가부좌의 자세에서 양쪽 무릎에 손을 얹고 편안함이 연상되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산란함은 평정심을 되찾게 되고 깊어져가는 호흡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를 되뇌어 봅니다.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특정느낌은 다이어리에 하루 3회 정도 기록해 봅니다.

셋. 목표의 설정과 달성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나와 가정과 사회활동은 구분하여 정리되도록 합니다. 계획(Plan)-실천(Do)-점검(Check)-반영(Feedback)의 구조로 반복합니다. 이 모든 것의 기반에는 명상이 있고 명상으로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지혜인이 되는 일곱 단계(7Step)는 지혜인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tep1. 있는 그대로 보라.
Step2. 목적지에서 길을 밝혀라.
Step3. 세상만물에 감사하라.
Step4. 명상으로 나를 깨우라.
Step5. 과거의 나와 결별하라.
Step6. 일상의 혁신을 실천하라.
Step7. 매일 새로운 나를 만나라.

명상으로 열리는 행복의 문

순간의 깨어있음을 자각해 지혜인이 되면 그 순간이 바로 기한관리와 현재경영 그리고 인생경영의 트라이앵글이 하나 된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존재의 계속된 점검은 <지혜인 자기경영 다이어리>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행복은 착각이 아닌 현실입니다. 명상이란 대단하거나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본성을 보는 것입니다. 본성이란 ‘생(生)’에 마음(心)이 결합된 것이며 그것 자체가 바로 지혜입니다. 본성을 관찰해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명상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존재를 발견했다면 주저 말고 구체적인 실현계획서에 기록합시다.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thing like this would happen)’는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기록된 ‘나 역시(me too)’가 되고 싶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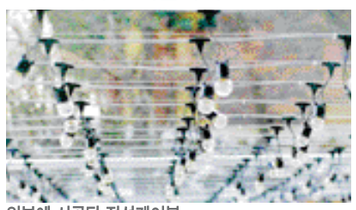
진정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자기경영은 필수입니다. 자기경영을 실천하는 도구로 자신만의 ‘알아차림 다이어리’를 지닐 수 있어야 지혜의 문이 열리고 지혜인이 됩니다. 인간 내면에 무한한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바로 ‘Do it(실행)’하는 지금, 당신은 깨어있을 것이고 지혜사회를 경영하는 지혜인이 됩니다.

글 · 사진=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hanmail.net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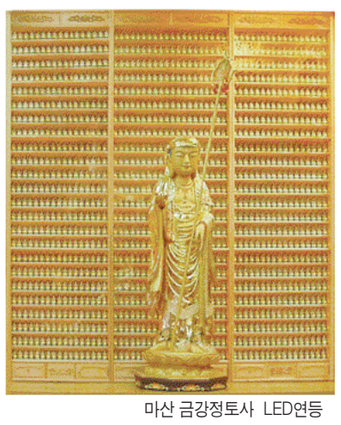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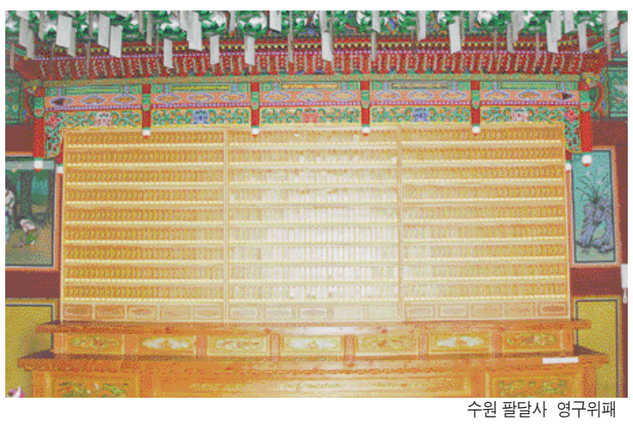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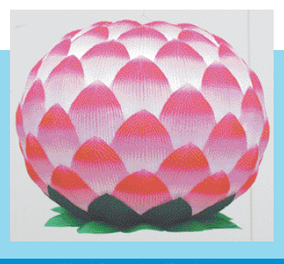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연등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 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 법륜사 법당


남양주 영도암 인등


군산상주사 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생활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목표를 둬야!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문 학교에서는 지수화풍으로부터 끝없는 진화와 발전을 통해서 지금의 인류가 생겼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지수화풍을 하느님이 만드셨고 인간마저도 하루아침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의 반 아이들 대부분이 교회에 다닙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 줘야 아이들이 수긍을 할 수 있고 부처님 가르침에도 어긋나지 않을는지요?

답 처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말입니다, 생각해서 아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이 지(地) 수(水) 화(化) 풍(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수화풍의 성질과 자기 무전자의 그 독특한 맛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만 살아 있다 뿐이지 모든 게 지수화풍이 움죽거리지 않고 침체돼 있는 상태에선 아마 암흑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수화풍이 제각기 살아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너는 너고 나는 나지만 서로 공존해서 우리 어떠한 걸 세우자고 예를 들어서 했다면, 그렇게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지니까 지수화풍은 없어지고 말입니다, '공기'로서의 능력이 발생하게 됐던 거죠.

'공기'라는 그 뜻은 뭐냐 하면 천체를 말하고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별적인 하나 같으면 그냥 능력이라고 해 뒀으면 좋겠는데 왜 '공기'라고 했을까 이겁니다. 모든 뭇 생명들을 소생케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공기'라고 했던 거죠. 그 후에 이름을 지어서 붙였겠죠.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이름도 없이 그것으로써 무전자의 집단체를 이루었던 거죠. 무전자라 하면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서 '공기'로서 전체 아니 닿는 데 없이 닿게 되는 향기와 같은, 에너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하여 유전자가 발생된 겁니다.

유전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무전자에서 유전자가 발생될 때는 수많은 그 생명들이 유체로서 보이지 않는 그 유전자의 발생이 온 우주에 확산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로부터 어떠한 것이 형성되었느냐? 유전자로부터 형성된 것이 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별성이 다르고 우리 몸뚱이가 다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별성이요, 그 또한 별성입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차원에서 반짝거리면서 움죽거리는 것을 우리는 무전자에서 유전자가 발생됐다고 말할 수 있죠. 유전자가 모든 생명체들을 소생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전자의 생명에 의해서 그 체가 발생이 됐다면 수많은 별성들의 체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데에도 무슨 청와대가 있으면 국방부도 있고 그렇듯이, 그렇게 별성들이 발생되고 보니까 거기에서는 무전자의 능력으로써 유전자의 묘법으로써 가지각색의 물질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묘법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도 없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즉 말하자면 우리의 선의 혼백이든지 악의 혼백이든지, 혼백을 만약에 유전자라고 한다면 차원에 따라서 그 유전자는 달라지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차원이 낮으면 낮은 유전자가 될 것이고 질이 높으면 높은 대로 유전자의 차원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나투면서 화(化)하면서 그 물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각체 각급의 그 모습은 다를지언정 어떠한 모습으로서 그렇게 발생되는 그 유체들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왔느냐? 별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별은 반드시 북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머리와 두 팔과 두 다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개의 북두칠성이라고 하죠. 그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정부의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치인들로 하여금 모든 이 생명의 즉, 물질로서의 물체들을 생산해 냈던 거죠. 그런데 생산을 해내려 해서 해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면 이렇게 모습이 나오고 저렇게 생각한 거면 저렇게 모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깐 묘하다는 거고 그것이 광대무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보니까 거기에서 또 갈라진 것은 물의 생명도, 흙의 생명도 독특하게 자기의 근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바람도 그런가 하면 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의 원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느냐? 지수풍이 한데 합쳐져서 비벼졌기 때문에 거기서 불이 일어난 거죠. 즉 말하자면 우리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질척질척한 거와 같이 갖다 넣었더니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가스가 생기듯이 말입니다. 그 뜨거운 거기에서 아늑함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생명체가 일어나는 거죠. 그와 같이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광대무변하게 생명과 더불어 물질이 생기진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그걸로부터 여러 가지로 독특하게 물에서 사는 거는 물의 성질을 따르게 됐고 흙에서 사는 거는 흙의 성질을 따르게 됐고, 또 화(化)해서 사는 생명은 화생으로서의 독특한 가짐가짐을 가지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중의 생명들, 그 유전자가 암흑 속의 반딧불처럼 반짝거리면서 집단을 이룬 것도 역시 바람의 성질을 아주 독특하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독특한 맛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로부터 났느냐 하는 것도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원숭이로부터 됐다는 사람, 곰으로부터 됐다는 사람, 공룡으로부터 됐다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에 한군데로 규정될 수가 없는 것이 자기의 그 유전자의 진화력에 의해서 자꾸 구르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진화력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만 독특한 물의 생명의 그 근원을 가지고 있고 흙의 근원을 가지고 있고 바람의 근원을 가지고 있고 그 화함의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독특한 자기의 본성은 그대로 집착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비유해서 우리가 김가면 김가다라는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가를 벗어나지 못하듯이, 그렇게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각종 각체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림 · 최주현

그런데 각종 각체들이 벌어지면서, 물에서 진화돼서 나온 것도 인간으로 됐고 흙에서도 인간이 됐고, 화해서 난 것이 전부 억겁을 거쳐 오면서 진화해서 동물로 인간으로, 즉 말하자면 고등 동물까지 진화해서 올라왔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많은 진화의 모습을 각각 가졌으니 마음도 각각이요, 몸도 모습도 각각인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모습이 나와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연쇄적으로 진화해서 올라오는 그 자체를 현재에 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올라온 것이, 바로 지금도 그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개구리대로 그냥 있는 것은 아닙니다. 뱀이 뱀대로 그냥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도 고정됨이 없다는 얘기죠. 인간도 인간대로 고정됨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그렇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가 생각해서 진화하는 그 잠재의식에 의해서만이 자기 물질을, 자기 형상을 그대로 자아낼 수 있다는 그런 각자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키워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데…

문 이런 질문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큰 고민이기에 송구함을 무릅쓰고 질문을 올립니다. 스님, 저의 남편은 제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을 해 주는데도 당연한 것으로만 알고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랑이 부족해서인지요, 아니면 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지요?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답 우리가 돈을 내지 않고 사지 않고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니까 아주 값싸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써 공생 · 공용 · 공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심으로서 공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체로서 이렇게 일체 만물이 생기고 만생이 이렇게 같이 융합해서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나, 내가, 내가 줬고, 내가 망했고, 또는 내가 가졌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항상 그 껍질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습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욕심은 뗄 수가 없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자기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데 모든 게 자기는 관리인밖에 안 되는데, 자기 겁니까? 돌고 도는 것인데! 돈도 자기 것만이 아닙니다.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관리인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자기 거라고 하거든요. 자기 거라고 자꾸 독재를 쓰니까 돈은 생각을 할 때 '흥! 네 거라고? 좋아하네.' 그러고선 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해 주면 '아! 여기 가면 관리를 잘해 줘. 그러니까 내가 가야지.' 하고서 스스로 돈이 들어오는 거지 돈도 달아난 거를 쫓아가고 내 거라고 쫓아간다면 한없이 달아나갑니다.

가난도 불을 데가 없어서 주인공에다 맡겨서 다 일임해 버린다면 '어어, 내가 이거 정말 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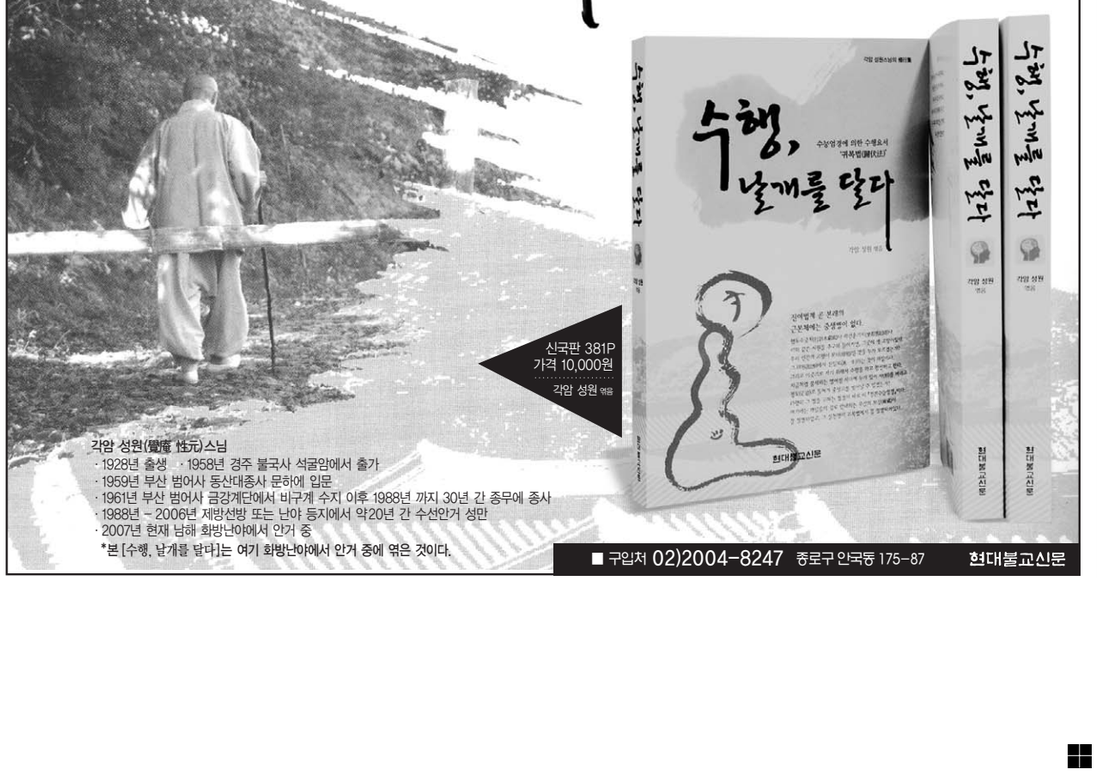
☞20면으로 계속

수행, 날개를 달다

이 몸을 선창에 맡긴지 50여 추
어느덧 나도 모르게 백발이 성성해졌네.
돌아다보니 구하고 채우고에 동분서주하느라
발밑도 못 밝히고 심전(心田)에 여수(旅愁)만 더 했네.
이제 겨우 철들어 서둘러 병촉을 들었으나
가을이 다 갔는데 잔화가 난만한들 얼마나 견디겠나?
고요한 밤이면 깊은 생각에 더욱 잠 못 이루는
누가 있어 뼛속을 파고드는 이 통한을 알겠는가?

내 이제 몸을 태산처럼 하여 일체의 왕래를 끊고
날마다 청계에 나가 숙진을 씻어 내면서
눈,귀,입 막는 그러한 수행으로 잔년을 다스려서
빈 배로 소요하는 이런 것으로 선락을 삼을 것이다.

- 본문중에서



신국판 381P
가격 10,000원
각암 성원 엮음

각암 성원(覺庵 性元)스님
· 1928년 출생 · 1958년 경주 불국사 석굴암에서 출가
· 1959년 부산 범어사 동산대종사 문하에 입문
· 1961년 부산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 수지 이후 1988년 까지 30년 간 종무에 종사
· 1988년 – 2006년 제방선방 또는 난야 등지에서 약20년 간 수선안거 성만
· 2007년 현재 남해 화방난야에서 안거 중
*본 [수행, 날개를 달다]는 여기 화방난야에서 안거 중에 엮은 것이다.

■ 구입처 02)2004-8247 종로구 안국동 175-87 현대불교신문

화제의 신간

天機秘傳
2008년 戊子年 목자년
핵심 택일지

365일 매일 한장씩 한눈에 훤히 볼 수있는
상담자가 왜왔는지 한눈에 꿰뚫어 볼수있는
특수래정비법 공개 ···.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핵심 인연래정비법에 대하여
당일 찾아온 사람의 마음을 꿰뚫기
그 사람의 현재 마음과 運을 짚어보는 법

- 매일운세 吉凶판단법
- 당일 일상행사 길흉표
- 자신의 재수대통 방향자리
- 결혼 약혼 택일법
- 장례행사 이장의 길흉표
- 日辰法 보는 조견표
- 建除十二神 정국도와해설
- 임신한 아기 男女건강법
- 상담자 吉凶 來占法
- 당일 불공, 고사, 기복법
- 이사방위 길흉표
- 건축,상량,개업일 판단법
- 月日辰 해당 身殺조견표
- 二十八宿 정국도와 해설
- 황흑도 길흉표와 해설
- 생기복덕 길흉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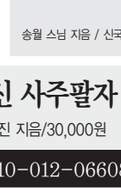
전국 서점 판매중!

지금 바로 펼쳐보십시오!

국8절판 / 백초스님 편저 / 2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 을 치르고 주택 을 사고 주식 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50,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사주명리 한방처방학
4×6배판/徐昇煥지음/양장본 I 권880쪽, II 권680쪽/각 권 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일체 살아나가는 생활이 그대로 심성과학이며 도며 진리!

☞19면에서 계속

를 갚으려고, 저 속을 썩이려고 이렇게 나왔더니저, 저기 씻은 듯 부신 듯 하니까 에이, 이거 뭐 안 되겠어!' 그러고서는 달리 생각을 하고, 그 착한 마음과 더불어 자기도 그 뜻을 알고서 착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망상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녹이라는 겁니다. 놔서 녹이라는 거지 끊을 게 어디 있습니까? 망상이 없다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으니 망상을 끊는 게 아니라 녹이는 것이고 한마음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한마음으로 굴리고 돌리고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저놈, 조거, 너!' 이렇게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너, 두고 보자. 들어오기만 해 봐라.' 하고 있어 보십시오. 들어오면 엉뚱하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야! 뭐!" 그러고 꽥꽥 악을 쓰고 외려 한 술 더 뜹니다. 그러니깐 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화목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로 본다면, 자기와 같이만 본다면 자비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의리도 나오고 도의도 나오고, 거기에서는 무궁무진하게 자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비가 그게 향기와 같이 거기까지 바로 풍겨서 에너지와 같이 거기에 바로 여러분이 공생을 하고 있으니까 공심으로 공용을 하고 있고 공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고 옴이 없이 그 마음의 향기에너지는 거기까지도 다 밝아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 외려 들어오기도 전에 바깥에서는 '아, 이거 미안한데!' 하고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여보! 나 참 미안했어!" 하고서 이런 말 한마디를 들을 때 그냥 겨울에 고드름이 그냥 녹아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녹아떨어지죠. 그러한 마음이 녹아떨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장본인입니다.

사랑을 주는 거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도 주기만 하면 언젠가는 받게끔 돼 있으니깐요. 내가 해 놓은 거 어디 가겠습니까? 나쁜 일을 해 놨어도 나한테 올 것이고 좋은 일을 해 놨어도 나한테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준다면, 자비롭게 의리를 도모하고 참 그렇게 믿는 데에 인내가 있다면, 물러서지 않는다면 모두가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사랑하고 또 화목하게 이렇게 생활이 진행돼 나가는 것입니다.

위패와 천혼문에 대해서

문 스님, 올 한 해에도 강건하시어 이 어두운 미망의 사바세계에 지혜의 깨달음을 널리 펼쳐 주시기를 발원합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절에서 천도재를 지낼 때 영단에 위패를 해서 올리고 천혼문을 읽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위패와 천혼문을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제사를 지낼 때 위패와 천혼문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 여러분이 제사를 지낼 때 위패를 해 놓고 영가를 청하고 그러죠? 건더기가 없으면 영가가 어디 붙을 자리가 없어서 못하니까 위패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도 이 모습이 없으면 나 자신의 자성신(自性神)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거죠. 있다 할지라도 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도 내 주인공에다 모든 조상들을 모셔 놓고 그렇게 거기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수십 명의 영령들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 소립니다. 두드러지지 않으니까 그 세계의 영령들이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아, 세상이 활짝 뚫렸거든요. 세상이 다 터졌어,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현재의 사람이 모두 이 공부를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일체제불의 마음과, 일체 중생이 둘이 아니게 그냥 탁탁 곳곳마다 통하지 않는 데가 없고 곳곳마다 보이지 않는 데가 없고 아, 탁 뚫렸으니 뭘 바라겠어요, 그 영령들이. 그러니까 모두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서 이 세상 어느 곳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죠.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안다 하면 우리 마음에서 벌써 다 모셨고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놓고서 판결을 한 거죠. 어머니 아버지든 형제든 누구든 이 세상을 놓고 보여 주고 들려 주고 앉혀 주고 하면서 판결을 한 겁니다. 그분한테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하고 덜함도 없이, 배고프다 배고프지 않다가 없이 이렇게, 즉 말하자면 도리천 좌(座)에 전부 한자리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는 반면에 위패는 써 놓되,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거를 새로 또 물 한 그릇 떠 놓은 데다가 사르는 거는 해방을, 즉 말하자면 영혼을 붙들어매 놓지 마라 이런 겁니다. 위패에 붙들어매 놓으면 영혼이 거기에 부착이 돼 가지고 산 사람도 귀찮고 죽은 사람도 귀찮을 겁니다. 또 위패를 해 놓더라도 그렇게 태워야 하고 천혼문을 써 가지고 읽더라도 그 천혼문하고 위패하고 둘 다 다 태워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절에 가 보면 벽면 가득히 위패를 붙여 놓는데 지금 시대에 그게 걸맞습니까? 첫째, 걸맞지 않고 둘째, 또 우리가 고상하지도 못한데다가 영령들을, 조상님들을 모실 때 그것은 모셔서 붙들어매 놓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미국에 부모들을 모셔다가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방에다 가두어 놓고는 그냥그냥 자기네들만 돌아다니는 것과 같이, 조상들을 꼼짝 못하게 위패를 해서 붙여 놓고선 그냥 자유스럽게 나고 들지 못하게끔 해 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찌 조상을 나의 생명과 같이, 내가 또 조상이 되고 자식이 되고 조상이 되고 하는데 거기다 꽁꽁 뭉쳐 놓고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낼 때 부모를 모셔다가 대접하고서 그냥 또 자유스럽게 해드릴 수 있게끔 위패를 태워 드리는 겁니다. 태워 드릴 때도 물을 큰 그릇에 다 떠다 놓고 향 피워 놓고 초 켜 놓고 태워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식들을 가두어 놔도 죽겠느니 살겠느니 하고 비뚜로 나가고 야단들인데 아, 체가 없다고 조상들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즉 조상이고 조상이 즉 우리들이니깐요. 그렇게 해 놓는다면 그 조상들이 빨리빨리, 우리가 개선을 해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거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위패를 꼭 해 놔야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꽃 한 송이라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위패를 해서 써 놓지 않는 대신에 천혼문을 씁니다. 이거는 일체 조상님들 어떠한 분이라도 이게 할아버지의 아들이 있고 아들의 또 아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죄 친지 아닌 게 없으니까 일체를 다 넣어서 나는 덜 먹었다, 나는 왜 안 찾느냐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일체를 넣으면 됩니다. '일체 조상님들 모두 부처님 자리에 한자리를 하시고 이렇게 좋은 데로 한자리를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천혼문을 써서 이렇게 해 드린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리고 주인공에 나중에 다 맡기시면 되고요.

> "모든 것을 자기로 본다면, 자기와 같이만 본다면 거기에서 무궁무진한 자비가 나옵니다!"

또 천도를 시킬 때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그렇고요. 음식을 잘 차려서 이렇게 해 놓는다면 '너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렇게, 쓰고 단 거를 먹어 가면서 고생을 해라.' 하고 묶어 놓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밥 한 그릇 가지고 이 세상 만물만생을 다 먹이고도 밥 한 그릇은 되남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짜고 달고 그런 거, 맛이 없고 있는 거 그런 거를 쭉 차려 놓고선, 자꾸 관습에 얽매이고 집착에 얽매이고 그러게끔 만들어서 오히려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치가 지금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많이 차려 놓고서 그런다면, 그 음식이 맛있고 맛없고 덜 차리고 더 차리고, 이런 데만 집착을 하고 온통 그냥 이집 저집 일가친척으로 다니면서 살아 있는 것처럼 내 말도 듣지도 않고, 내가 와도 본 척 만 척하고 이런다고 사단이 벌어지죠. 그래서 죽은 집에 가서, 죽은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산 걸로 생각을 하고, 거기 어정거리다가 일가친척이 오면 자기를 본체만체했다고 탁 그냥 그럴 수가 있느냐고 떠다박지르면 그게 병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이 마음공부를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생활 자체가 교재고 생활 자체가 바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재료니깐요. 이제 위패도 그, 재(齋) 지내는 거와 결부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나셨지 해롭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나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당시에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게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지금까지도 그냥 여여하게 살아계시고, 죽는다 산다 하는 게 없이 그냥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받아서, 우리가 잘 심사숙고해서 듣고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데에 목표를 둬야 되겠습니다.

물질적인 발전만이 전부가 아닐 텐데…

문 지금의 시대는 물질문명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런만큼 심성에 관한 문제는 너무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폐해도 심각하여 자연훼손은 물론이거니와 인간 정신문명의 피폐함으로 인해 모든 것이 경제적인 논리로만 해석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발전만이 전부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마음을 내야 하는지요?

답 우리는 머리로 물질과학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써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체 만법의 만물만생이 전부 진화해서 고정됨이 없이 모습을 바꿔 감으로 해서 이렇게 광대무변하게 세상이 펼쳐졌다는 것을, 확산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머리로써 돌아가는 이 오신통을 넘어서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오신통 다섯 가지, 이게 지금 세상에 컴퓨터나 모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원한 자기의 무전자의 컴퓨터가 그렇게 무전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의 다섯 가지 요소가 다 자기한테 들어 있는 겁니다. 그건 왜?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진 하나의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바로 그 다섯 가지 요소를 부리고 있습니다.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섯 가지에 말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할 때에 똑똑히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우리 인간이 말리고 있고 자유자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꼭 심부름을 해야만이 컴퓨터가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사기나 천체망원경이나 또는 무전기나 탐지기나 이런 것이 다섯 가지가 다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영원히 이 무전자의 유전자로, 무전자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그 유전자 바로 거기에 공(空)해 있다는 겁니다. 자연이 거기에 공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물질적으로 연구해 낸 겁니다. 연구해 냈어도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건 움죽거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데로 나오는 것, 일체 모든 살아가는 생활이 그대로 심성과학이며 도며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우리가 앞으로 자라나는 애들을 키우면서 그 자라나는 애들이 또 주인이 되면서 일꾼이 되면서,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갖지 않고는 앞으로 더욱 더 힘에 겨운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거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문제겠죠.

여러분도 지금 살아 있으면서 이 도리를 모르고 몸이 있을 때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마 그 잠재의식 속에 들어 있는 대로 팔짝팔짝 뛸 겁니다. 나로서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근중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주간 법계(宇宙間法界)의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앞에 닥쳐오는 문제를, 왜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은 깊이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생각에 가정을 이끌어 나가며, 내 몸을 이끌어 나가며, 사회를 이끌어 나가며, 국가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도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지금 균형을 잡아서 물바람이 칠 때는 바로 물바람으로 막아야 하고 불바람이 칠 때는 불바람으로 막아야 하고, 흙바람이 불 때는 흙바람으로 막아야 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 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잘 이끌어 나가면 보이는 세계로 잘 이끌어지는 그런 도리를 정치하는 사람일수록 잘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 끌고 가면 온 국민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봄과 동시에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자체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 아 래 ◁

1	대령/관욕	17	지장불공	33	아침저녁종성
2	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18	삼대화상중명불공	34	향수해례예불
3	상용영반	19	종사관욕	35	혼자서 하는 민관욕(간단한 관욕)
4	회심곡(화청)1	20	종사영반	36	생일불공
5	회심곡(화청)2	21	가사불사의식	37	상주권공48제의식 1
6	구병시식	22	신중작법39위	38	상주권공48제의식 2
7	관음시식	23	간단한 신중작업	39	상주권공48제의식 3
8	점안의식	24	전통조석예불	40	상주권공48제의식 4
9	방생의식	25	천수경/장엄염불	41	제사불공
10	사물 다루는 법	26	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42	삼신이운
11	안택	27	사시상단불공	43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1
12	시다림	28	작법무(복청게천수)	44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2
13	산신불공	29	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게)	45	화엄시식
14	미타불공	30	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46	약사여래불공
15	신중불공	31	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47	교재2권 100,000원
16	관음불공	32	삼보통청		

제10기 의식대학 교육생을 모집하며, 범패 동계특별교육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 계좌 : 농협 641010-56-000296 (노연숙) ◆ **제품 구입처 : 종무소 ☎ 062)362-8604 / 혜공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학장 혜공 스님**

진정한 은사님처럼 기소와 범패신동의식 교육을 잘 섞어 주는 교육 장소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2008년 제 10기 신입생 및 통신생 모집

◆지원자격 : 스님, 포교사 ,교임법사, 각 종단을 초월하여 절을 이어갈 후계자 (유발자도 가능)

◆과 목 : 범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 안채비 : 각종불공의식, 49재의식, 천도재, 신중작법의식, 각종소, 낭독하는법
- 겉채비 : 바라춤,도량게작법, 다게작법(나비춤), 사물다루는법, 화청(회심곡)

◆과 정 : 2년(4학기)

◆입 학 식 : 2008년 3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통신생 출석교육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 일요일 12시까지

◆상좌 각배교육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1학년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5시 30분까지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759-14(우 502-242)

◆학 장 : 혜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계좌번호 : 농 협 641010-56-000296 (예금주:노연숙)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18>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장 구연(具緣) 끝

아는 것이 많으면 망상도 많아져

세간잡기 멀리하고 출세간 학문까지도 버려야

三息工巧技術緣務 不作世間工匠技術醫方禁呪卜相書數算計等事

세 번째는 세간의 기술적인 일을 쉬어야 한다. 출가인이라면 세간의 기술을 익히지 않아야 하는데, 무술을 배운다든가 기계 조작 등을 연구하는 것을 세간적인 기술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병을 치료한다고 비법을 연구한다든가 사악함을 금지하는 주술을 외워서 병을 치료한다든가 하는 것은 삿된 주술이지 불교의 진실한 가르침이 아니다.

또한 사주와 관상을 보는 등 운명을 점치는 일은 모두가 도업을 방해한다. 재가인이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불교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않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수행인이 이같은 일을 하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오로지 세간적인 욕망만 일어나 도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옛날 큰스님들은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일을 버리면 하나의 망상을 소멸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또 "한 분야의 망상을 제거하면 한 분야의 근본지혜를 증득하게 되고 한 분야의 경계를 제멸하면 한 분야의 법신을 증득한다" 라고 하였다. 이는 광명이 일어나면 어둠이 소멸되고 어둠이 일어나면 광명이 소멸되어 광명과 어둠이 서로 함께 하지 못하는 것과 같고, 물과 불이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치와도 같다.

四息學問緣務 讀誦聽學等悉皆棄捨 此爲息諸緣務

네 번째로 학문에 관한 일을 쉬어야만 한다. 학문의 근본은 지식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므로 박식하게 보고 널리 듣는 것이며 이를 따라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나 이미 불교를 배웠다면 세간의 학문을 멀리 버려야만 한다. 세간의 학문이라는 것은 시나 소설 등 문장 짓는 일과 과학이나 철학 등을 연구하는 모든 것을 포괄해서 하는 말이다.

출세간인이라면 세간의 학문뿐만 아니라 출세간 경전까지도 버려야만 한다. 예를 들면 독송하는 경전이나 논서 혹은 강의를 듣는 것까지도 모두 쉬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세간학문은 유루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버려야겠지만 출세간 학문은 무루무위법으로서 구경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데도 무엇 때문에 세간학문과 똑같이 버려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학문을 공부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견해가 분명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경전강의를 듣고 이치를 밝혀야 하지만 이미 견해가 열린 이후에는 일체 견해를 모두 다 버리고 실제 수행에만 정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행하기가 쉬워 기로에서 헤매는 어리석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수행인이 언어 문자에만 집착하고 진실하게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끝내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세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면치 못한다. 또 그림속의 떡은 주린 배를 채우지 못하는 것과도 같다.

선종에서 오직 화두만 관조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수행에만 전념하는 이유가 일 많은 데서 오는 병통을 면하기 위함 때문이다.

所以者何 若多緣務 則行道事廢 心亂難攝

왜냐하면 일이 많으면 마음이 얽매여 도를 수행하는 일이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아는 것이 많으면 망상도 역시 많아져 마음을 수습하기 힘든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할 점은 경전을 독송하고 강의를 듣는 등 불경을 배우는 일은 멀리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결코 오해해서는 안된다.

도를 깨닫는 법문은 비록 팔만사천 방편문이라고는 하나 그 모두에는 각각 정수행과 보조수행이 있다. 예를 들어 법화경을 독송할 경우 그것 역시 지관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화경 독송이 정수행이 되고 예불 · 참회 등은 보조수행이 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관으로서 정수행을 삼았다면 그 나머지 모든 방편법문은 다 보조수행이 된다. 따라서 정수행을 전일하게 하면서 잡다한 것이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 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第五近善知識 善知識有三 一外護善知識 經營供養 善能將護行人 不相惱亂

이상으로 네 가지 인연에 대한 설명은 끝내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선지식에 대한 인연을 설명하기로 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식은 도를 얻는 전체의 인연이다" 라고 하셨다. 선지식은 일체중생의 병통을 알고 일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까지도 잘 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이른바 병을 알고 약을 알아서 병에 따라서 약을 주는 것과도 같은 이치다. 예를 들면 아사세왕이 기파라는 선지식을 만나서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통렬한 고통으로부터 해탈을 하였는데, 이는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를 의지해서 올바르게 자라는 것과도 같다. 따라서 선지식을 잠시도 떠나서는 안된다.

선지식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호선지식이다. 외호는 '외부에서 옹호한다' 라는 뜻인데, 외면에서 옹호하여 훌륭하게 도업을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후학을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필요한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면서 이들이 수행하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도록 해주어야만 한다.

또 갖가지로 공양을 올리기 때문에 외호를 '경영을 한다' 고 말하기도 하며, 훌륭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 스스로가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역시 타인들까지도 혼란하게 만들지 않는다.

二者同行善知識 共修一道 互相勸發 不相擾亂

다음으로 함께 수행하는 선지식이다. 이는 함께 참여하고 함께 수행하며 함께 공부하고 함께 하나의 도를 닦으면서 피차가 함께 지관을 닦아서로가 서로를 돕고 연마해주고 경책하고 바로잡아주는 도반 같은 선지식을 말한다.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과 같은 의미인데, 이를 두고 옛날 큰 스님들은 말하기를 "스승을 구하는 것이 도반을 구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이는 진실한 말이라고 하겠다.

三者教授善知識 以內外方便禪定法門 示教利喜 略明五種緣務竟

세 번째로 교수선지식은 교도를 하는 스승을 말한다. 이는 교도를 함에 있어서 훌륭한 방편으로 교화하여 내외신심을 조복받고 선정법문을 분명하게 교시하여 수행자가 큰 이익을 얻게 하는 선지식을 말한다. 교수선지식은 오음(五陰)을 타파하고 오탁(五濁)세계를 초월하고 일체마구니 경계까지도 모두 다 명료하게 통달한다.

예를 들면 지자대사께서 법화경을 오묘하게 깨우치자 그의 스승인 남악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아니면 법화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이고, 내가 아니면 그대의 견처를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이것이 바로 선지식의 이익된 처소이다. 이는 "산 아래 길을 알려면 그 길을 지나온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한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다.

총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지관을 닦는다면 외호하고 경책하고 지도해주는 선지식이 가장 요긴하다는 점이다.

이상으로 다섯 가지 종류의 갖추어야 할 인연을 밝히는 일은 모두 끝났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번뇌의 종류-악견(惡見) ②

2) 변집견(邊執見)

모든 유정들은 '아' 와 '아소' 에 대해 굳게 집착하면 바로 그 집착을 따라서 그것은 단멸이다 또는 상주불변이다 하는 두 가지 견해 중 그 어느 한쪽의 편견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단견(斷見)과 상견(常見)중에 어느 한쪽만을 집착하는 견해를 '변집견' 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견해를 한번 일으키면 단상이변(斷常二邊)을 떠난 중도행(中道行)을 장애하여 번뇌생사의 고통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유정들은 그 동안 자신들이 집착했던 '아' 와 '아소유물' 이 어느 일정기간 존재하다가 소멸하게 되면,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단견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같은 견해를 한 번 일으켰다 하면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인과율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무소불위의 악행을 거침없이 자행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모든 악한 견해 가운데서도 특히 이 견해를 주의해야만 합니다.

단견·상견중 어느 한쪽만 집착
단상이변 떠난 중도행 가로막아

다음으로 그 동안 실재라고 집착했던 '아' 와 '아소' 의 모든 사람이나 법은 그 모든 사물들이 어느 일정기간이나마 잠시 머무는 모습을 볼 경우 그것은 영원히 상주불변의 존재라는 상견을 일으키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사물이 잠시 일정기간이나마 실제로 머문다는 견해만 일으킨다 해도 이도 역시 상견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시라도 그것이 실제적인 실체가 있어서 머문다는 생각까지도 이미 상주하여 일정 기간이나마 소멸되지 않는 실제법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선 단멸도 아니고 상주도 아닌 비단비상(非斷非常)을 올바른 중도행이라고 합니다. 중도행은 사성제(四聖諦) 가운데서 도제(道諦)로 수행해 들어갈 수 있는 자만이 그 실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수행인의 궁극적 목표는 단상이견(斷常二見)에 치우치지 않은 중도행의 실천을 통해서 세간인과율인 고제(苦諦)와 집제(集諦)를 끊고 출세간의 인과율인 피안열반으로 들어가 이고득락(離苦得樂)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불열반에 도달할 수 있는 사제중도행(四諦中道行)을 변집견이 가로막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운문승가대학 입학생 모집

본 승가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008년도 신입생 입학 시험 공고

- **자 격** : 1. 2007년 가을 수계자까지
  2. 타 승가대학생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 **모집인원** : 사미니과 00명
- **시험과목** :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 양식)
  2. 은사 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 스님 승려증 사본
  4. 본인 법명 도장 및 반명함판 사진(장삼 만의착용) 2매
  5. 건강진단서 (3차 의료기관 종합병원 · 대학병원 발급用)
  6. 최종학력 증명서
- **준 비 물** : 만의, 장삼, 동방,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볼펜, 화이트)
  (복장은 반드시 사미니 의제 착용, 구족계 수지자는 제외)
- **도착일시** : 2008년 1월 26일(음력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4시까지
- **시험일시** : 2008년 1월 27일(음력 12월 20일 일요일) 오전 7시
- **교 통 편** : 대구남부버스정류장에서 오전 7시~오후 7시 수시운행(운행간격 1시간)
  사전 전화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도착 순서대로 접수)

※ 입학시험 모집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054)372-8800, 370-7100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승가대학 학장 명성

운문승가대학 제44회 졸업식

- **일 시** : 2008년 1월 21일(음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호거산 운문사 대웅보전

졸업인원 : 총 50명

운문승가대학 학장 명성
호거산 운문사 주지 진성 합장

왕실의 권력 다툼에 지아비 무덤 떠나가고…

조선왕릉에서 불교를 읽다 ㉕

중종 1계비 장경왕후 - 희릉

우린 유목민이 아니다. 붙박이 장롱처럼, 태어나서 100 리 밖 세상을 모르고 죽는 이도 있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훈계를 듣고 자랐다. 그래서 정착민의 이사는 괴롭다. 버려야할 것이 무엇이고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지럽다. 걸망 하나 걸머지면 그만인 수행자의 삶이 부럽다. 부럽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무수한 잡동사니 번뇌들과 함께 산다. 도시에 살면서 많게는 수십 차례, 적게는 대여섯 번 이사하지 않은 이가 누가 있으랴. 정들었던 이웃과의 결별도 서운하지만 이삿짐 싸고 풀고 하는 게 가장 싫다. 이사 가는 날, 포장 이삿짐센터에 맡기고 훌쩍 여행을 떠나는 이도 있다.





제향(위), 제향 후 점심을 먹는 후손들(아래).

산 자가 앉은 자리를 옮기는 것도 이런데 하물며 죽은 자가 누운 자리를 옮길 땐 어떨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살아 있는 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무덤이 파헤쳐지고 새로운 땅에 묻힌다. 대권을 잡기 위해 조상묘를 옮겼다는 소문이 지금도 심심찮게 들린다.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뒷얘기도 있다.

희릉은 11대 중종의 제1계비 장경왕후(1491~1515) 윤씨의 능이다. 윤씨는, 원비 단경왕후 신씨가 왕비 자리에 오른 지 7일만에 폐위되자 왕비로 봉해졌다. 윤씨는 8년간 왕비로 있다가 세자(인종)를 낳고 산후병으로 7일만에 승하했다. 춘추 25세였다.

중종과의 금슬도 좋았다. 왕후의 병이 위중하자 왕은 문병을 와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묻자, "은혜 입음이 지극히 크온데 드릴 말씀이 없사옵니다"라고 답하며 눈물만 흘렸다. 다음 날 병이 더욱 심해지자 부축을 받아 글을 써서 왕에게 올렸다. '지난여름 임신 중 꿈에 선인이 나타나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억명(億命)이라 지으라고 했습니다. 벽에 기록해 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종이 벽을 보니 과연 억명이란 글자가 있었다. 장경왕후가 죽자 중종은 특별히 흰 상복을 입고 애통해했다.' (국상을 당해도 왕은 흰 상복을 입지 않는다.) 핏덩이를 두고 떠나는 어미의 비통한 심정을 누가 알까. 장수를 바란 어머니의 간절한 서원도 보람이 없었다. 7일만에 어미를 잃은 아들(인종)은 31세에 죽었다. 인종은 독살되었다는 야사가 파다하다.

장경왕후의 인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왕후는 자애롭고 총명하며 어질고 효성이 깊다. 덕이 후하고 공경하는 성품이 독실하여 왕이 어진 정치를 펼치는데 보탬이 컸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지만 베풀고 보답함을 아끼어 세상에 계신지 겨우 춘추 25세에 돌아가셨으니 이 무슨 이치인가. 그것이 천명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겠노라. 천명이 이렇게도 가혹하고 잔인한가. 아, 애통하도다!"

왕후가 죽자 그날 즉시 좌의정 정광필을 삼도감초호사로 삼아 빈전도감, 국장도감, 산릉도감이 설치되었다. 택지와 풍수도가 올라오자 중종은 자신의 수릉과 더불어 쌍릉터를 원했다. 그래서 헌릉(3대 태종의 능, 서울 서초구 내곡동)이 있는 대모산 아래 능을 조성하고 능호를 희릉이라 했다. 그런데 중종의 사돈이 된 이조판서 김안로가 세자(인종)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옥사를 일으켰다. 그 중 하나가 희릉 천릉사건이다. 김안로는 정적인 정광필, 남곤 등에게 중죄를 주려고 희릉 봉분 밑에 큰 돌이 깔려 있는데 그대로 공사를 감행했다고 주청했다. 큰 돌이 무덤 아래 깔려 있으면 불길하다고 아뢰어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

능역 조성 당시 총호사였던 정광필 이하 지관 및 공사를 담당했던 관리들은 대역 죄인이 되었다. 신분이 박탈되고 그들의 자손까지 옥에 갇혔다. 결국 능은, 조성된 지 22년 후인 1537년(중종32) 현재 위치로 이장했다. 1544년 중종이 승하하자 유교(遺敎)에 따라 중종의 정릉을 희릉 옆에 조영하고 정자각을 왕릉과 왕비릉 중간으로 옮겼다. 능호를 정릉으로 고쳤다. 그런데 제1계비와 함께 묻혀 있는 꼴을 참지 못한 문정왕후의 주장으로 중종의 무덤만 지금의 정릉(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옮겼다. 남은 무덤은 다시 희릉으로 부르게 되었다. 죽어서 무덤이 옮겨지고 곁에 있던 지아비의 무덤은 떠나가고 능의 이름이 바뀌었다. 복잡하고 심란한 사태다. 산사람 잡으려고 죽은 자를 파헤치고 문패를 이것저것 바꿔단 것이 희릉이다.

장경왕후는 1491년(성종22) 영돈녕부사 윤여필의 딸로 태어났다. 본관은 파평으로 8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외종모인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에 의해 양육되었다. 1506년(중종 원년) 궁중에 들어가 처음에 숙의에 봉해지고 단경왕후가 폐위되어 쫓겨나자 다음 해 왕비에 책봉되었다.

월산대군 부인 박씨는 어머니가 없는 연산군을 키운 장본인이다. 그러나 역사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고 있다. 실록에는 "이런 얘기가 전해진다"라고 간접 인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인양 온갖 사극에서 극적으로 그리고 있다.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절묘한 호재이기 때문이다.



중종의 제1계비 장경왕후가 묻힌 희릉에서 후손들이 예를 올리고 있다.

춘추 25세에 인종 출산 후 7일만에 산후병으로 애통한 죽음
중종과 나란히 묻혔다가 문정왕후의 주장으로 홀로 남겨져

중중반정의 주역은 성종이 총애하던 문신 성희안이었다. 그는 벼슬이 이조참판까지 올랐는데, 연산군이 망원정에서 음탕한 연회를 즐기는 것을 비판하는 시를 지어 올렸다가 종9품 부사용(5위에 소속된 무관 벼슬)이라는 미관말직으로 좌천됐다.

또 다른 주역인 박원종은 무인으로서 그의 누이(박씨 부인)가 월산대군(성종의 친형)의 후실이었다. 그런데 연산군은 천하절색이었던 박씨 부인을 궁으로 불러들여 겁탈했다. 정조가 더럽혀진 박씨 부인은 자결했다. 그도 그럴 것이 박씨 부인은 연산군에게 큰 어머니뻘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박원종은 연산군에 깊은 원한을 품었는데, 이런 감정이 연산군에게 알려지면서 경기도 관찰사였던 박원종의 벼슬을 거두어 버렸다. 그 후 박원종은 반정의 중심에 선다.

누군가가 조작한 것이다. 이러한 설이 있다는 이야기를 쓰면서 마치 사실인양 기록한 것이다. 연산군이 큰어머니 월산대군 부인을 강간했다고? 연산의 패륜에 치를 떨 만하다. 연산의 황음방탕을 제시하기에 이보다 좋은 소재가 없다. 그러나 당시 월산대군 부인 박씨는 풍으로 몸져 누워있었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불심이 돈독한 것도 이런 비화를 만들어낸 요인 중 하나다. 척불의 광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박씨는 수십 년을 홀어미로 지내며 불교를 받들고 일찍 죽은 남편 이정의 묘 곁에 흥복사를 세웠다. 명복을 비느라 자주 그 절에 가므로 사람들이 눈총을 보냈다.

박원종은 연산군보다 아홉 살 많다. 그의 누이라면, 어린 연산을 돌볼 나이라면, 족히 50대는 넘는다. 이런 상황인데 겁탈을 연관시킨 이야기 구성이 끔찍하다. 박원종의 반정 가담, 반정의 정당성을 튼튼하게 하려고 인자한 여인을 망가지게 했다. 지금도 여러 드라마에서는 박씨를 요염하고 풍만한 여인으로 등장시킨다. 자식이 없었던 박씨는 친자식처럼 연산을 키우고 이어서 장경왕후를 키웠다. 그들에겐 어머니다. 권력을 위해, 재미를 위해, 엉뚱한 오해에 시달리고 있는 박씨를 생각하면, 무덤에 누운 왕후가 통곡할 일이다.

희릉(禧陵)은

서삼릉 능역 안에 있다. 봉분에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 두른 단릉으로 조선 전기의 능제를 따랐다. 사적 제200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 38-4, 면적 21만7701㎡(6만5970평).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옥석공예사
불상. 석탑. 건축. 자연석. 석물. 납골당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큰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상균 합장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 행 화
방한용털신 발,마춤형 제작 방한용부츠 보아털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50mm • 색상 : 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조각무명 사계절단화 풍산동 99%
특 무 명 지압깔창 발명특허원41435 풍산동 99%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 가격 : 10,000원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록내용■
공합이야기
성기가 만을 만들어요
땀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풋사랑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얼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전 352쪽 다라클기 10,000원
컬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책속 부록■
▶ 생일로 알 수 있는 내 몸의 건강
▶ 꿈 해몽하법
▶ 띠로 보는 궁합
▶ 달로 보는 궁합
▶ 시(時)로 보는 궁합
▶ 날짜로 손(손금) 보는 법
▶ 십계법
서울 · 강남구 이현3동 618-22
전화 (02)365-8172
팩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 감기, 먹거리로 이기는 법

이상고온 속에 간간이 찾아오는 한파 때문인지 감기로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는 전염성이 있어 식구 중 한명이 걸리면 다른 가족들도 함께 고생하게 된다. 감기 치료에 도움 될 뿐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오래 방치하면 '큰병'을 부르게 되는 감기. 예방법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지만 일상 속에서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매일 먹는 음식은 감기의 방패가 될 수 없을까? 추운 겨울 가족들이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며 감기예방에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눈다면 감기를 물리침은 물론 가정지수는 올라갈 것이다.

비타민

잘 챙기면 감기걱정 '뚝'

백혈구 기능 증진·활성산소 제거로 면역력 증강

기침에는 배·콧물날 때는 바나나 먹으면 큰 효과

똑같이 감기를 앓아도 사람마다 회복기간이나 증상의 정도, 걸리는 횟수가 다른 것은 저마다 면역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난히 감기에 잘 걸리고 심하게 앓는 사람은 자신의 면역력을 의심해 봐야한다.

따라서 감기를 멀리하려면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 좋다. 면역력을 키우는 데는 생활습관이 중요하며 그 중에 식생활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균형 잡힌 식단을 골고루 먹는다면 매일 필요한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고 그만큼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감기예방효과 탁월한 비타민C

근래 감기약 제재에 비타민C가 포함될 정도로 비타민C는 백혈구 기능을 증진시키고 활성산소를 없애줘 면역력 증강에 뛰어나다. 일반적으로 비타민C는 과일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풋고추에는 사과의 20배나 되는 양이 들어 있다. 토마토에 가득 담긴 베타카로틴 성분은 기관지, 코 점막 세포를 재생시켜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라이코펜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의 파괴를 막아준다.

베타카로틴은 호박에도 많다. 옛말에 '동지에 호박죽을 먹으면 감기, 중풍에 안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감기 예방에 탁월하다. 여동현 원장(소중한몸한의원)은 "늙은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은 물론 비타민C, 암 예방 효과가 있는 셀레늄 성분도 들어 있다"고 말했다.

화끈하게 감기 잡는 '매운 맛'

마늘의 유칼립 성분은 강력한 살균작용이 있어 감기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마늘의 매운맛과 냄새는 먹기에 부담이 된다. 이럴 때는 구워 먹으면 매운맛과 냄새를 줄여 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다. 구운 마늘을 하루 5~6쪽씩 먹어도 좋다. 따뜻하게 데운 우유 1컵에 강판, 믹서 등에 간 마늘을 넣어 마시는 방법도 있다. 마늘에 들어있는 비타민 B_1은 피로를 푸는데도 으뜸이다.

양파도 항균,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있다. 한방에서 '옥총'이라는 약재로 사용돼 왔다. 양파는 샐러드나 양파피클, 양파장아찌 등으로 요리하면 쉽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또는 마늘처럼 구워서 먹거나 양파 달인 물로 마시기도 한다.

맛도 영양도 최고 과일차

겨울철이면 맛이 한결 더한 귤은 다른 과일보다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 더 좋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피로회복을 돕는다. 말린 귤껍질은 한방에서 '진피'라는 약재로 감기로 인한 기침, 가래를 없애는 데 사용됐다. 주의할 점은 귤껍질에 농약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고 3~4방울의 식초를 희석한 물에 담갔다 건지고, 그늘에서 말리도록 한다. 농약 걱정이 없는 귤이라면 껍질째 잘 씻어 얇게 썰어 설탕이나 꿀에 재 두었다가 차로 마시는 것도 좋다. 아무래도 농약 때문에 귤을 껍질째 먹는 것이 찜찜하다면 겉껍질을 벗겼을 때 묻어 있는 하얀 섬유질 부분은 그대로 먹는다. 하얀 섬유질에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P 성분이 가득하다.

감도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이다. 비타민C가 많다는 사과, 귤보다도 10배 이상 되는 비타민C가 들어있다. 뿐만 아니라 과일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는 비타민A까지 들어있다.

배도 좋다. 기관지 등 호흡기가 약한 사람이라면 거의가 '꿀배찜'을 권유 받았을 정도로 감기에는 큰 효과가 있다. 꿀배찜은 배의 꼭지 부분을 가로로 잘라내고 단단한 씨 부분만 동그랗게 파낸다. 그 자리에 꿀을 넣고 자른 꼭지를 덮어 찜통에서 1시간 이상 푹 쪄준다. 익은 후 고인 즙을 컵에 따라 마신다.

겨울철 대표적인 차라면 역시 유자차다. 유자는 비타민C와 유기산 성분이 풍부해 피로회복과 감기에 좋다. 또 모과차는 목이 아픈데 마시면 좋다.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는 특히 예방이 중요하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감기약이 치료약이 아니라 단지 증상완화제라는 사실은 평소 먹는 먹거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증상이 심한 경우는 물론 가벼운 증상이라도 1주일 이상 계속될 경우 폐렴, 중이염 등 합병증이 우려되니 반드시 병원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조동섭 기자



이런 증상엔 이런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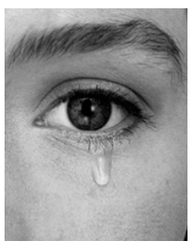
- ◆기침= 무, 도라지, 모과, 은행 등이 도움 된다.
- ◆가래= 꿀배찜은 감기 예방뿐 아니라 가래를 없애는 데도 좋다. 복숭아도 효과가 있다.
- ◆콧물= 콧물감기에는 바나나, 양배추 등이 효과적이다.
- ◆열= 열을 내리는 데는 생강, 대파, 매실 등이 좋다.



16. 안구건조증

우리가 눈을 부드럽게 떴다 감았다 하는 것은 눈을 얇게 덮고 있는 눈물층이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눈물은 하루 종일 일정량 지속적으로 생성되어 눈의 표면에 눈물층을 형성하여 눈을 부드럽게 윤활시켜 주고 살균작용도 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경우 그 분비를 느낄 수는 없다.

눈물은 눈의 표면을 부드럽게 덮어 눈을 보호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 세 가지의 중요한 성분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다. 눈물 제일 안쪽이 점액층, 다음이 수분층. 마지막이 지방층이다. 자동차 엔진도 엔진오일이 적을 때 고장 나듯, 우리의 눈도 눈물 생산이 줄어들거나 세 가지 눈물층의 균형이 깨질 때 병이 발생한다. 이러한 눈병을 '안구 건조증' 또는 '건성안 증후군'이라고 한다.



공해·컴퓨터 사용으로 건성안 증가

결막·각막염 등 합병증 유발할 수도

건성안이 있는 분들은 흔히 눈이 충혈되며 따갑거나 또는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이물감을 느끼지만 정작 이것이 눈물량의 부족으로 생긴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어떤 분은 오히려 눈물이 많이 난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각막이 말라서 자극에 의한 반사눈물이며 방어작용을 상실한 무기능성의 눈물이다. 즉 기름기가 없는 맹물만 나오는 것이다.

최근 건성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눈물의 양이나 성분의 변화 즉 눈물 자체에 이상이 있는 건성안 보다는 눈물의 과도한 증발에 의한 눈표면마름이다. 특히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으로 누구나 많은 업무를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이때 업무에 집중한 나머지 눈을 깜박이지 않게 된다. 우리 눈의 표면은 눈을 한 번 깜박일 때마다 눈 표면에 눈물이 공급이 되는데 깜박임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면 눈이 마른 상태에서 정상적인 눈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성안의 각종 합병증인 결막염, 각막염 등을 유발하게 된다. 이는 실제로 눈물의 이상이라기 보다는 눈깜박임의 잘못된 습관에 의한 합병증인 것이다.

이 질환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간혹 아침에 일어나 식염수나 심지어 수돗물로 눈을 씻어내곤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입술이 마를 때 침을 묻히면 일시적으로 나아지지만 조금 지나면 입술이 더 트는 것과 같은 이치이므로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성안의 정확한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한다. . 눈물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인공눈물의 보충이 효과적이다.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내려가는 길을 막는 누점 폐쇄술, 누소관 폐쇄술로 눈물이 눈에 오래 고여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

눈꺼풀이나 눈표면에 염증을 동반한 경우라면 염증을 반드시 함께 치료하여야 한다. 무턱대고 인공누액만 점안하는 경우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안되고 임시 방편적인 치료만 되므로 효과는 순간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인공눈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안구표면 염증을 동반한 건성안의 치료에 '레스타시스' 라고 하는 염증 조절 안약이 나와 난치성 건성안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콘텍트렌즈가 원인이라면 렌즈의 종류나 재질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일단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면 인공눈물만 점안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만족스런 치료효과를 못 느끼게 된다. 또한 원래 그런 병이려니 하고 체념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안구 건조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 각 원인을 먼저 분석한 후에 각각에 맞는 치료를 한다면 근본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실망하거나 조바심을 갖지 말고 정기적인 치료를 꾸준히 한다면 큰 불편 없이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02)755-0055

■ 김준헌(소중한안과 원장)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 (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스님 모십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도량의 면모를 완전하게 갖춘
중국 청도 장안사에서 한국 불교의 위상을
펼치실 대덕스님을 모십니다.

● **자격 :** 비구계를 수지하고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세수 40세 이상, 승납 20년 이상

● **방법**
1. 서류(이력서,자기소개서) 심사 및
면접 후 결정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 031)901-1954, 1461

일본체류수행자입방안내

대상

비구,비구니,법사(남,녀),포교사

조건

1. 입방자는 학력,연령제한없음
2. 3년수행후 본종단에 입방을 원할시에는 영구 상주 가능
3. 입방 상주자에게는 생활보장 영주권 취득시까지 행정적 지원함
4. 일본에서 사찰 개원하고자하면 본 종단에서 적극 지원함

문의

– 한국 연락처
◆ 휴대폰 010-9292-4828(명안스님)
팩 스 031-735-3374, 043-731-6453

– 일본국 주소
◆ 우편 619-1401 日本國 京都府 相樂郡 南山城 村童仙房 8番地 總本山 高麗寺
이메일 mandeuk@yahoo.com
◆ 일본 직통 휴대폰 090-3719-1571
전 화 0743-93-0843
팩 스 0743-93-0670
◆ 우편 544-0033 日本國 大阪府 大阪市 生野區 勝山北 5-12-39 大本山 普賢寺
전 화 06-6712-1015, 1016
팩 스 06-6741-1755

중앙불교대학원 학인 (승려, 행자) 모집

◆ 모집학과 : 사미과 6개월 과정
(3개월 기본교육 – 습의, 3개월 통신교육)
◆ 원서접수 : **2008년 1월 5일까지**
◆ 개강일시 : **2008년 1월 7일 (월요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본, 사진 5매
◆ 자격요건 :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
◆ 특 전
– 6개월 기본교육 이수 후 사미계 수계득도 하도록 지도하고 사찰(포교원) 창건 시 초심자라도 여법히 법회를 봉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 졸업 후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지속됩니다.
◆ 사미과 교수 : 현봉
(통도사 출가, 보광선원 금당선원, 現 무사암 주지)
◆ 수강료 : 일백오십만원(지도비, 삼개월 숙식제공)
◆ 문의처 : 본 대학 사무국
(대표전화 031-676-0908 / 팩스 031-676-020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집합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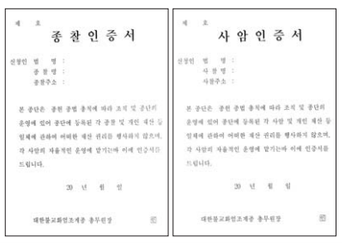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창종주 054)632-2799
총 무 031)883-1506~7
011-338-1521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종주 혜상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 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불교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정해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대덕 큰스님께
감사드리오면, 무자년에도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 하늘길로 떠나는 티벳 불교성지순례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 문수도량 오대산
- 낙산대불 구채구, 황룡
- 미얀마, 인도,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등

아름다운 풍경 소리를 찾아서
풍경여행사와 함께 떠나세요.

풍 경 여 행 사

이영미 실장 합장

■ 서울 노원구 상계 4동 산 154번지
TEL 02)936-0419 / 080-234-0108
FAX 02)951-040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대한불교선밀종 임원,종도를 모십니다

대다수의 종단이 선교양종 이거나 밀종으로 이루어진 한국불교에 해동대선사인 원효성사를 종조로 밀로 점수하고 선으로 돈수를 지향하는 선밀종을 창종 하고자 발원하니 사부대중의 동참을 바라며 특히 한국 전통적 불법을 이끌어 나가며 세계에 널리 알릴 임원, 대덕스님, 종도 분들과 인연 닫기를 바랍니다.

비영리종교단체(칠곡군 : 37451-00292)
비영리종교단체고유번호(513-82-65714)

입종구비서류
- 본종 입종(포교소 등록)신청서
- 서약서, 승려증 발급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연 락 처
- 총본산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 1동 188-7번지(관정사)
☎ 054)976-0405 / FAX 054)976-4405
▷입종상담 : 010-3134-8484
054)976-0405(원묵)

大韓佛教禪密宗
TEL 054)976-0405 FAX 054)976-4405
www.sunmiljong.or.kr

발 로 해

(특수기능성 두한족열 양말)



발로해가 오리지날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절수행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참선,명상,성지순례,등산,운전,고시수험생)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독소,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보들보들,보송보송 100%보장!

한국언론회장 KBS(생로병사의비밀, VJ특공대, 감성매거진 행복한오후)출연
SBS스페셜(0.2평의 기적)출연 BBS불교방송(무명을 밝히고)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등 기사 다수

특별판매가 : 2만원 (배송은착불)

주문처 :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오! 쏘스연꽃

탈종공고

● 사찰명 : 덕선사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 93-1
● 대표자 : 도운(이정호)
● 부 전 : 무상(박종희)

본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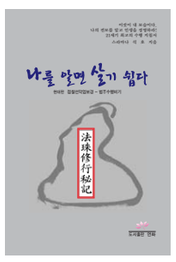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수행으로 아는 나의 삼세(三世)

수행의 새로운 패러다임



나를 알면 살기 쉽다

스라마나 석호 지음
연화 펴냄 | 신국판 양장본 360p
수행도구 법주포함 정가 5만원

팔만 대장경 경집부 점찰산악업보경을 이 시대의 감각으로 풀어놓은 수행지침서로서 부제는 〈법주수행비기〉, 자신이 지은 업력으로 발동하는 인생의 고락길흉을 〈법주〉라는 수행도구와 우주에 작용하는 인연의 힘으로 점찰하여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대처방법까지 밝혀놓음으로써 수행과 현실적 성공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던 불자들에게 수행과 삶이 둘이 아님을 보여 준다.

생각, 말, 행동에 의해 각각 0수로부터 108수에 이르는 숫자의 행로 중에서 자기 인연수가 결정되어지며, 수행의 향상 정도에 따라 인연수가 변화하게 된다.

독자는 이 수행법에 의해 자신의 전생 내지 현재, 미래 모습의 파악은 물론, 매 순간 닥치는 인생진로 및 인간관계의 성패까지도 점검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수행하는 세상, 모두가 부처 되는 세상을 희구하는 수도승인 저자의 서원이 가슴 짠하게 느껴지는 책이다.

– 불서총판 운주사 –

온라인〈농협〉1343-02-005446 예금주 이성한

구입처 : 도서출판 연화 053) 253-1923 익일택배

본원 불교 의식(범음범패)대학 수강생 모집

[본, 본원불교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불교의식(범음,범패) 수련생을 모집합니다.]

1.개 강 일 : 2008년 3월 5일 오후 6시 30분
2.출 강 : 매주 수요일 ·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8시 30분
3.교육내용 : 송주, 도량석, 조석예불, 불공의식,
시식등 모든 재의식, 바라춤,
나비춤(도량계,다계작법)
4.교육기간 : 속성단기 3개월, 장기 6개월
5.원서접수 : 2008년 3월 3일까지
6.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사진(여권용 4매)
7.자격요건 : 승려가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
또는 사찰(포교원)을 개설하고자하는 자로,
연령,학력 제한없음

◆ 특 권 : 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승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미계 수계득도
하도록하여 승려증을 발급함.
사찰(포교원)을 창건시 등록과 함께 초심자
라도 여법히 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재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사단법인 **대한불교본원종본원불교의식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17-3
TEL 02)391-4376 / FAX 02)379-2746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5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비염 · 천식
아무리 심한 악성, 만성,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도 한약복용만으로 조기에 치료됩니다
※ 전화 상담 환영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유림한의원 051)333-445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105-중-2008호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사찰신축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명예)종교철학박사학위취득
• 학위 : 미국 종합대학교
• 자격 : 스님, 목사님, 종교인
• 서류 :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사진 4매
상담전화 : 010-9945-2030

수련이 편안하고 회복이 간편한
선관단식
www.zenfast.com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055)834-1115
016-849-3858

대사찰 창건주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금전을 투자하여 모든 운영권과 그리고 건물,대지,지분을 공동으로 등기하고 같이 운영하실분
◇대략구성 : 2층 전각 2채, 대웅전, 대불, 옥외불, 요사채 등
직접 방문하여 의논하시기바랍니다.
016-635-0618

대작 불사 중입니다
(경기도)
비구니,비구부전스님
총무(PC 가능자),
화주보살님 인연을
기다립니다
010-4540-3344

오래계실 부전스님,
종무실법당보살,
거사님 모십니다
051)256-348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대구시 동구 봉무동 196번지
개원사
053)981-0664
053)981-0995
016-515-066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칠곡
011-9394-0016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합천 청강사
055)932-5706
016-9506-570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043)643-4733
019-540-7450

조계종 소백산 내원암
공부 도량에 기도하며
신심있고 오랫동안 있을
40~50대의 공양주 구함
▷경북 예천 내원암
054)653-1180

부전자리
원합니다
(50대 초 비구승)
010-9474-0800

가족같이 지낼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청원
043)297-8728

미국(L.A.)에서
수행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외국비자 있는
스님에 한함
042)282-927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5~60세)
▷경주 남산
054)748-3530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011-591-8228

서울근처 수도권지역
운영이 어려운 사찰이나
포교원을 원합니다
세수 60세, 법랍 40년
맡겨주시면 무보시로
큰 원력 세우겠습니다
성만스님 합장
010-5138-2037

기도 요양하실 여자분,
여생 보내실 보살님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행자(여자)스님
모십니다
051)502-6569

세수 47세,
법랍 18년된
조계종스님으로
부전자리 원합니다
010-9221-4445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
만세력 없이 5초 이내에 일주 뽑아냄
(양력생일 경우)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통화 중일때는 02-574-3427) 핸드폰 011-498-5067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앞산 임휴사)
053)632-4844
053)641-484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대)
054)822-3133

디스크, 오십견,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문의바랍니다
미타사 청암 혈 도술원
053)622-0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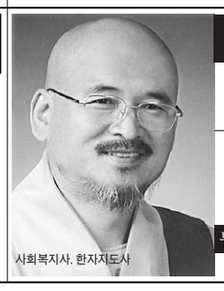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易) 정통 命理學 (學
四柱 비법완성
命理를 완성코져 하는 분
전문가를 위한 學堂
命理學의 모든것
정통교재-명리학 비전
명리학 비결
四柱 비법완성 교재(책)
각권, 삼만원
明陽 命理學堂
인천 032)330-4684 / 032)503-4684

역 학 공 부
●사 주 초 급 : 월요일 18:30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주역, 풍수금낭경, 마의상법
수요일 18:00 수강생 무료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직강
인터넷 동영상 강의 : www.kbs.cc (사주 전과정 완성까지 45만원)
풍수,관상,육효,자미두수,수상 / 수료증 자격증, 졸업생 재택근무가능
한국역학협회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02)2264-0258

21c 불교수행의 생활화를 실천하는 종단
(사)生活佛教曹溪宗
總務院長 法雨
元老院長 慧覺 宗會議長 慧岩 監査院長 道林 護法院長 慧泉
教育院長 如林 布教院長 眼淨 文化院長 道炅 事務局長 如炅
●본 종단과 뜻을 함께할 종도(행자 사찰등록)를 모십니다.
●사찰창건시 행정업무 기본의식 포교방편 도와 드립니다.
●각종의식(천도재 점안식 ..등) 여법하게 봉행해 드립니다.
生活佛教 曹溪宗 總務院 02)3663-8416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출신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새법요집,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공 고

● 법 명 : 유 심
● 성 명 : 정기채
● 사찰명 : 관음정사
● 주 소 : 부산시 동구 초량 2동 467

본종 종헌종법 139조
1, 2항에 의거 종정예하의
유시로 사면복권되어
1년간 공권정지에 처함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社)大韓護國佛教彌勒禪宗 종도모집안내

대한호국불교 미륵선종은 중국 숭산 소림사에서 禪의 初祖이신 達摩大師의 法脈을 **소림사 釋永信 방장으로부터 전법 수계받은 제34대 제자 釋延和 총무원장**께서 창종하신 종단으로 한국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종풍을 청정케하고 禪花를 꽃피우고자 분연히 일어선 종단입니다.

이에 뜻을 함께하실 종도들을 모집합니다.

총무원장 德山 釋延和


△총본산 용화사

총본산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 2리 산 247번지 미륵산 용화사
전 화 : 033)765-0122(스님), 761-7008
02)766-6800 / 011-285-6800
인터넷 : 용화세계 / www.yb108.com

기치유란 무엇인가?

최근 기치유에 관심이 높아지는데 반하여 일반인들은 물론 통합보완의학(대체의학)분야에 종사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 조차 기치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치유를 어떤 종교와 연관된 것으로, 무속인들이 귀신을 쫓는 방법으로, 안마나 지압의 일종으로, 최면이나 심리치료의 연장성으로 등등 많은 오해와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 보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기치유는 서구에서 healing touch, energy healing 등으로 불리는 통합보완의학의 한 분야의 치유 방법을 말합니다. 기치유사가 환자의 신체에 살짝 손을 대거나 약간의 거리를 유지한 채 자신의 치유 에너지만을 방사하여 병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몸을 만지거나 주무르는 등의 행위는 일어나지 않으며 주문을 외우는 등의 주술적인 방법도 쓰지 않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정통 기치유만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9주 과정의 수련을 마치면 기치유 능력을 갖을 수 있으며 자신의 병이나 가족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게됩니다.

한국 기치유 연구회에서는 2008년부터 수련비를 대폭 낮추어 누구나 부담없이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기치유 방법을 배워서 기치유에 대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의식을 갖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기치유가 가정의학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치유법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기치유 양성반 35기 개강!
개강일자 2008년 1월 12일(토) 오후 2 : 00 ~ 4 : 30
수련회비 ~~99만원~~ 58만원 (9주, 매주 토요일)
수련지도 : 윤한흥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주)명상신문 논설위원
참고서적 : 기치유와 기공수련 / 기치유학(윤한흥 지음)
한국기치유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02-3482-5032 www.gichiu.com

육임 수강생 모집

무자년 운세는 육임으로 보세요.
어떤 것보다 정확하고 명쾌합니다.
운세뿐 아니라 일의 성사 여부와
해결까지 명확한 판단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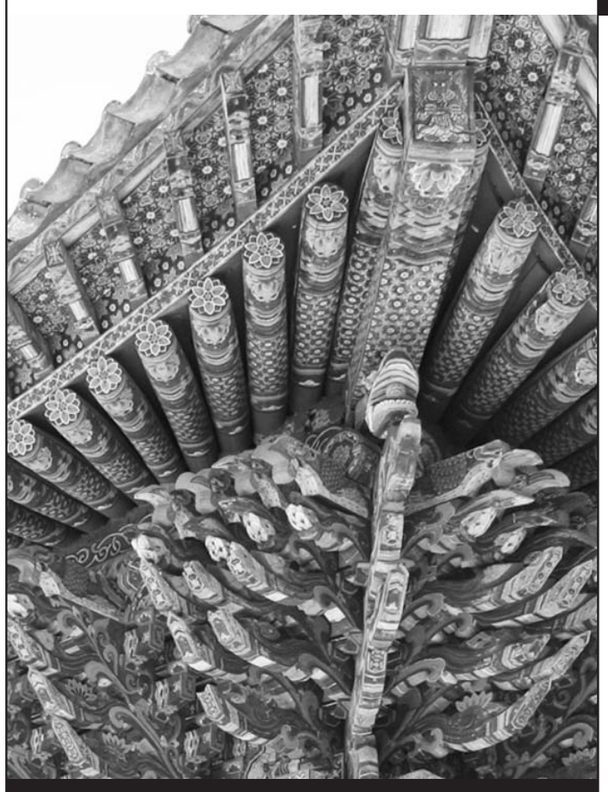
**예) 매매에 성사 여부와 가격,
결혼에 시기, 임신여부와 남·여 판단,
시험 운, 이혼 여부 등**

「육임 수강생 모집」
■ 육임을 기초에서 백법까지 과정을 함께 공부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동영상과 직강을 동시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를 익힌 다음에는 720 국수자료로 그때그때 알고자하는 질문에 답으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공 념 학 당
■ 상담문의 : 02)793-7333
■ 홈페이지 : www.saju79.com(강의 홈페이지)
www.unsemaru.com(운세상담 홈페이지)
■ 사 무 실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예금주 : 박옥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동해안
- 법당 : 27평
- 요사 : 25평
- 부지 : 357평
- 가액 : 3억2천

- 위치 : 경남
- 법당 : 25평
- 요사 : 40평
- 부지 : 350평
- 가액 : 7억

- 위치 : 부산
- 법당 : 5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135평
- 가액 : 13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임법당안내 (30년생)
- 위치 : 부산 범일동
- 평수 : 120평(시유지)
  건물 스라브 약30평(등기필)
- 법당 : 12평
- 요사 방 3칸
- 주방 및 욕실 최신시설
- 정남향 전망 최고 뒷산 접
- 가액 : 9500억원

- 위치 : 남쪽 바닷가 진해
- 부지 : 1500평(주거지역)
- 법당 : 목조 43평(3포 5포)
- 지장전 30평, 요사채40평, 산신각5평
- 공양간45평, 대종각, 사무동(2층) 40평
- 버스진입 가능, 뒤편에 산세 아주 좋음
- 정남향, 탁트인 바다전망
- 전통 사찰 최고의 도량
- 가액 : 15억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근교 낙동강이 보이는 사찰 터 28,000평(당 1만원) "급"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부지 : 7천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39억
  *도심부근큰가람가능 (법당+대지300평)9억

- 위치 : 기장 월내
- 대지 : 1,000평
- 법당 : 45평
- 요사 : 50평
- 가액 : 18억
  *교통좋은 근교 신축사찰

- 위치 : 청송 보현산
- 부지 : 1,4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20평
- 가액 : 7억
  *기기막힌 계곡, 버스진입

부산 영남지방 풍수전문사찰컨설팅(양도 양수 하실 스님 상담환영,절대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en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세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영등포구 양평동 당산역 5분거리, 주위 아파트 단지
- 법당 약30평, 넓은 옥상방 사용
  주지실1, 공양실1, 화장실
- 각종 법회시설 및 주방기구 일절 구비됨
  엠프 시설 및 에어컨 시설완비
- 가액 : 보증금 5천만원/월55만원. 시설비 2천만원(조정가능)

02)3667-3873 / 011-880-3873

사찰 · 사찰터 전문안내

(대구 · 경북권)
011-528-825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평수 : 108평(건물 3층 전체사용)
  옥상 사용가능
- 법당 : 삼존불, 약사불, 후불탱화,
  약사관음탱화, 신중탱화,
  지장호신불 78불, 각 에어컨 2대
- 스님 서재방, 종무실, 대중공양실,
  방사 2칸, 후원 5평
- 각 방마다 전기판넬 설비
- 시설 무 모두 A급
- 현재 불교대학 운영중
- 시설비 5천만원, 보증금 절충가능

010-2039-5288

사찰(급)안내

- 위치 :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의정부 경계)
- 평수 : 430평(2층 건물)
- 1층 : 종무실, 주지실,
  공양실, 방5 / 2층 : 대웅전
- 별채 43평 건물
  위패당 및 영단
- 가액 : 12억5천만원(절충가능)

010-9757-724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팔공산 자락
  (파계사 근교)
- 대지 : 430평, 법당 : 20평
  요사채 : 20평, 별채 : 40평
- 삼존불 모셔져 있음
- 가액 : 6억 5천만원

대구시내.근교사찰(터)
- 가액 : 2억 5천 ~ 20억
  평수 금액 다양
- 사찰전문가와 친절상담

019-534-7239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시내
- 평수 : 종교용지 438평
  법당 8평(목조),
  벽돌기와집 요사채 30평,
  심야보일러, 산신각, 칠성각
- 가액 : 2억 3천만원
- 40~50년된 사찰
  뒤에는 산, 앞은 계곡

011-9581-604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남산동
- 평수 : 50평
- 도시가스사용,
  시설완비(시설최상급)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 스님 개인사정으로 급안내

011-9005-25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평수 970평
- 법당 25평, 요사채 3채(방4)
-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비구니스님 기도처 명당
- 가액 : 2억3천만원

010-3138-4897

30년 서울도심 포교당

- 서울 중심에서 30여년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인연을 찾습니다
- 4층 건물의 3-4층 (각 60평)
- 시설 최고 (진신사리 봉안)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7339-8688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강남 논현동
  (7호선) 2번출구
- 평수 : 30평
- 2층 법당, 영가단, 거실,
  주지실, 공양간, 세면실
- 보증금 2천만원, 월150만원
  시설비 1,100만원
  (꼭 필요하신분 절충가능)

011-545-506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시내
- 2층 43평
- 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010-8622-1285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엄마손백화점 앞 2층 60평
- 주차완비
- 방2, 주방1, 에어컨 3대
- 삼불, 산신탱화, 신중탱화
- 보증금 5천만원,
  관리비 포함 월 220만원
  시설비 5천만원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010-3088-3133

포교원 안내

- 위치 : 제주시 외도 1동
  부영2단지. 2천세대 대단지 앞
- 굿당으로 최적지
- 법당 15평, 요사완비
- 주차공간 300평 및
  채소밭으로 활용가능
  시설비품 집세 합 950만원

017-393-1127

토 굴 안 내

- 위치 : 성주군 대가면 대천리
- 347㎡(약107평)
- 비구니에게 적합
- 가액 : 1,900만원

053)942-3478

포교당 안내

- 위치 : 안양 평촌 롯데마트 근처
  (아파트단지 인접)
- 8층 건물중 5층 ● 60평
- 법당, 공양간, 주지실, 동불,
  후불탱, 신중탱, 인등 등
- 시설한지 2개월
- 유학관계로 급 안내함
- 보증금 1천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절충 호조건 양도

010-3130-055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감전동
- 3층 45평. 대로변 요지
- 삼존불, 약사, 천수천안
  각단 탱화, 소불 108불
- 시설완벽.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51)322-2727
010-3007-5235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MBC옆 도로변
- 미니 2층집
  1층 : 방3(법당, 거실, 주방)
  2층 : 방1
- 주차 2대 가능, 화장실,
  별채(방, 다락)
- 평수 : 57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즉시법회가능

011-9279-3628

대형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75만 신도시
  대단지아파트 중심상가)
- 평수 : 320평(3,4층)
- 4층 법당 : 삼존불,
- 3층 종무소, 강의실,
  학생법당, 관음전, 후원
- 불교대학운영중
- 보증금 1억원, 월250만원
  법당불사 1억원 소요되었
  으며 절반이상 보시하겠음
- 사찰 전세 · 월세 구합니다.

010-7700-76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왜관읍
- 평수 : 약90평
- 특징 : 심야전기,
- 시설완벽, 정원있음
- 가액 : 3억5천만원

017-565-15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창수면
- 대지 : 330평
- 법당1, 방4, 창고
- 가액 : 5,500만원

054)733-7225
010-7340-8765
010-7484-6885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 3층 건물 2층 50평
- 법당, 종무소, 공양간 2칸,
  스님방, 화장실 ● 삼존불
- 홍송인등(250인 用), 종,
  에어컨, 온풍기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추후 절충 가능
- 현재 운영중

010-9022-263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5분 거리
- 평수 : 450평
- 대웅전, 미타전, 산신각, 용왕각
- 요사채 방4, 화장실(수세식)2
  주차공간 200평
- 가액 : 상담 후 결정
- 전세 및 양도가능
- 비구니, 기도스님 적합

010-9870-1080

사찰(급)안내

- 위치 : 양산시 원동면
  불사한지 6개월 된 신축사찰
- 대지 : 약100평
- 대웅전 약30평, 요사채1,2층 20평
- 산세수려, 기도도량, 지하수 개발사용
  연못조경완벽, 야외 산신각
- 스님 건강상 저렴한
  적정금액으로 급 안내함
- 가액 : 1억5천만원
  (신협융자 3500만원 있음)

019-245-8929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
- 대지 : 420평
- 법당 : 13평
- 산신각 6평, 요사채 약 40평
- 가액 : 1억2천만원

011-511-0926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포시 월곶면
- 대지 246평, 건평 65평
- 임법당, 방7개(요사채 5)
- 법당 20평, 안채 20평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0-2385-5522

토 굴 안 내

- 위치 : 구리시 인창동
- 대지 140평
- 토굴이며,
  신축포교당으로 적합
- 가액 : 상담 후 절충

031)564-9746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해성사
- 법당 9평, 식당 약 10평
- 시설비 1100만원
  보증금 500만원, 월50만원

018-571-1790
053)853-4404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근교 신도시
  부천시 중앙
- 건평 : 45평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 스님 해외관계로 급 인수

010-5138-2037

절 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진례면
- 평수 : 임야 8000평
  (진례 스포츠센터
  주거지역 접)

011-870-2638

사찰(급)분할 양도

- 위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대구에서 40분거리 국도변)
- 대지 600평, 별도 국유지
  1200평 사용가
  건평 80평, 법당 25평
- 삼존불, 방7, 주차장 완비
  노인요양원 허가신청 해 놓음
- 계약 후 불사하여 분할 지불도
  가능한 좋은조건
- 돌할배 법사와 함께 사찰에
  계실 비구 ·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 인수금 : 2억5천만원
  (융자 9700만원)

053)471-3123
017-501-2315

사 찰 중 개

- 위치 : 경기
- 부지 : 1,000평
- 법당 : 35평 목조
- 요사 : 30평
- 가액 : 9억

- 위치 : 동해시
- 대지 : 90평(200평)
- 법당 : 22평
- 요사 : 30평
- 가액 : 9천(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어린이집(급)안내

- 가액 : 3억 5천만원

011-9379-0591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포교원 임대

최고요지
- 40평
- 울주군 온양읍 재래시장 맞은편 2층
- 삼존불, 탱화
- 전세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300만원
- 교통편 : 재래시장 앞 버스정류장

010-6665-6990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45평(3층)
- 보증금 : 300만원, 월세 : 42만원
  시설비 : 1200만원

011-9552-3976

포교당 안내

- 위치 : 전북 남원
- 부지 3200평, 법당 30평
  (목조), 산신각 10평(목조)
- 납골 200기 시설(100기 미분양),
  요사완비, 지장대불, 사리탑 완비
- 가액 : 1억 9천만원(50% 분할 가능)

010-9115-6831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 평수 : 대지 176평, 밭 790평
- 건물 시골 촌집 폐가,
  전기수도 차량진입 할 수있음
- 산세 좋고 경관수려 ●가액 : 1억 3천 500만원

011-594-152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대구일원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충북 / 충남	043)732-5560 / 011-9422-8453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김해 / 마산 / 거제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광주 / 전남지역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전북지역	063)910-5199 / 011-9642-7733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남해/고성/사천/함양/진주	055)746-9778 / 011-870-0021



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無形의 세계 업그레이드를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매스컴에서 비슷하게 뽑은 제목들은 '아직도 이런 후진국 형 人災가…'였다. 마치 선진국 문턱 앞에 서 있는 한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듯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주변은 그런 참사가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안전이 잘 보장돼 있는 것일까? 여기에 '그렇다'고 답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멀쩡하던 한강의 다리가 무너져 내리고, 정원을 넘긴 여객선이 강물에 가라앉고, 쇼핑객으로 붐비던 백화점이 천정 째 무너지던 지난 90년대에 비해 빈도는 낮아졌을지언정 재난의 규모나 재난 형태의 다양성 등 위험성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 연말에 있었던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사고는 보다 큰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이 보다 엄청난 규모의 재난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것이었으며, 1년 전 일어났던 여수 출입국 관리소 외국인 보호시설 화재 사고는 그 희생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밀입국한, 그래서 철창 속에 갇혀 빠져 나올 수 없었던 외국인들이었다는 점에서 재난의 새로운 유형으로 꼽을만하다.

이번 이천 냉동 창고 화재에도 희생자 가운데 중국동포가 많아 중국 매스컴을 비롯해 중국 당국이 당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사건 사고 하나도 앞으로는 세계화라는 입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짚어 나가야 할 부분이다.

따져보면 한국 현대사에서 산업화 이후 '대형사건사고'라는 달갑지 않은 동행객이 따라 오기 시작했다. 우리의 산업화가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조심성과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이 성급한 경제적 성과, 대형화, 효율화 등을 서둘러 왔기 때문이다. 그 성급함이 '빨리 빨리' 증상을 불러왔고 오죽하면 외국인들에게 그 '빨리 빨리'란 말이 한국인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을까.

어쩌면 1971년 165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는 산업화 이후 그런 사건 사고의 끊임없는 역사를 예고한 것일 터이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나 이천 지하 냉동 창고 화재 참사도 그 맥을 잇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가 안전 불감증에 대한 충분한 자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이천 참사 역시 '빨리 빨리' 진행된 위험했던 공사가 그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전에 있었던 여러 건의 비슷했던 냉동 창고 대형화재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금 한국 유형(有形)의 산업 시설은 거의 선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안전 불감증'이란, 형체가 없는 무형(無形)의 것이다. 이는 '빨리 빨리' '속전속결' 등의 마인드에서 나온다. 그 마인드가 초기 산업화 시대 이후 크게 변한 것이 없어 보이며 바로 이점이 문제다. 선진이란 이런 유형, 무형이 보조를 함께 하고 있는 사회에 붙일 수 있는 수식어일 것이다.

사실 어떠한 사건 사고 한 가지도 그 사회의 모든 것과 아무 고리 없이 독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다행이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느리게 살기' 운동 등 '빨리 빨리'와 대칭되는 그 무엇들이 환영받기 시작하고 있다. 부작용 많았던 숨 가쁜 질주에서 크게 한숨돌려보자는 자각에서 나온 것일 터이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 후 전국 규모 자원봉사자들의 눈부신 활동 역시 무형의 마인드가 선진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새로 들어 설 '이명박 정권'은 '경제 제일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연초에 일어난 대형 참사는 그 속도 문제에서 경제 제일주의에도 일깨워 주는 바가 많을 것이다.

불자의 눈

'대운하' 우려의 소리 경청하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적 염려가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대운하 프로젝트는 엄청난 양의 문화유산 훼손과 파괴를 불러오게 되고 수행환경을 해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경제성과 문화생태환경 보존 등으로 나눠지고 있다. 추진을 밀어붙이는 대운하 TF의 입장은 "청계천보다 쉬운 공사"를 통해 막대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기름값을 비롯한 산업 기반의 경제성을 향상시킨다는 것, 그리고 운하 주변의 위락시설 조성을 통한 국민의 휴양처 개발 등을 주된 이득으로 꼽고 있다. 반대 입장에 있는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이나 조계종 보림회 · 금강회 등은 문화유산과 생태환경의 보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른 '예측불허의 상황'에 대한 우려까지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추진하는 측은 5년여의 기간 동안 공사를 하고 나면 천지가 개벽할 만한 성과가 나올 것처럼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고 반대하는 측은 국민검증위원회 혹은 합동조사단 등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보다 면밀한 조사 결과를 놓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뒤에 추진 여부를 판단하자는 것이다.

이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이명박 당선자가 오래전부터 구상해 온 사업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대선 때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공약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부중심의 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생각은 매우 성급한 감이 있다. 한반도 대운하 TF와 이명박 당선자는 불교계와 시민단체가 무엇을 우려하는지 세심하게 듣고 살펴야 할 것이다. 절대 '청계천' 정도로 생각하고 서둘러 추진할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참회를 생활하 하자

부처님 당시 수행자들은 보름에 한 번씩 모여서 자신의 범계(犯戒)를 밝히고 참회했다. 참회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자신의 잘못을 안다는 것, 그래서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발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삶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데서 선행(善行)의 힘이 나온다. 죄를 저지르고도 죄를 숨기거나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범죄와 패륜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다.

조계종이 올 한해 '포살의 생활화 수행하는 종단' 만들기에 매진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 포살법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결계록을 발간해 수행 풍토를 공고히 하겠다니 새해를 맞으며 산뜻한 기대를 품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던 조계종의 몇 가지 사안들, 따지고 보면 모두 지계의식의 실종과 참회하지 않는 풍토에서 싹튼 탐욕의 그늘이 아니었던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직접 특강을 열고 수행자와 재가 불자 모두에게 '지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역설했다. 그리고 종단적 의지를 모아 포살법회를 정례화 하며 수행풍토를 다져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새해벽두에 내놓은 다짐이 불교계와 우리 사회를 청정하게 하는 '명약'이 되길 기원한다.

"깊은 믿음은 즐거움과 지혜로운 행을 낳는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㊼ 새해에 바라는 마음의 입력

새해를 맞이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갖고 싶은 마음, 꼭 필요한 마음에 대해 몇 명의 대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1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이 있다. 늘 준비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무엇을 담든지 아름다운 마음 그릇을 만들고 싶다. 부족하고 미흡했던 학업, 높은 학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야겠다. 자격증 시험도 열심히 준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목표를 정하여 몰두하는 열정, 꾸준한 노력이야말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2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마음가짐이다.

사실 나는 매우 소심하고 소극적이다. 이런 성격은 친구관계나 학교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활달하고 리더십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고 한 때 나의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스스로 혐오스럽게 생각한 적도 있었다.

"You want to see a miracle, son? Be a miracle(자네 기적을 보고 싶나? 자네 스스로 기적이 되게. 노력해서 달라지는 것이 기적이네)."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에서 모건 프리먼이 짐 캐리에게 한 말이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다. 나도 내 인생에 기적과 희망을 품고 살아보고 싶다. 새해엔 진로 준비와 영어 시험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신에 대한 이해와 명상이 아닐까 싶다.

적극적 자세와 마음도 스스로의 자신감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선 시간에 배운 대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싶다.

3 나는 워낙 성격이 급해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급하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참선시간에 배운 대로 마음에 우주에너지를 충전하면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해야겠다. 어떤 과제나 일의 마감시간을 볼 때 여유롭게 대할 줄 알아야 할 것 같다. 항상 촉박하게 생각하고 급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말도 좀 더 천천히, 또박또박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명상을 통해 차분한 마음을 입력해야겠다. 더불어 남에게도 빨리빨리 하라고 강요하지 말아야겠다.

4 게으름을 버리고 자신감을 가져야겠다. 게으름이 나 자신에게 최고의 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상하게 자꾸 몸과 마음이 게을러져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놓치게 되고 만다. 내가 올해 제일 버려야 할 것은 게으름이다. 그리고 자신감을 더 강화해야겠다.

제대해서 나이는 먹어가고 졸업은 해야 되는데 사회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다. 자꾸 위축되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강화시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한다.

5 내가 입력하고 싶은 격언 세 가지. '사람의 힘으로 달성할 수 없는 일이란 거의 없다. 노력은 적게 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곳에 인생의 한숨이 있다' '나는 나를 경영한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깊은 믿음으로 입력하세요

새해의 결심은 자칫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다고 한다. 마음에 입력을 하면 생활에서 출력이 되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이다.

"깊은 믿음은 즐거움과 지혜로운 행을 낳는다"고 하였다. 마음의 근본에서 나의 습관과 행동과 생활이 나온다는 것,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란 점을 깊이 믿는다면 보다 충만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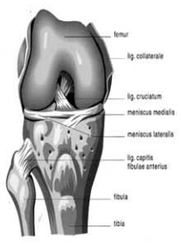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004-중-1788호 〈광고〉

퇴행성 류마티스 — 관절염 한방(韓方)치료한다.

중정한의원 왕 원장은 통상관절염이란 관절의 염증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되어 뼈의 기형화를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왕 원장은 "한방 치료를 통하여 관절염의 고질인 통증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한다."

◆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나이가 듦에 따라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가 쇠고 동맥경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절 안의 연골(소위 말하는 물렁뼈)에 주름이 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성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병으로써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연령에서든지 발생 할 수가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이후 5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주로 침범하는 관절 부위가 서로 조금씩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손목, 무릎, 발목 같은 관절에 많이 오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무릎 혹은 발목, 척추 그중에서도 요추 같은 체중이 실리는 즉 몸무게가 많이 실리는 관절에 주로 나타난다고 왕 원장은 말한다.

◆ 관절염 통증 치료한다.

관절염은 그 정도에 따라 경증(輕症), 중증(中症), 중증(重症)으로 나뉘며 초기관절염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정도이고 중기에는 관절 주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은 심해지고 통증이 시작되면2일~3일간 지속된다. 말기에는 통증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어려움을 느끼며 최악의 경우 관절 모양 자체의 변형이 유발되기도 한다. 왕 중권 한의학 박사는"한방 관절염 치료를 통하여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밤에 고통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관절의 상태를 되돌리는 데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의 경우 1~2개월의 한방치료로 가능하며 중증(中症),중증(重症)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3~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중정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경희대 외래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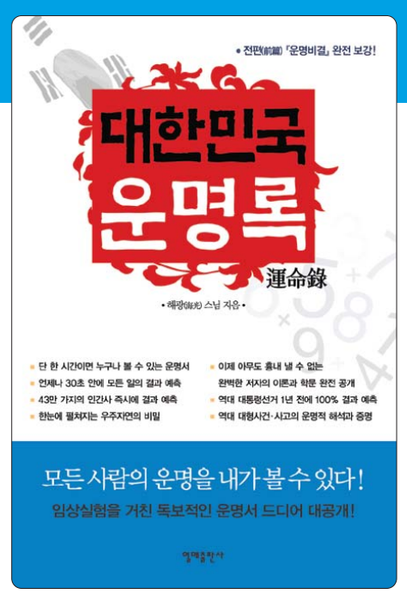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



운명록 전수생을 모집 합니다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해광스님 직강

과학적으로 證明된 정확한 논리와 臨床을 통한
입증된 學說 –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학 역학계에 돌풍을 일으킨
경악과 충격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자 격 : 정규종단에 승적이 있는 스님,
법사나 불자로서 포교원을 개원하여
포교에 진력할 분

서적구입문의
032)665-8472, 교보문고 외 인터넷서점 · 불교서점

금강禪院 · 금강불교대학
032)665-8472 / 010-3730-5247
경기도 부천시 상3동 533-7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2일개강

2008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2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불교학과)

1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이평래(충남대 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최종석(금강대교수)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방대학원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태원스님(승가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서성운스님(삼천사주지) · 김형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8년 1월 1일~ 2008년 1월 31일 입학금 2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8년 2월 2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투투컴퓨터

www.twotwocom.co.kr

전문가용 종합 역학프로그램 /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홈페이지 제작, 관리 / 종합사찰 서비스
문의전화:02)585-1141

네이버에서 **투투컴퓨터**를 치세요! 사주대전, 금강장사,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강장사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금강장사**
한눈에 보이는 신도관리! 철저한 사후관리!

축원관리/회원관리/영가관리/생일관리/명함관리/모듬처리/일정관리/회계관리/신수보기/
전체신도인쇄/자료정리와 백업기능.. 투투컴퓨터의 금강장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용 종합 역학 소프트웨어 투투컴퓨터 검색

四柱大典

사주대전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사주대전의 모습을
투투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리, 주역, 귀곡, 자미, 기문, 궁합, 성명, 택일, 당사주, 토정비결, 오운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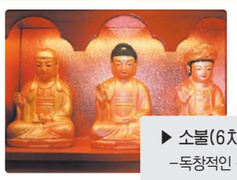


홈페이지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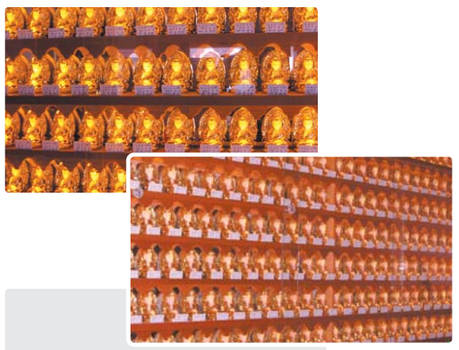
1. 제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문담당직원이 직접방문 상담
2. 제작 후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컨설팅지원
3. 검색사이트 일반등록 무료대행

소불 · 인등 · 영가단위패 · LED 연등전구 전문제작

영 광 불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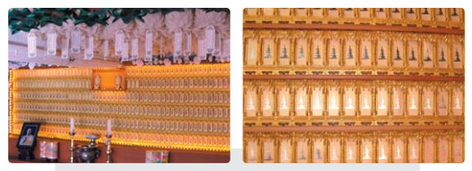


▶ 소불(6치, 7치)
-독창적인 상호와 우아한 색채감
-5,600칸델라의 화려하고 신비한 조명



▶ 인등(관음, 지장)
-초고휘도 LED전구사용
-고품격 도금식 인등 안치
-자동 조명색상 변환기능 첨가(신제품)

- 주문 및 상담연락처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565
연락처 : 016-567-4979
※ 전국 어디든지 방문 견적해 드립니다.



▶ 영가단 위패(조명식, 비조명식)
- 깔끔하면서도 화려한 이미지
- LED 전구를 이용한 조명 가능

- 2008년형 신재품 -



▶ IS-LED 연등용 전구(밝기 기능 강화)
-소비전력 0.2W로 기존 전구의 1/10~1/20정도로 절감
-열이 없어 여름에 덥지 않으며 화재로부터 안전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 · 각종 마이크 · 스피커 · 앰프 설치 · 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 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엠프 시스템

디지털마이크







각종 마이크 시스템(에코가능)



무선마이크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원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병고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불자님들께 산삼의 인연을 맺어드리고자 합니다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약사여래 도량 선광사는 병고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산삼의 인연을 맺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 일대에서 활동하는 심마니들을 위해 오래 전부터 산삼 감정을 해오고 있으며, 인연 있는 분들께 산삼을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약사여래도량 선광사 주지 도봉 합장

연락처 : 017-377-0464
서울시 관악구 봉천 10동 871-34번지(서울 포교원)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 232-1번지

산삼이란?

•천종(진종)산삼 (天種, 眞種)
고산지대의 식물의 특성에 의하여 압력이 높고 바람이 세고 습기가 적고 등등으로 고생고생하며 자란것으로 뇌두는 가늘고 싹대 역시 작고 가늘며, 잎수와 가지 숫자도 적다. 열매 또한 작으며 숫자가 적다. 뇌두가 가늘고 길며 약통에서 미가 갑자기 가늘어져 미에 살이 안붙고 힘이 있어, 예쁘고 귀한 티가 난다.
30년 정도는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 자란 연도에 비해 크기가 작고, 잘 크지를 못하며, 제일 커봐야 1냥 2~3돈 정도라 할 수 있다. 작지만 많은 세월이 느껴진다.
오리지널 산삼이란 것이며, 천종(진종)산삼이란 참으로 귀하며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지상 최고의 식물인 것이다.

•지종산삼 (地種)
야생장뇌 산삼에서 씨앗이 떨어져 자라면 씨종이 한단계 진화하며 야생장뇌에서 1-2대 지난것이 지종산삼이며, 뇌두의 굵기가 진종산삼과 야생장뇌의 중간정도이고, 생긴 형태도 중간이다.

•인종, 야생장뇌 산삼(人種)
야생장뇌란 재배장뇌씨가 새등에 의해 깊은 산으로 옮겨져 자생하는 것으로 생명력이 한단계 진화하며 오래살 수 있는것. 인삼과 많이 닮았으며, 뇌두가 두껍고 미에 살이 많고 귀티가 나지 않는다. 현재 채취되는 산삼의 대부분은 (95%이상)야생장뇌 산삼이나 지송산삼이라고 할수 있으며, 그러나 천종(진종), 지종,야생장뇌의 어디에 속하느냐는 집착할 필요는 없고 야생산삼이며 년조가 같으면 약효는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다. 같은 년조일때 천종(진종)산삼은 야생장뇌나 지종산삼보다 크기가 작다.